

2020-2

3종멘토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한국항공대학교 새내기성공센터

발 간 사

새내기성공센터에서는 2020년부터 시행하는 3중멘토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새내기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위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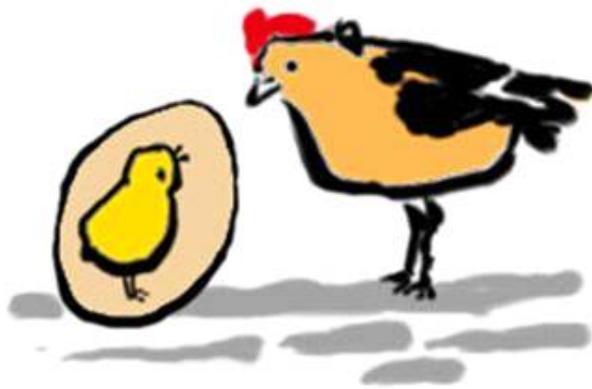
2020학년도를 시작으로 현재 2기를 맞는 3중멘토 프로그램은 선배멘토가 신입학한 새내기들과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 탐색을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우리 센터에서는 3중멘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양한 활동경험과 리더십을 갖춘 재학생멘토를 선발하였으며 멘토들에게는 장학금이 수여하고 멘토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년차를 맞는 3중멘토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102명의 재학생멘토가 20학번 새내기 멘티들에게 성공적인 대학생활과 진로를 탐구하는 길라잡이가 되었습니다.

2020학년도 재학생멘토들의 다양하고 재치 있는 아이디어를 통하여 활동했던 내용 중 우수한 사례들을 엮은 모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우수사례집 발간이 재학생멘토와 새내기멘티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정보공유와 벤치마킹의 계기가 되어, 새내기들에게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과 환경 조성으로 새내기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이 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소통하고 만족도 향상으로 연결되었으면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예비 KAU 새내기들에게 우리 대학이 입학하고 싶은 대학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본 우수사례집 발간을 위하여 애써주신 재학생멘토 및 조언을 해주신 모든 관계자분과 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03.05.

새내기성공센터장 정영호



啄啄同時



기회와 인연이 투합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김윤기 2015



새내기성공센터 소개

1. 새내기성공센터 주요기능

새내기성공센터 주요기능



새내기를 위한
교,내외 정보제공

새내기성공센터는 새내기들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첫번째
지원기관으로 교내 관련부서 연계 및
Information arcade기능을
담당하여 학생과 대학간 유기적인
연결고리 형성



대학생활과
진로설계를
책임지는 멘토링

소그룹별 선배(재학생)멘토, 현직
전문가 멘토, 지도교수 멘토와의 3중
멘토링 운영
신입생의 자기주도적 대학생활 및
진로설계 지원



원스톱 행정서비스

새내기성공센터는 KAU Arcade를
기반으로 새내기 지원을 위하여
One-Stop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Gate Way역할 수행

2. 3중멘토링

새내기성공센터에서 시행하는 3중멘토링은 신입생과 선배(재학생)멘토, 전문가 멘토, 지도교수 멘토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신입생의 학교 적응과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선배멘토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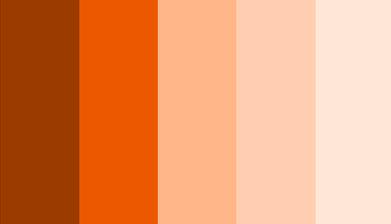
- 신입생 10명당 선배(재학생) 1명이 전담 멘토링
- 멘토링 그룹별 학교 적응 활동 및 전공별 진로탐색 활동

교수 멘토링

- 지도교수님과의 멘토링을 통해 전공탐색 및 수강지도
- 교수 전문분야별 비교과 활동 안내 및 경력개발 조언

전문가 멘토링

- 세부 전공분야별 현직 전문가 멘토풀 확보(졸업생 포함)
- 현직 전문가 멘토를 통한 최신 진로 정보 공유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1. 맨구 - 신동근멘토
2. 하늘바라기 - 양지윤멘토
3. 구리구리 대마왕 - 김규리멘토
4. 우기, 학교생활 문제있어? - 안지원멘토
5. 함몽어스 [H-mong us] - 이성근멘토

맨구 -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남자만 9명이 모여 있어 맨9라고 지었고 축구에 관심있는 팀원이 많아 맨유에서 착안했다.

1. 멘토링개요

가. 활동목적

- (1) 신입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회를 잡을 수 있게 서포트함
- (2) 신입생들간 친밀도를 향상하기 위한 활동을 하며 친밀감을 형성함

나. 멘토 및 멘티

- (1) 멘토 : 신동근
- (2) 멘티 : 신우진, 안휘빈, 백건호, 박진석, 오영석, 안승일, 박호진, 원승현

다. 멘토링 활동

- (1) 활동횟수 : 총 6 회 이상
- (2) 멘토활동 상세일지

일자	시간	장소	활동내용
2020.09.08. 2020.09.10.	18:00~18:30	줌 화상회의	처음 멘토-멘티가 모여 앞으로의 멘토링활동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계획과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짐
2020.10.14. 2020.11.24.	18:00~	줌 화상회의	보잉데이 소개 및 교내공모전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정보를 줌으로써 학교생활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2020.11.10.	18:00~23:00	홍대입구역	멘티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학과수업에 대한 질의응답과 학교생활에 대한 조언,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짐
2020.11.11.	15:00~18:00	홍대입구역	멘티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학과수업에 대한 질의응답과 학교생활에 대한 조언,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짐

2. 외부전문가 멘토링 활동

가. 간담회 일시 : 2020.12.17

나. 외부전문가멘토 소개 : 호진산업기연 연구원 황웅기

다. 활동내용

(1) 질의응답내용

- ◆ 기계과의 전망 ?

공학의 기본 전공이므로 열심히만 하면 기업에 잘 적응할 수 있다.

- ◆ 취업할 때 준비?

영어공부, 4학년 1학기때부터 학부연구생, 시간관리

(2) 외부전문가멘토 조언

- ◆ 대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관리인 것 같다.

- ◆ 할 일을 잘 관리하면 학점도 따라오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Zoom 화상미팅]



[Zoom 화상미팅활동사진 설명]

3. 지도교수 멘토링 활동

가. 간담회 일시 : 2020.11.12

나. 교수님소개 : 김경목 교수님

다. 활동내용

(1) 질의응답내용

- ◆ 교과과정 팁?

3~4학년에 영어공부를 추가로 하면 좋다.

하지만 전공공부가 가장 중요하다.

- ◆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과제

프로펠러 블레이드 뿌리설계

(2) 지도교수님 조언

- ◆ 차분함과 꾸준함이 공대생에게 가장 요구되는 능력이다. 열심히 하는 학생에게 기회가 가는 것이므로 잘 찾아보고 열심히 공부하길 바랍니다.

	<p>고수님들 - Windows 메모장</p> <p>주말: 토요일 18:00 ~ 19:0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기 (대학원)의 중요 2. 대학원 진학률, 취업률 3. 고수님의 연구분야가 궁금합니다. 4. 고수님은 학부생시절에 고수님이 되고싶었나요? 5. 유학을 가고싶은데 어떤 것 준비해야 할까요? 학교에서 공인학점 부족하면 되나요? <p>8시반 부터 학교에서 다양한 일을 한다. 3.4학년이면 영어공부를 추가로 더 하면 좋다. 하지만 전공공부가 가장중요하다</p> <p>전공필수과목이 중요하다. 이것위주로 공부해야. 성적학</p> <p>항공대 96학번. 퇴거시(영어 수학) 학교생 소행항공기가 있는 것에 연상 대학교에는 비행기관련 과목을 많이 배웠다. 그리고 잘 알았다. 1학년때부터 열심히하고 공대도 좋고 후 유학, 항공으로 갔다(백영준). 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문연구요원 (인천차 연구소-조선). 기업에서 학교같은 연구를 하였다. 학교같은 연구를 하기위해 고수가 되기로 결정했다. 정책개발 후 교장실에서 교직, 그리고 항공에서 교수 ----학교같은 연구를 할 수 있어서 고수가 되었다----</p> <p>연구분야 : 프로펠러 블레이드부위부분 설계, 영국 롤스로이스에서 박사과정의 연구했다 대학원도연구, 대학원 졸업 2006년부터 계속.</p> <p>항공기 150명에서, 50명 박사과정/ 유학을 가고 싶을 때 유학하게 해서가서 상반면의 하는 것이 된다. 석사과정 1년에 2학년 학점도 다. 영어로 기한 한 높다. 선진국 교육시스템 경험</p> <p>차분함과 꾸준함이 공대생한테 많이 요구된다. 특별한 학생보다 꾸준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에게 기회가 많이 준다. 한대자랑자, 상연한자, 대한항공은 알았나-연봉학사서</p> <p>장부좋은 영어소, 신학의 연구기(논문유형)도 괜찮다. 공기업 신학의 연구기(논문유형)</p> <p>학부생에는 한 반계가 있다. 연구는 열심히, 생활은 밝게</p>
<p>[Teams 화상미팅]</p>	<p>[Teams 화상미팅]</p>

4. 우리가 희망한 활동

- 일 자 : 2020.09.08. (화) 18:00~
- 장 소 : 온라인 미팅
- 활동내용 : 코로나로 인해 대면미팅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줌을 활용해 얼굴을 익히고 원하는 활동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
※ 멘티(박호진) 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불참

	 <table border="1"> <thead> <tr> <th>번호</th> <th>주제명</th> <th>주최자</th> <th>발표자</th> <th>연장</th> </tr> </thead> <tbody> <tr> <td>1</td> <td>3학년/4학년</td> <td>박호진(박호진)</td> <td>박호진</td> <td>09:50</td> </tr> <tr> <td>2</td> <td>3학년/4학년</td> <td>박호진(박호진)</td> <td>박호진</td> <td>09:55</td> </tr> <tr> <td>3</td> <td>3학년/4학년</td> <td>박호진(박호진)</td> <td>박호진</td> <td>10:00</td> </tr> <tr> <td>4</td> <td>3학년/4학년</td> <td>박호진(박호진)</td> <td>박호진</td> <td>10:05</td> </tr> <tr> <td>5</td> <td>3학년/4학년</td> <td>박호진(박호진)</td> <td>박호진</td> <td>10:10</td> </tr> <tr> <td>6</td> <td>3학년/4학년</td> <td>박호진(박호진)</td> <td>박호진</td> <td>10:15</td> </tr> <tr> <td>7</td> <td>3학년/4학년</td> <td>박호진(박호진)</td> <td>박호진</td> <td>10:20</td> </tr> <tr> <td>8</td> <td>3학년/4학년</td> <td>박호진(박호진)</td> <td>박호진</td> <td>10:25</td> </tr> <tr> <td>9</td> <td>3학년/4학년</td> <td>박호진(박호진)</td> <td>박호진</td> <td>10:30</td> </tr> <tr> <td>10</td> <td>3학년/4학년</td> <td>박호진(박호진)</td> <td>박호진</td> <td>10:35</td> </tr> <tr> <td>11</td> <td>3학년/4학년</td> <td>박호진(박호진)</td> <td>박호진</td> <td>10:40</td> </tr> <tr> <td>12</td> <td>3학년/4학년</td> <td>박호진(박호진)</td> <td>박호진</td> <td>10:45</td> </tr> <tr> <td>13</td> <td>3학년/4학년</td> <td>박호진(박호진)</td> <td>박호진</td> <td>10:50</td> </tr> <tr> <td>14</td> <td>3학년/4학년</td> <td>박호진(박호진)</td> <td>박호진</td> <td>10:55</td> </tr> <tr> <td>15</td> <td>3학년/4학년</td> <td>박호진(박호진)</td> <td>박호진</td> <td>11:00</td> </tr> <tr> <td>16</td> <td>3학년/4학년</td> <td>박호진(박호진)</td> <td>박호진</td> <td>11:05</td> </tr> <tr> <td>17</td> <td>3학년/4학년</td> <td>박호진(박호진)</td> <td>박호진</td> <td>11:10</td> </tr> <tr> <td>18</td> <td>3학년/4학년</td> <td>박호진(박호진)</td> <td>박호진</td> <td>11:15</td> </tr> </tbody> </table>	번호	주제명	주최자	발표자	연장	1	3학년/4학년	박호진(박호진)	박호진	09:50	2	3학년/4학년	박호진(박호진)	박호진	09:55	3	3학년/4학년	박호진(박호진)	박호진	10:00	4	3학년/4학년	박호진(박호진)	박호진	10:05	5	3학년/4학년	박호진(박호진)	박호진	10:10	6	3학년/4학년	박호진(박호진)	박호진	10:15	7	3학년/4학년	박호진(박호진)	박호진	10:20	8	3학년/4학년	박호진(박호진)	박호진	10:25	9	3학년/4학년	박호진(박호진)	박호진	10:30	10	3학년/4학년	박호진(박호진)	박호진	10:35	11	3학년/4학년	박호진(박호진)	박호진	10:40	12	3학년/4학년	박호진(박호진)	박호진	10:45	13	3학년/4학년	박호진(박호진)	박호진	10:50	14	3학년/4학년	박호진(박호진)	박호진	10:55	15	3학년/4학년	박호진(박호진)	박호진	11:00	16	3학년/4학년	박호진(박호진)	박호진	11:05	17	3학년/4학년	박호진(박호진)	박호진	11:10	18	3학년/4학년	박호진(박호진)	박호진	11:15
번호	주제명	주최자	발표자	연장																																																																																												
1	3학년/4학년	박호진(박호진)	박호진	09:50																																																																																												
2	3학년/4학년	박호진(박호진)	박호진	09:55																																																																																												
3	3학년/4학년	박호진(박호진)	박호진	10:00																																																																																												
4	3학년/4학년	박호진(박호진)	박호진	10:05																																																																																												
5	3학년/4학년	박호진(박호진)	박호진	10:10																																																																																												
6	3학년/4학년	박호진(박호진)	박호진	10:15																																																																																												
7	3학년/4학년	박호진(박호진)	박호진	10:20																																																																																												
8	3학년/4학년	박호진(박호진)	박호진	10:25																																																																																												
9	3학년/4학년	박호진(박호진)	박호진	10:30																																																																																												
10	3학년/4학년	박호진(박호진)	박호진	10:35																																																																																												
11	3학년/4학년	박호진(박호진)	박호진	10:40																																																																																												
12	3학년/4학년	박호진(박호진)	박호진	10:45																																																																																												
13	3학년/4학년	박호진(박호진)	박호진	10:50																																																																																												
14	3학년/4학년	박호진(박호진)	박호진	10:55																																																																																												
15	3학년/4학년	박호진(박호진)	박호진	11:00																																																																																												
16	3학년/4학년	박호진(박호진)	박호진	11:05																																																																																												
17	3학년/4학년	박호진(박호진)	박호진	11:10																																																																																												
18	3학년/4학년	박호진(박호진)	박호진	11:15																																																																																												
<p>[ZOOM 화상회의]</p>	<p>[ZOOM 화상회의]</p>																																																																																															

- 일 자 : 2020.11.10. (화) 18:00~
- 장 소 : 홍대입구역
- 활동내용 : 멘토와 멘티가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추억을 쌓는 시간을 가짐
첫 대면 만남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친밀감을 쌓는 대화를 나누는 계기가 되었음.
※ 멘티 9명중 4명(오영석, 박호진, 안승일, 원승현)은 개별연락을 취하였으나 개인일정으로 불참 의견 전달함



[석식 단체 셀카]



[석식 단체 셀카]

- 일 자 : 2020.10.14.-2020.11.24
- 장 소 : 한국항공대학교
- 활동내용 : 교내 공모전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정보를 줌으로써 학교생활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제공
※ 멘티 박호진이 보잉데이에 참가하여 4등 수상



[보잉데이 소개]



[보잉데이 제작기체]

5. 멘토링 참여소감

- 신동근 멘토 : 신입생들과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것이 재밌었음. 4학년으로써 대 학생할 전반적인 정보를 줄 수 있어서 뿌듯했고 계속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편한 형, 동생으로 지낼 계획입니다.
- 신우진 멘티 : 1학기 때 호지부지 되었던 멘토 멘티 활동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2학기 때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서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멘토형께서 적극적으로 모임을 도모하고 분위기도 좋아서 저도 편하게 친목을 다지면서 여러가지 정보도 같이 얻어갈 수 있었던 시간이라 정말 유의 미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현 시국이 점차 악화됨에 따라서 모임에 제한이 생겨서 자주 활동을 진행할 수 없었던 점이네요..!
- 백건호 멘티 : 학업적인 도움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학교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
- 박진석 멘티 : 학교 생활이나 취업 관련하여 많은것을 배울 수 있었으며, 좋은 선배님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던 기회였던 것 같다.
- 박호진 멘티 : 취업 관련해서 직접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 안휘빈 멘티 : 좋은 선배님을 알게 되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 안승일 멘티 : 코로나로 인해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같은 반 친구들을 알 수 있어서괜찮았습니다.
- 오영석 멘티 : 학업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 원승현 멘티 : 열심히 하려고 하셨지만 코로나가 심해진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6. 3중 멘토 개인별 성과

- 신동근 멘티 : 몰랐던 기업을 알게 되었다. 대기업 말고도 좋은 회사가 많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끼게 되었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다면 그런 기업에 취직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 신우진 멘티 : 멘토멘티의 가장 큰 수확은 적극적인 미래 설계에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2학년 세부전공 선택도 막연한 상황이었는데 여러가지 궁금증이 해결되고 자연스럽게 멘토형이 이것저것 말씀해 주시는 덕에 가장 가까운 미래의 목표인 세부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최종 목표는 취업이겠죠 ㅎㅎ..

백건호 멘티 : 교수님과 온라인으로 만나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박진석 멘티 : 앞으로의 대력적인 진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항공 or 자동차 분야)

박호진 멘티 : 박사과정을 항공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안승일 멘티 : 기계과가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는 조언을 들어서 안심했습니다.

안휘빈 멘티 : 항공쪽으로 제 진로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영석 멘티 : 군대에서도 진로를 위해서 계속 탐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승현 멘티 :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7. 멘토활동 포스터

2020학년도 2학기 3중 멘토링
맨구(맨9) 조

 신우진	 멘토 신동근	 안휘빈
 백건호	 박진석	 오영석
 안승일	 박호진	 원승현

하늘바라기 -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학교를 갈 수 없어 하염없이 하늘을 바라보는 새내기들의 마음을 표현

1. 멘토링개요

가. 활동목적

- (1)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못하는 새내기들의 대학 생활 적응
- (2) 소수의 멘티들(9명중 1명 휴학)의 친목 도모

나. 멘토 및 멘티

- (1) 멘토 : 양지윤
- (2) 멘티 : 윤병찬, 이경찬, 이도현, 이상빈, 이주호, 이한철, 임은섭, 장현진, 이시형

다. 멘토링 활동

- (1) 활동횟수 : 친목활동 4회 및 다수 (지도교수, 전문가멘토 간담회 제외)
- (2) 멘토활동 상세일지

일자	시간	장소	활동내용
2020.9~ 2021.1	주기적 진행	카카오톡 채팅방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수강신청 등의 학교생활 팁에 대하여 알려줄 수 있었고 서로 소통하며 친해질 수 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하여 소통이 별로 없었지만 친목활동을 갖고난 후로부터는 채팅방이 활성화 되었다.
2020.10.29	15:00 ~ 16:00	본교 카페	지도교수 상담이 끝나고 서로 대학생 활에서의 버킷리스트를 공유하고 서로 고민도 들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2020.11.06	18:00 ~ 21:30	용두동 고흥 쭈꾸미 & 골뱅이2	멘티들의 얼굴을 처음으로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서로 친해지며 학교생활 관련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2021.01.08	18:00 ~ 23:00	온라인	맛있는 것을 함께 먹으며 수다도 떨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같이 할 수 있는 게임(마우스로 그림을 그려 단어 맞추기, 끝말잇기 등)을 진행하였다.
2021.01.13	13:30 ~ 15:30	온라인	흥미진진 프로그램 3개를 모두 참여하였고, 검사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받았다. 자신의 성격, 진로흥미, 진로 가치

		<p>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 활동을 통해 자신이 미래에 진로를 선택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고를 것인지의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었다. 임은섭 멘티는 이 활동이 자신에게 가장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한다.</p>
--	--	---

2. 외부전문가 멘토링 활동

가. 간담회 일시 : 2020.11.21

나. 외부전문가멘토 소개 : 김홍래 멘토

김홍래 멘토님은 2012년에 대학원 박사 입학 후 창업과 중소기업에서 일하신 경험 보유하고 계심. 현재 솔탑이라는 기업에서 근무하심. 초소형 위성 연구팀 팀장을 맡고 계시며, 초소형 SAR 위성, 통신 네트워크, 공군사관학교 초소형 위성 등 11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중이심.

다. 활동내용

(1) 질의응답내용

Q. 장현진 멘티 : 멘토님께서서는 혹시 인턴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으셨다면 큰 도움이 되셨나요?

A. 인턴 경험이 없습니다. 2012년에 대학원 박사 입학 후 외부활동 경험 없고 오히려 창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Q. 임은섭 멘티 : 솔탑이라는 회사가 다른 대기업에 비하면 작은편인데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방향은 어떠한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A. 우주분야는 글로벌로 진입하기 힘들다. KAI 같은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이다. 해외산업은 대기업과 같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나라를 대상으로 보다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small business을 진행합니다. 대기업들이 해외로 뻗어나가는게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유연하게 움직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A. 차관을 많이 하는 형태입니다. 발사는 다른 쪽에서 진행하고, 만드는 것만 솔탑에서 진행합니다.

Q. 이한철 멘티 : 솔탑이라는 회사의 강점이 궁금합니다.

A. 대형위성 관제를 주로 했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와 위성이 어떻게 움직이

는지 등을 잘 알 수 있습니다.

Q. 윤병찬 멘티 : 취업을 위해 하는 대외활동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A. 창업을 했기 때문에 취업을 위한 활동을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학원 때는 학회, 교육참석 등을 하였습니다. 꾸준히 자신의 커리어를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취업을 위한 대외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원 연구실을 들어가서 논문도 써보는 것이 좋다. 중요한 것은 모든 활동을 취업 하기 위한다기보다는 나를 키운다는 마인드로 하는 것이 좋다.

Q. 이상빈 멘티

1) 현재 큐브위성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의 범주가 궁금합니다.

A. 초소형 위성이므로 거의 대부분 SAR위성을 이용해 역할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대형위성만큼의 처리속도나 양을 따라가지는 않기 때문에 1개를 올리는게 아니라 수백 개를 쏘아 올립니다.

2) 큐브위성을 관리하는 EGSE 시스템이 궁금합니다.

A. 니즈가 있고 요구사항 분석을 통한 위성 설계를 한 후 제작을 합니다. 시험시스템을 바탕으로 요구사항의 항목을 검증하는 시스템/위성이 제작되어 가는 과정에서 EGSE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Q. 이경찬 멘티

1) 솔탑에서 현재 직무와 맡고 있는 프로젝트가 궁금합니다.

A. 초소형 위성 연구팀 팀장/ 프로젝트: 초소형 SAR 위성, 통신 네트워크, 공군사관학교 초소형 위성 등의 11개 프로젝트

2) 지금까지의 업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신가요?

A. 50kg 초소형 SAR 위성/ 6M 위성용 안테나 이런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3) 솔탑이라는 기업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스펙이 무엇인가요?

A. 중소기업 지원을 하려면 뭘 했고, 의지가 중요/대기업만큼 스펙이 중요하진 않다. 실제 직무 능력을 쌓는 것이 좋다. 중소기업에서 실력을 쌓고 대기업을 가는 것이 좋다. 자기 스스로 뭔가를 공부해서 해결해 보았는지. 문제에 대해 어떤 활동을 했고 특허나 논문을 내봤거나 포트폴리오 등을 고민해봤고 등의 능동적인 활동, (learning rate) 일을 빨리 습득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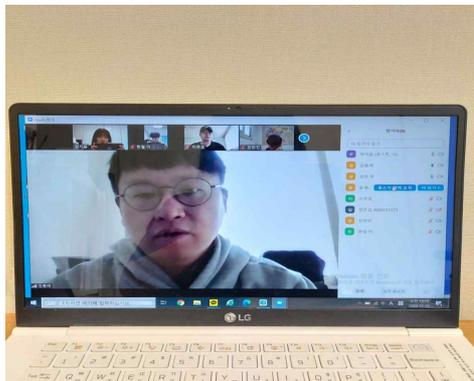
수 있는가?를 본다. / 대기업은 학점, 영어 같은 자격조건도 중요

Q. 이주호 멘티 : 솔탑은 주로 위성을 통한 원격탐사를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들었고 앞으로도 주목받을 분야라 생각하는데 이에 도움이 되는 공부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시스템 엔지니어링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설계 제작 과정/열, 자세, 구조 제어 등을 아는 것이 좋다. 세부적 기술은 나중에 습득 가능하다

(2) 외부전문가멘토 조언

자신이 취업/창업/대학원 등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를 잘 생각하고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셨다, 스스로의 동기부여가 중요하며, 자신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 올라갔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다.



멘토님을 소개하는 장면



ppt를 이용한 솔탑이라는 회사소개

3. 지도교수 멘토링 활동

가. 간담회 일시 : 2020.10.29

나. 교수님소개

△ 지도교수 학력: KAIST, 서울대, Imperial College London

△ 지도교수 전공 분야: 연소

다. 활동내용

(1) 질의응답내용

Q. (이한철 멘티) 현재 코로나 때문에 취업하기 많이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과는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A. (박성우 교수님) 코로나 때문에 취업률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을 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윤병찬 멘티) 군대는 언제 가는게 좋을까요?

A. (박성우 교수님) 1학년 마치고 가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Q. (이도현 멘티)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려면 어떤 스펙을 쌓아야 할까요?

A. (박성우 교수님) 남들이 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하고 차별성이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Q. (이경찬 멘티) 타 대학원 진학을 위해 준비해야 것들은 무엇일까요?

A. (박성우 교수님) 대학원은 보통 항공우주전공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데, 항공우주전공은 우리 학교 대학원 오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타 대학원을 가고 싶다면 학점이 4.2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임은섭 멘티) 이전에 해왔던 공부와 다르기 때문에 공부방법이나 리듬을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극복 팁이 있을까요?

A. (박성우 교수님) 역학같은 경우는 책의 이미지 자체를 외운다기보다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지도교수님 조언

학교생활이나 공부 관련 질문이 있으면 지도교수님을 찾아가서 여쭙보고 상담을 하면 좋습니다. 선배 멘토들이 도움을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을 때는 교수님께 연락드려서 상담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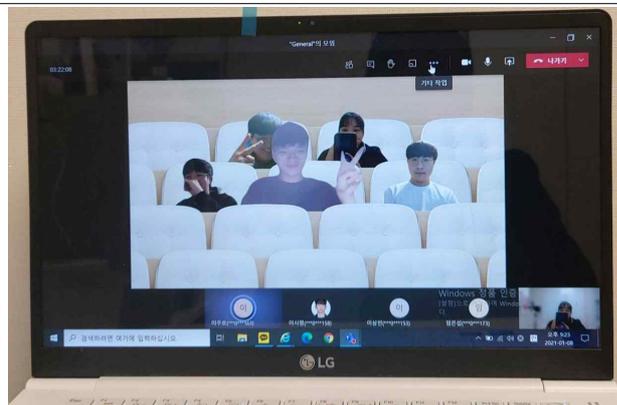
4. 우리가 희망한 활동

- 일 자 : 2020.11.6.(금)
- 장 소 : 학교 근처 음식점
- 활동내용 : 멘토와 멘티가 함께 식사하며 학교생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추후에 어떤 과목을 수강하면 좋을지,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등을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서로의 취미가 무엇인지 등을 공유하며 친목을 다졌다. 항상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소통하던 우리가 대면으로 처음 만난 시간이었다. 모두 같은 반이지만 서로 알지 못하는 멘티들이 많아서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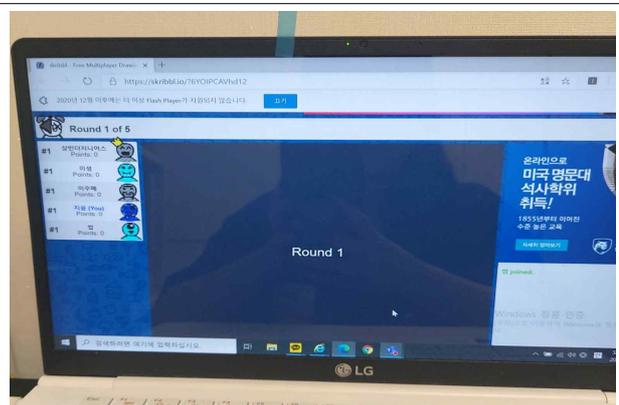


[함께 식사하며 친목을 다지는 모습]

- 일 자 : 2021.01.8
- 장 소 : 각자 멘토 멘티의 집
- 활동내용 : 치킨 먹으면서 한 학기 동안 어땠는지 이야기하다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을 찾아 게임을 하였다. 지난 친목 때 참석 못 한 멘티 몇 명도 함께여서 더욱 재미있었다. 멘토 멘티 활동이 끝나갈 무렵이었던 만큼 서로 많이 친해지고 편해진 것을 느낄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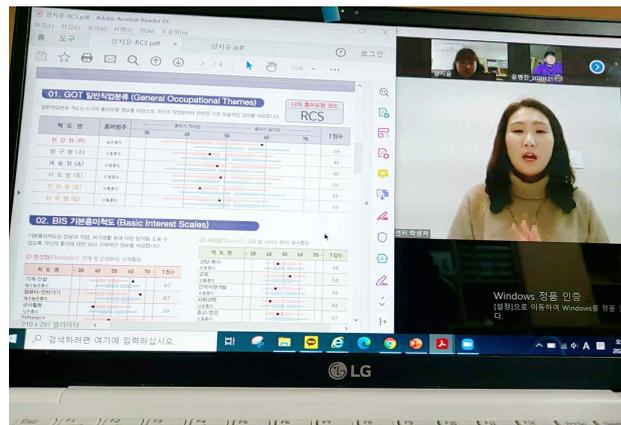


[치킨먹으며 수다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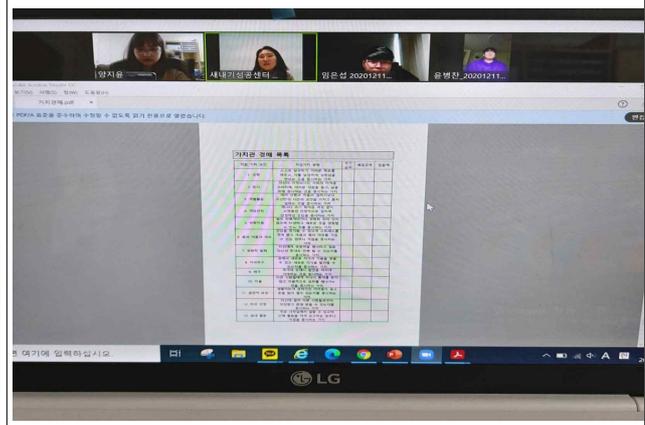


[다 같이 게임하기]

- 일 자 : 2021.01.13
- 장 소 : 각자 멘토 멘티의 집
- 활동내용 : 흥미진진 프로그램 3개(CST 성격강점검사, 진로가치관카드검사, STRONG 직업흥미검사)를 신청하여 검사를 받은 후 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받았다. 역량관리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검사 링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를 완료한 후 멘토링 팀 단체로 상담을 신청하면 멘토와 멘티가 함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성격강점검사에서는 6개의 핵심덕목이 24개의 성격강점으로 나뉘게 되는데, 자신의 강점영역이 지성/감성, 자기지향/타인지향 중 어디에 더 치우쳐져 있는지를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직업흥미검사에서는 맨처음에 나의 흥미유형 코드를 확인할 수 있고, 현장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사무형 중 자신이 어느 분야에 흥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BIS 기본흥미척도를 보면 분야별 여성과 남성의 흥미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보통흥미인 분야는 흥미가 높아질 확률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검사결과지만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상담을 통해 해소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 마지막 진로가치관카드검사는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자신이 진로를 선택할 때 어떤 분야를 가장 중시하는지를 알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든 검사였다.



[자신의 결과검사지를 보며 상담받기]



[진로가치관검사-검사지]

5. 멘토링 참여소감

- 양지윤 멘토 : 활동을 하면서 챙겨줄 수 있는 것에 보람을 느꼈으며, 학번 상관없이 친하게 어울릴 수 있어서 즐거웠다. 또한, 지도교수님과 전문가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좋았다.
- 장현진 멘토 : 편안한 마음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고 유익한 활동이었다.
- 이주호 멘티 : 코로나 때문에 학우들과 친분을 쌓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멘토링이 그 기회를 만들어 줘서 만족스러웠다.
- 이상빈 멘티 : 코로나로 인해 학교 선배를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멘토링으로 아는 선배가 생겨 든든했습니다. 또한, 각종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다는 점이 즐거웠다.
- 임은섭 멘티 : 처음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필요한 정보를 멘토 멘티 활동을 통해 비교적 수월하게 얻을 수 있었고, 동기들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매우 즐거웠다.
- 윤병찬 멘티 : 코로나로 인해 적극적인 대학 생활을 하지 못하였지만, 멘토 멘티 활동을 통해 대학 생활에 대한 조언과 피드백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음
- 이한철 멘티 :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으며 대학 생활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을 얻었다.
- 이경찬 멘티 : 코로나 사태로 동기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는데 멘토 멘티 활동을 통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 활동할 수 있어 좋았다
- 이시형 멘티 : 코로나 사태 와중에 학교 동기들과 연락할 수 있어서 좋았다. 많은 활동을 하진 못했지만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다.
- 이도현 멘티 : 내가 모르고 있던 것을 멘토가 알려줘서 더 이해하기 쉬웠다.

6. 3중멘토 개인별 성과

- 멘티1 장현진 - 취업한 선배의 소개와 Q&A 시간이 진로 설계에 큰 도움이 되었고 항공기계 회사 취업으로 목표가 확실해졌다.
- 멘티2 이주호 - 현재 직장에 계신 멘토분을 만나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얻을 기회를 받은 것이 좋았습니다. 항공 쪽으로 진로목표를 잡았습니다.
- 멘토3 이상빈 - 솔탐(항공산업)에 근무 중이신 선배님의 조언을 듣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지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항공산업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 멘티4 임은섭 - 여러 상담과 진로 활동을 통해 미래 설계 능력을 조금이나마 늘려 볼 수 있었다. 진로를 직업이라기보단 조건을 맞춰보는 시각으로도 접근해 볼 수 있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을 따라 진로계획을 설정할 예정이다.
- 멘티5 윤병찬 - 지도교수님과의 단체상담을 통해 현재 기계공학과와의 진로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흥미진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평소에 생각해 보지 않았던 진로와 직업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유익하였다. 엔지니어링쪽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멘티6 이한철 - 담당교수님과의 집단 상담을 통해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기계 쪽을 목표로 하고있다)
- 멘티7 이경찬 - 대학원 진학이나 앞으로의 과 설정에 있어 큰 도움을 받았다(진로목표는 현재 기계공학 대기업 취업이나 항공우주공학 대기업 취업이다)
- 멘티8 이시형 - 동기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학과 공부를 할 건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어하는지 알게 되었다(공군 장교 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발사체 연구직에서 일하고 싶다)
- 멘티9 이도현 - 선배님을 만나보면서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추천해주셔서 구체적인 목표 설정에 도움을 받았다(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고 싶다)

7. 멘토활동 포스터

2020학년도 2학기 멘토-멘티 활동 보고서

하늘 바라기

11/21 **기동래 전문가 멘토님 만나기**

11/6 **우리의 친목 모임 ♥♥**

1/13 **흥미진진 프로그램 상담**

1/8 **교민 얘기하며 수다 떨기**

한 학기를 마무리하며...

- ✓ 처음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필요한 정보를 멘토 멘티 활동을 통해 비교적 수월하게 얻을 수 있었고, 동기들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매우 즐거웠다
- ✓ 코로나로 인해 적극적인 대학생활을 하지 못하였지만 멘토 멘티 활동을 통해 대학 생활에 대한 조언과 피드백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

멘토 양지윤

멘티 윤병찬, 임은섭, 이상빈, 이한철, 이경찬, 이주호, 장현진, 이시형, 이도현

구리구리 대마왕 -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철저한 멘토 위주의 팀명에 멘티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1. 멘토링개요

가. 활동목적

- (1) 새내기 친구들의 학교생활 속 어려움을 들어주고 도움을 주기 위함
- (2)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친구, 선배와의 친목 도모 및 유대감 증대를 위함
- (3) 신입생들끼리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자리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 (4) 사소한 부분이라도 새내기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 (ex. 고민 상담, 진로 상담, 인생 상담 등)
- (5) 항공대에서 생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생활 꿀팁 제공을 위함

나. 멘토 및 멘티

- (1) 멘토 : 김규리
- (2) 멘티 : 이수형, 이현준, 전상우, 이교훈, 이재운, 임화섭, 이민규, 윤희재

다. 멘토링 활동

- (1) 활동횟수 : 친목모임 4회외 다수활동 (지도교수, 전문가 멘토 간담회 제외)
- (2) 멘토활동 상세일지

일자	시간	장소	활동내용
2020.09.22.	17:00~18:00	본교	아직 학교 지리에 익숙하지 못할 우리 멘티들을 위해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탐방 및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짐.
멘토링 기간 내내	주기적으로 진행	카카오톡 채팅방	1 : 1 전화멘토링과 멘토링 위시리스트 설문을 받아 멘티 친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짐. 그리고 멘토링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 각종 신입생들을 위한 정보를 나눔.
2020.09.22.	18:00~23:00 (거리두기)	행신동 인근 식당	행신동 인근 식당에서 학교 탐방 이후에 다른 멘토링 조원들과 함께 친목을

	1단계 시기)		다지는 시간을 가짐. (거리두기 1단계 시기로 식당 마감 시간도 없어 늦게까지 친목 시간을 가짐.)
2020.09.25.	17:00~18:00	Microsoft Teams	지도교수님 간담회 시간을 가지기 전, 멘티 친구들과 서로 지도교수님께 어떤 질문이 있는지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
2020.11.19	19:00~20:00	Microsoft Teams	전문가 멘토링 시간을 가지기 전, 멘티 친구들과 서로 지도교수님께 어떤 질문이 있는지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

2. 외부전문가 멘토링 활동

가. 일시 : 2020.11.19.

나. 외부전문가 멘토 소개 : 김학인 선배님

- (1) 현대자동차 UAM 기체개발팀 소속
- (2) 04년도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입학
- (3) 15년도 현대위아 재직
- (4) 17년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재직
- (5) 현재 현대자동차 재직

다. 활동내용

(1) 전문가 멘토님과의 질의응답 시간

Q. 하시는 업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A. 직접 제작해오신 PPT를 통한 설명

Q. 학부생 시절 자동차에 큰 관심이나 흥미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A. 처음부터 자동차로 잡은 건 아님, 항공에 더 관심이 많았다. 복합재료를 하면서 대학원졸업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자동차로 왔는데 항공 쪽에 관심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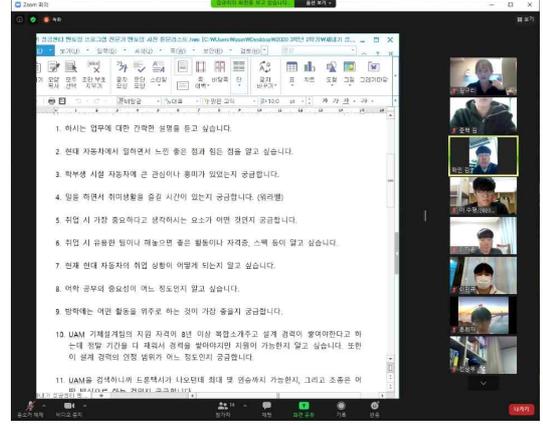
Q. 일을 하면서 취미생활을 즐길 시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라벨)

A. 실질적인 근무시간은 8시 업무 시작 5시에 공식적인 퇴근 . 경우에 따라서 유연근무제라고 해서 수요일이나 금요일에는 3시에 퇴근 가능. 상

황에 맞춰서 시간을 컨트롤. 저녁에는 원하면 취미 즐길 시간이 충분하다. 워라밸이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 Q. 취업 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요소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 A. 자기가 회사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어필할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회사에서는 이 사람이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가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본다. 어학적인 부분도 중요하게 본다. 전공에 관한 기본 지식, 어학(영어) 스펙도 중요하다.
- Q. 취업 시 유용한 팁이나 해놓으면 좋은 활동이나 자격증, 스펙 등이 알고 싶습니다.
- A. 석사 졸업. 취업 했을 당시에는 2만대 1. 나이가 많았다. 기본적으로 많은 활동을 했다. 어학연수, 동아리 활동. 자격증. (기계기사) 영어는 기본. 유용하다기 보다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이력서에 반영하는 것이 어필이 되지 않았나 싶다.
- Q. 어학 공부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 A.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화상미팅을 많이 하는데 해외 업체랑 화상미팅이 많다. 영어로 대화해야한다. 위치가 올라가고 해외 쪽으로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보면 어학공부는 매우 중요함. 퇴근하고 나서 계속 하고 있음 지금도.
- Q. 방학에는 어떤 활동을 위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궁금합니다.
- A. 어학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원어민만큼은 아니어도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프리토킹 수준까지는 해야한다. 어학공부 뿐만 아니라 활동적인 것들도 했으면 좋겠다.
- Q. 어떻게 이 직무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A. 원래는 시험쪽 업무를 했었다. 회사에서는 재료 개발 쪽으로 배치를 받았다. 자의반타의반으로 재료 쪽으로 담당하고 있다. 박사가 아닌 이상은 학사, 석사 마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를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 Q.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A.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직 전문가가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이제 막 들어온 친구들한테 말하긴 좀 그렇지만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어려운 일들이 많아질 것이고, 회사는 방학도 없고 규칙

적인 패턴과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는 문제점이 야기되는 곳이다,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인 것 같은데 많은 추억을 쌓고, 이러는 게 더 좋을 것이다.

	
<p>201119 전문가 멘토 PPT 발표</p>	<p>201119 전문가 멘토 사전질문 답변</p>

3. 지도교수 멘토링 활동

가. 일시 : 2020.11.19.

나. 지도교수님 소개 :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장대성 교수님

- (1) 항공우주공학 전공
- (2) 유체 전공
- (3) 제어 lab에서 연구 진행 중
- (4) 현재 연구 분야 : 항공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 분야

다. 활동내용

(1) 지도교수님과의 질의응답 시간

Q. (이교훈 멘티 질문) 2학년 때 선택하는 항공우주공학 전공과 기계공학 전공이 크게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기계랑 항공은 2학년 때까지는 필수 과목이 있어 거의 동일하다. 3학년 과목 중에서도 유체나 구조의 고급버전, 열전달, 기계진동 등 공통된 과목이 많다. 차이점이 있다면 항공우주공학 전공 학생들이 유체에 집중된 과목이나 공기역학(비행역학)이라는 것을 많이 듣게 된다. 또한, 항공기 구조, 추진, 비행제어, 비행동역학 등의 항공기관련 과목을 듣

는 경우가 많다. 교과 과정 측면에서 얘기하면 3학년 때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항공우주공학은 기계공학이라는 큰 범위 안에서 항공관련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기계공학과 전공과목에는 항공관련 과목이 별로 없다. 항공우주에 관심이 있으면 항공우주공학, 넓은 범위에 적용되는 학문에 관심이 있으면 기계공학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Q. (이교훈 멘티 질문)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들(교내 대회 등)이 실제로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취업에는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별이든 팀이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소중한 경험인 것 같다. 경험 전과 후의 생각의 변화가 많고, 에너지를 많이 쏟았다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다. 이런 경험들이 20대 초반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는 데 꽤 도움이 될 것 같다. 거창하게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일상적인 루틴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다양한 활동을 직접 해보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자극이 될 수 있는 것 같다. 다양한 활동에는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도 포함된다. 의무감이 아니라 원해서 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동아리 활동)

Q. (이재운 멘티 질문) 항공기시스템공학 전공과 항공우주공학 전공이 통합된다는데, 군대를 다녀와도 이수과목을 이수하면 항공정비 관련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예전에는 학부에서 수업을 듣고 시간을 더 채우는 과정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그게 인정이 안 됨. → 이에 대한 내용은 10월 중으로 항공기시스템공학 전공 주임교수님이 학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 게시예정이니까 글 올라오면 참고하기 ! (파란 글씨는 멘토가 간담회 이후에 추가적으로 답변한 내용입니다.)

Q. (이민규 멘티 질문) 현재 공군 특기병을 생각 중인데 이것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잘 모르겠다. 정비 관련 업무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직접 보는 거랑 책으로만 보는 것은 확실히 차이가 있다. 정비 관련 업무라면 관련 직업에 취직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일반 기계라면 취업에

도움이 잘 되지 않을 것이다.

Q. (임화섭 멘티 질문) 1학년 생활이 이렇게 되어 군대를 다녀온 이후가 걱정됩니다. 제대 이후에 어떻게 학교에 적응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교수님께서 혹시 추천해주실 활동이나 적응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동아리를 추천한다. 동아리에 가입해서 적어도 몇 명의 선배나 동기(인맥)를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 군대를 다녀오면 학생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새로 공부를 다시 집중해야하는 것은 쉽지 않고 하려면 정보가 중요하다. 2년 뒤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재 2학년 인 선배와 친해지는 것이 좋다. 그런 선배들을 알아두면 정보를 얻기 쉽고, 동아리 선배일 경우 인맥을 쌓는 것도 쉽다. 공부를 쉬어서 다시 몰입하는 것은 스스로의 문제지만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선배를 사귀는 것을 추천한다. 같은 학년의 여학생 친구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대면활동을 못해서 어렵겠지만 돌아왔을 때 도움이 되려면 친구나 선배, 여자 동기들을 많이 사겨놓는 것이 좋다.

Q. (이수형 멘티 질문)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졸업하면 학사로 졸업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석사 과정을 졸업하는 것이 취업에 도움이 확실히 더 많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취업률이 특별히 높아지는 것 같지는 않다. 학사는 전문성을 가진 인재로 취급하지는 않는다. 그냥 공학계열로 보고 넓게 뽑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학사 졸업은 취업의 문이 넓다. 대졸 공채에 도전하는 곳에 석사 과정 졸업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연구직을 뽑는 경우 석사가 도움이 될 것 같다. 더 우대하는 경우가 있다. 특정한 스킬이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니까. 연구소나 기술기반 기업에서 감독, 시스템 이해도가 필요한 행정 업무의 경우 석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ex. kari, kai 등) 석사를 마치게 되면 대개 연봉이 높은 직렬을 찾아갈 수 있지만 선택의 폭이 조금 좁아질 수 있다.

Q. (이현준 멘티 질문) 융합전공을 고민 중인데 이것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단정 지어 말하기는 어렵다. 융합전공의 취지는 여러 분야를 같이 배워 생각의 폭을 넓히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융합전공을 한다고 해서 전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주진 않는다. 융합전공이 석사를

진학해서 공부를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교수의 입장에서 분야별로 융합전공을 수강하는 학생을 보는 시선이 다르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취업시장에서도 벌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드론이나 AI 관련에 관심이 있다면 융합전공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융합전공이 취업에 특별히 불리하지도 유리하지도 않을 것이다.

Q. (윤희재 멘티 질문) 항공이나 기계 관련이 아닌 다른 계열 기업의 인턴을 해도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개인적인 경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데 단순 작업이나 서류 작업의 경우 오래한다고 해서 전문성이 생겼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다른 분야여도 전문성을 쌓고 일의 진행방식을 구체적으로 배워 놓는다면 어느 기업을 가던 도움은 될 것이다. 전혀 다른 회사에 가더라도 이전 회사에서 배운 지식이 완전 쓸모없어지진 않는다.

Q. (전상우 멘티 질문) 현재 항공 업계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인데 이에 대한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합니다.

A. 민항기 항공사의 운영을 잘 모른다. 어쩔 수 없이 장기화될 것 같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 화물운송으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다. 화물운송은 돈을 벌수는 있지만 여객운송 종사자 및 서포터들(간접고용자) 및 엔지니어들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상태로 끝나던 코로나는 끝날 것이고, 예전 수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코로나가 끝나면 사실 취업 경쟁이 격화될 수 있다. 1학년 기준으로 아직은 걱정할 필요 없지 않나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인원을 적게 뽑긴 하지만 큰 타격은 없을 것 같다.

Q. (전상우 멘티 질문) 위성통신 관련 직종을 하고 싶으면 어떤 전공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항공우주공학 전공을 하는 것이 좋고 전자과 과목을 많이 듣고, 석사로 전자과를 진학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p>200925 간담회 전 질문 공유 시간</p>	<p>201006 지도교수님 간담회 진행상황</p>

4. 우리가 희망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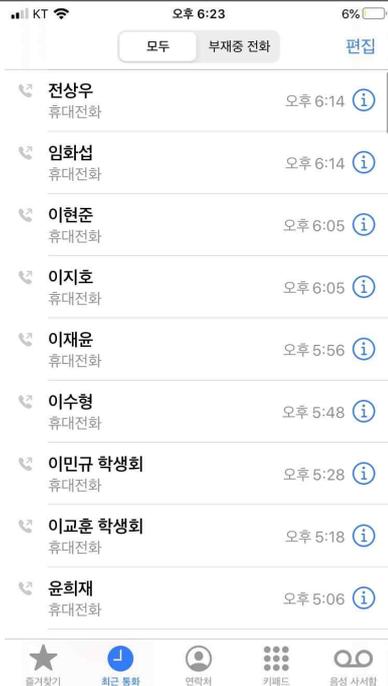
- 일 자 : 2020.09.22.
- 장 소 : 본교
- 활동내용 : 아직 학교 지리에 익숙하지 못할 우리 멘티들을 위해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탐방 및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짐.



- 일 자 : 2020.09.22.
- 장 소 : 행신동 인근 식당
- 활동내용 : 행신동 인근 식당에서 학교 탐방 이후에 다른 멘토링 조원들과 함께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짐. (거리두기 1단계 시기로 식당 마감 시간도 없어 늦게까지 친목 시간을 가짐.)



- 일 자 : 멘토링 기간 내내
- 장 소 : 카카오톡 채팅방
- 활동내용 : 1 : 1 전화멘토링과 멘토링 위시리스트 설문을 받아 멘티 친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짐. 그리고 멘토링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 각종 신입생들을 위한 정보를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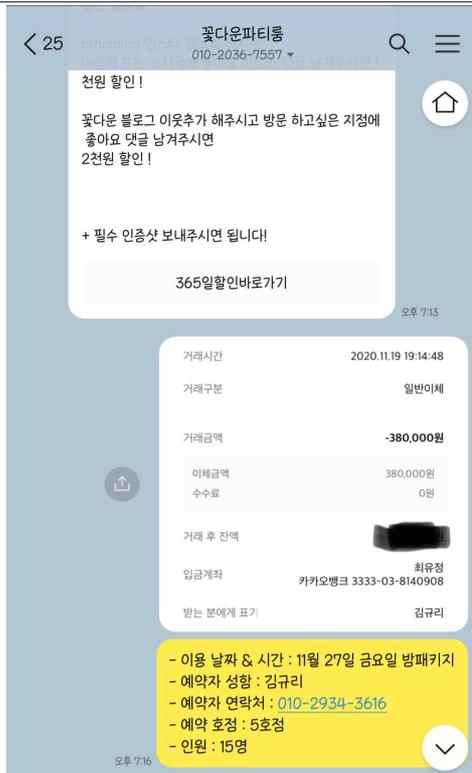


♥ 멘토링 위시리스트 ♥

한 학기 동안 멘토링을 원활하고 재미있게 진행하기 위한 위시리스트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예정이니 다양한 아이디어 부탁드립니다 ? ㅎㅎ

- 일 자 : 2020.11.27.(금) MT 기획
- 장 소 : 카카오톡 채팅방
- 활동내용 : 예약도 완료하고 돈도 지불했으나 갑작스러운
코로나19 단계 격상으로 인해 연기
환불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현재도 연기중이며,
멘토링 종료 이후가 되더라도 팀원들과 조율하여 MT 진행 예정

201119 파티룸 이용 금액 지불



신촌 ‘꽃다운 파티룸’에서 멘토 김정은 조와 함께 팀별 MT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단계 격상으로 인해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는 상황. 멘토 김규리 팀 멘토 포함 9명으로 총 사용 금액 228,000원.

5. 멘토링 참여소감

- 멘토 김규리 - 2학기에 만난 우리 팀원들이 1학기에 못해본 활동들로 인해 너무 아쉬워하는 것 같아서 이번 학기에는 꼭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리라 다짐했는데, 계속되는 코로나 단계 격상으로 인해 매번 TEAMS나 ZOOM으로만 얼굴을 보고 타이밍이 잘 맞아서 만나게 되더라도 팀원 전원을 만나보지 못해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컸다. 하지만 부족한 멘토임에도 멘티 친구들이 항상 감사하다고, 괜찮다고 격려해주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앞으로 학년이 올라가고 멘토가 아니게 되더라도 이 친구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라면 물심양면 도와주기로 마음먹게 된 멘토링 활동이었다.
- 멘티1 이수형 - 학교 친구들, 선배님과 온라인으로라도 연락하며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즐거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면 활동을 가져보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 멘티2 이현준 - 코로나로 인해 활동에 제약이 많아 아쉽긴 했지만 멘토 선배님께 많은 정보도 얻고, 유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다.
- 멘티3 전상우 - 동기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 멘티4 이교훈 - 저희 멘토 누나께서 시험기간을 다 피하고 활동 같은 것을 다 잡아주시고, 일주일 전에 질의응답 같은 것을 미리 다 같이 모여서 추합한 후에 실제로 멘토링을 진행해 매우 원활하게 한 번에 이루어져서 좋았다.
- 멘티5 이재윤 -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로 얼굴보면서 많은 활동을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MS팀즈와 줌을 이용하여 멘토 선배님, 학우들과 함께 팀명을 짜고, 그리고 여러가지 회의를 통해 학교 생활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면서 비대면으로 인해 알지 못했던 학교의 전반적인 모습, 학교생활,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멘티6 임화섭 -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서 선배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멘토링을 통해 든든한 선배를 만나게 되어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어 의미 있었음.
- 멘티7 이민규 - 코로나 시국에도 최소한의 교류와 만남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전문가와의 멘토링 활동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멘티8 윤희재 - (군입대로 인해 소감 및 개선사항을 전달받지 못함.)

6. 3중멘토 개인별 성과

멘티1 이수형 - 교수님과 전문가 멘토 분과의 상담을 통해 제 진로에 있어서 이점이 될 수 있는 활동이나 공부를 조언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 멘토께서 요즘 취업 경쟁에서 영어가 큰 장점이 될 수 있다하셔서 방학을 기회 삼아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멘티2 이현준 - 취업한 선배님과의 시간을 가지면서 UAM관련 직무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고, 궁금했던 점들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나의 진로 설계 및 목표 설정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을 수 있었다.

멘티3 전상우 -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멘티4 이교훈 -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지도교수님과 면담을 통해 학교생활과 미래 진로에 있어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 또한 동아리와 교외대회에 대해서 생각이 많았는데 교수님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많이 해주셔서 좋았다.

멘티5 이재운 - 현대 UAM팀에 계시는 선배님을 만나보는 시간에서 UAM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멘토링 활동은 아니지만 멘토 선배님께서 대학일자리센터에서 하는 현직자 선배님들께 질문을 할 수 있는 활동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직종에 계신 선배님께 궁금한 점을 여쭙보고 답변을 통해서 그 분야를 위해 준비해야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멘티6 임화섭 - 2학년부터 정해야 할 전공의 특징을 멘토님이 잘 알려주셔서 전공을 선택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음.

멘티7 이민규 - 실제 기업에 나가있는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취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도교수 간담회 또한 교수님의 경험과 지식들을 토대로 앞으로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멘티8 윤희재 - (군입대로 인해 소감 및 개선사항을 전달받지 못함.)

7. 멘토활동 포스터

2020학년도 2학기 새내기 멘토링

구리구리대사왕



지도교수님과의 간담회



멘티들과의 친목 다지기



캠퍼스 투어



멘티 친구들의 후기 한마디

멘티 이수형 - 학교 친구들, 선배님과 온라인으로도 연락하며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즐거웠습니다.

멘티 전상우 - 동기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멘티 이재운 - 알지 못했던 학교의 전반적인 모습, 학교생활,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멘티 이민규 - 코로나 시국에도 최소한의 교류와 만남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전문가와의 멘토링 활동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멘티 임화섭 - 멘토링을 통해 든든한 선배를 만나게 되어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어 의미있었습니다.



멘티 멘티 멘티 멘티 멘토 멘티 멘티 멘티 멘티

이현준 전상우 이수형 이재운 김규리 이민규 이교훈 윤희재 임화섭

우기, 학교생활 문제있어? -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의 졸업말인 항우기를 이룸처럼 사용하고 멘토링을 통해 학교 생활을 하며 생기는 어려움을 해결해주겠다는 의미에서 선정하였다.

1. 멘토링개요

가. 활동목적

- (1) 멘티들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하고자 함.
- (2) 멘티들에게 든든한 선배가 되어 학교생활 외에도 진로나 개인적인 고민을 해결해주고자 함.

나. 멘토 및 멘티

- (1) 멘토 : 안지원
- (2) 멘티 : 박찬민, 방주현, 안승환, 신재관, 백자영

다. 멘토링 활동

- (1) 활동횟수 : 총 9회 활동
- (2) 멘토활동 상세일지

일자	시간	장소	활동내용
2020.08.19.		카카오톡	멘토 자기소개 및 수강신청 꿀팁 전달, 멘티들이 수강하는 과목 정보 공유
2020.08.30	19:00~19:40	비대면 zoom	구글폼을 이용한 온라인 모임 전 멘티들의 활동 선호도 조사, 줌으로 멘토-멘티 간 인사 및 활동 소개, 멘티 정보 수집(가입한 동아리, 나이, 지역, 진로 등)
2020.09.07	19:00~19:30	비대면 팀즈	근황 토크 및 개인별 선호하는 활동 선택 학교 관련 질문 Q&A
2020.09.19.		카카오톡	연휴에 책 한 권 언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책 선정 및 멘티 집으로 배달
2020.10.01		카카오톡	연휴에 책 한 권 언제? 활동 후 감상평 공유
2020.10.10.~ 11.19		카카오톡	전문가 멘토님께 연락, 일정 조율

2020학년도 2학기 새내기성공센터
3중멘토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2020.10.19	20:00~21:00	비대면 팀즈	전문가 멘토님께 여쭙볼 질문을 준비하고, 멘티들의 대면 시간표를 조사하여 지도교수님과의 면담을 준비. PPT를 제작하여 학교 어플 사용법 및 솔루션 찾는 법 공유
2020.10.24.~ 11.18		메일	지도교수님께 연락, 일정 조율
2020.11.16.		메일	지도교수님께 질문리스트 전달
2020.11.19.	10:00~11:40	비대면 zoom	지도교수 간담회
2020.11.24	17:00~18:30	학교 강의실	전문가 멘토링
2020.11.24.	18:30~19:30	학교 강의실	전문가 멘토링 후 강의실에서 간식을 먹으며 근황 토크와 Q&A 진행
2020.12.28.~ 01.05		전화, 카카오톡	흥미진진 진로상담 프로그램 문의 및 상담 신청, 개인별 검사 진행
2021.01.06.	14:30~16:30	비대면 zoom	새내기 성공센터에서 진행하는 흥미진진 진로상담 참여. 진로 가치관 카드검사, 직업 흥미검사, 성격강점검사를 모두 진행함.
2021.01.20.	20:00~21:30	비대면 팀즈	방학 동안의 멘티들의 근황을 묻고, 수강신청과 관련된 조언 및 내년에 필요한 자료들을 공유함. 2학년 때 하면 좋은 프로그램을 추천하며 멘토링을 마무리함.
2020.09~12	매주	카카오톡	study with me 프로그램을 한 학기 동안 진행함. 서로 공부시간을 공유하고 과제제출을 인증하며 학습 의지를 높임.

2. 외부전문가 멘토링 활동

가. 간담회 일시 : 2020.11.24. 17:00~18:30

나. 외부전문가멘토 소개

LG전자 L&A센터 전력전자(연)차량모터 Task, 책임연구원
전기차 모터 및 냉각시스템 설계 등 유체분야 박사

다. 활동내용

질의응답 내용 및 조언

Q1. 석, 박사 우대가 있나요?

A1. 예전엔 우대가 많았는데, 요즘엔 석박사가 많아서 거의 사라졌다.
멘토님 때는 45명 중 석사가 3명이었고, 회사에서 석, 박사 지원을 해줬는데 요즘엔 석사 비율도 높고 지원도 적어졌다.

Q2. 현재 연구하시는 분야와 대략적인 하루 일정

A2. 요즘 재택 근무를 해서 5일 중에 2일은 재택근무를 한다.
오전 11시, 1시에 화상회의 혹은 대면 회의를 하고 바로 나오며, 통근길이 2~3시간이라 아까워서 전기자전거를 타며 출퇴근을 한다.

Q3. 일하면서 필요한 능력이나 지식

A3. 사람들과의 소통! 대학원을 가게 되면 대학원도 하나의 작은 사회라서 사회활동을 할 기회가 생긴다. 소통 능력이 중요하니까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또한, 자신이 관심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심있는 분야를 찾아보자

Q4.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하고 싶은 일

A4. 남들 눈치 보지 않고 궁금하면 질문도 하고, 들어보고 싶은 과목도 타과여도 들어보고 싶다.

Q5. 1~2학년에게 하시고 싶으신 조언

A5. 질문하고 싶으면 하고! 남들 눈치 보지 말아라. 유체로 세부전공을 듣지 않아도 유체과목은 꼭 들어보자.

Q6. 학교생활 하면서 추천할 만한 활동

A6. 사진부, 플롯 배운 것 등 다 기술했었다. 이력이 특이해서 눈에 띄었으니까 하고싶은 것을 하자.



멘토링 후 멘토님과 기념사진



멘토님의 강연을 듣고 있는 멘티들

3. 지도교수 멘토링 활동

가. 간담회 일시 : 2020.11.19. 10:00~11:40

나. 교수님소개

복합재 구조설계 및 시험평가 전공

전 국책연구원 근무, 풍력발전용 블레이드 기술 연구

다. 활동내용

질의응답 내용 및 조언

Q1. 올해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교수님으로서는 어떠신가요?

A1. 이학구 교수님: 준비하는데 시간 엄청 걸린다. 강의를 3~4개씩 진행하다 보니 집중적으로 하는 과목도 있고 실시간으로 해야 하는 과목도 생긴다. 매해 한, 두 개씩 만들면 괜찮았겠지만, 올해 모든 영상을 만들었어야 해서 영상 퀄리티가 낮아진 것 같다. 오프라인으로 할 때 문제를 풀게 시키는데 푸는 걸 보면 우리의 이해수준을 알 수 있다. 학생이 받아들이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게 아예 안 된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

Q2. 앞으로 전공과목을 배우게 될 1학년 멘티들에게 전공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주세요!

A2. 이학구 교수님 : 내용을 이해하는 학생이 있고, 방정식을 다 외우는 학생이 있다.

2학년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는 이해하지 않고 암기만 하면 한계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수식을 어떻게 인식했

는가가 중요하다. $F=ma$ 질량*가속도 아니고 mv 의 변화량이다. 그대로 외우지 말고 내용을 생각해라. 이해를 못 하면 수식이 너무 많아져서 머리만 복잡해진다. 이해하면 공통적인 맥락에서 나온 거로 생각하고 많이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Q3. 대학원을 가는 게 좋은 걸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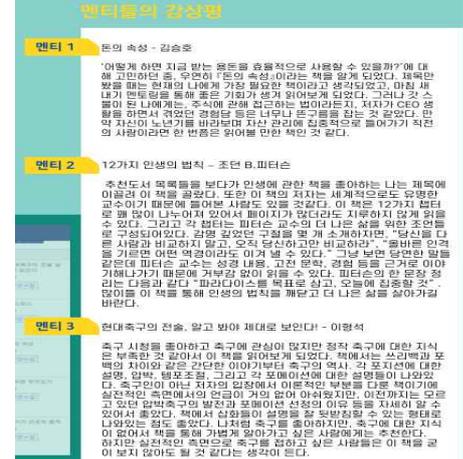
A3. 이학구 교수님 : 나는 당연히 추천한다. 시대를 좀 봐야 하는데, 역사는 반복되고 흐름이 있다.

지금은 하락하는 추세다. 70년대에는 열심히만 하면 잘 될 수 있는 시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부장 차장은 많고 사원은 적은 상태다. 회사가 사원을 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회사는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모든 사원의 업무능력이 좋아야 한다. 그러다 보니 경력직이 유리하다. 그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곳이 대학원이다. 대학원도 석, 박사가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석사에서는 과제를 본인이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 엄청 고생한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 확실히 달라진다. 박사는 또 다르다. 당신이 이 학문 분야에 기여한 것이 무엇인가? 를 따지므로 정말 학문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박사과정까지 밟는다. 학부 때 기반을 잘 닦아야 응용력이 생기니까 대학원생각이 있으면 열심히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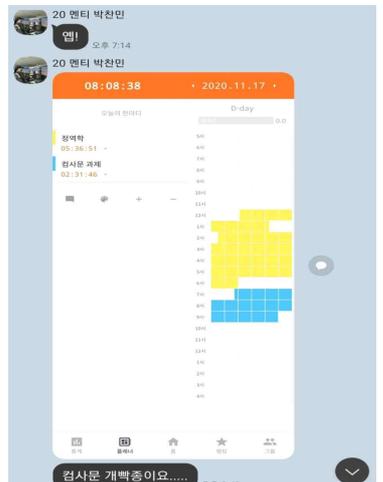


4. 우리가 희망한 활동

- 일 자 : 2020.09.19.~2020.10.01
- 장 소 : 각자 집
- 활동내용 : 책을 접할 기회가 적어지는 요즘, 연휴를 맞아 멘티들이 읽고 싶은 책을 부담 없이 읽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책을 다 읽은 후에는 단체 채팅방에 자신이 책을 선정한 이유와 후기를 남겨 멘티들끼리 정보를 공유하였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상품명</th> <th>수량</th> </tr> </thead> <tbody> <tr> <td>[국내도서] 현대측구의 전술 알고 봐야 제대로 보인다 11,700원 / 1개</td> <td>1</td> </tr> <tr> <td>[국내도서] 코스모스 16,650원 / 1개</td> <td>1</td> </tr> <tr> <td>[국내도서] 돈의 속성 15,120원 / 1개</td> <td>1</td> </tr> <tr> <td>[국내도서] 정의란 무엇인가 13,500원 / 1개</td> <td>1</td> </tr> <tr> <td>[국내도서] 12가지 인생의 법칙 15,120원 / 1개</td> <td>1</td> </tr> </tbody> </table>	상품명	수량	[국내도서] 현대측구의 전술 알고 봐야 제대로 보인다 11,700원 / 1개	1	[국내도서] 코스모스 16,650원 / 1개	1	[국내도서] 돈의 속성 15,120원 / 1개	1	[국내도서] 정의란 무엇인가 13,500원 / 1개	1	[국내도서] 12가지 인생의 법칙 15,120원 / 1개	1	 <p>멘티 1 돈의 속성 - 김승훈 "어떻게 하면 지금 받는 봉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던 중, 우연히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알게 되었다. 특별한 배경을 띠는 원재의 나에게 가장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되었고, 마침 새내기 멘티들을 통해 좋은 기회가 생겨 읽어보게 되었다. 그러나 첫 스캔이 된 내에게는, 주석에 관해 최근하는 법이었던지, 저자가 CEO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물론 너무나 연구들을 접는 것 같았다. 만약 자신이 노년기를 바라보며 자산 관리에 집중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의 사람이려면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다.</p> <p>멘티 2 12가지 인생의 법칙 - 조던 B.피터슨 추천도서 목록들을 보다가 인생에 관한 책을 좋아하는 나는 제목에 이끌려 이 책을 골랐다. 또한 이 책의 저자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교수이기 때문에 읽어본 사람도 있을 것 같다. 이 책은 12가지 법칙으로 뭉쳐져 있어서 페이지가 많더라도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각 법칙은 피터슨 교수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조언들로 구성되어있다. 감동 받았던 구절을 몇 개 소개하자면 "당신을 다들 사랑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당신만이야 비교하라", "출발할 양만큼 기름을 연료 탱크에 채 넣어라" 등이다. "나의 날엔 단행의 말을 같은데 피터슨 교수의 성경 내용, 고전 문학, 권위 등을 근거로 이어가며 이야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읽을 수 있다. 피터슨의 연 문장 중 나는 다음과 같다 "피터슨이 책을 목표로 삼고, 오늘도 집중할 것 없이 이 책을 통해 인생의 법칙을 깨닫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p> <p>멘티 3 현대측구의 전술, 알고 봐야 제대로 보인다 - 이형석 축구 시장을 좋아하고 축구에 관심이 많지만 정작 축구에 대한 지식은 부족할 것 같아서 이 책을 읽어보게 되었다. 책에서는 축구역과 포백의 차이와 같은 간단한 이야기부터 축구인 역사, 각 포지션에 대한 설명, 압박, 오프조움, 그리고 각 포메이션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있다. 축구인이 아닌 자의 입장에서 이론적인 부분을 다룬 책이기에 실전적인 측면에서의 언급이 거의 없어 아쉬웠지만, 이전까지는 모르고 있던 일반축구인 발전과 포메이션 선정의 이유 등을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책에서 언급되어 설명을 잘 공부할 수 있는 점도 나와있는 점도 좋았다. 나처럼 축구를 좋아하지만, 축구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책을 통해 가볍게 알아가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추천한다. 하지만 실전적인 측면으로 축구를 접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책을 굳이 보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p>
상품명	수량												
[국내도서] 현대측구의 전술 알고 봐야 제대로 보인다 11,700원 / 1개	1												
[국내도서] 코스모스 16,650원 / 1개	1												
[국내도서] 돈의 속성 15,120원 / 1개	1												
[국내도서] 정의란 무엇인가 13,500원 / 1개	1												
[국내도서] 12가지 인생의 법칙 15,120원 / 1개	1												
<p>멘티들이 선정한 책들</p>	<p>카톡방에 올려준 멘티들의 감상평</p>												

- 일 자 : 2020년 2학기 내내
- 장 소 : 카카오톡 채팅
- 활동내용 : 한 학기 동안 멘티와 함께 공부량이나 과제해결 여부 등을 인증하며 공부 자극도 되고, 소소한 팁들도 알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p>2시 30분부터 5시요</p> <p>과제6: 5장_A</p> <p>과제6: 5장_A 문제 스템.pdf 왕석학 과제6: 5장_A(20201027까지).pdf</p> <p>제출 상황</p> <table border="1"> <tr> <td>제출 여부</td> <td>제출 완료</td> </tr> <tr> <td>제출 상황</td> <td>채점되지 않음</td> </tr> <tr> <td>종료 일시</td> <td>2020-10-27 23:55</td> </tr> <tr> <td>마감까지 남은 기간</td> <td>18 시간 26 분</td> </tr> <tr> <td>최종 수정 일시</td> <td>2020-10-27 05:18</td> </tr> <tr> <td>직접 작성</td> <td>+</td> </tr> <tr> <td>검사됨</td> <td>검사했습니다.</td> </tr> <tr> <td>첨부파일</td> <td>왕석학 과제 제출.pdf</td> </tr> <tr> <td>제출물 설명</td> <td>> 댓글 (0)</td> </tr> </table> <p>제출한 과제 편집</p>	제출 여부	제출 완료	제출 상황	채점되지 않음	종료 일시	2020-10-27 23:55	마감까지 남은 기간	18 시간 26 분	최종 수정 일시	2020-10-27 05:18	직접 작성	+	검사됨	검사했습니다.	첨부파일	왕석학 과제 제출.pdf	제출물 설명	> 댓글 (0)	 <p>20 멘티 박찬민</p> <p>오후 7:14</p> <p>08:08:38 · 2020.11.17 ·</p> <p>오늘의 연차</p> <p>0.0</p> <p>일일학 55:36:51</p> <p>원시문 과제 10:31:46</p> <p>08:00 0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24:00</p> <p>검사문 개백중이요..... 오후 8:40</p>
제출 여부	제출 완료																		
제출 상황	채점되지 않음																		
종료 일시	2020-10-27 23:55																		
마감까지 남은 기간	18 시간 26 분																		
최종 수정 일시	2020-10-27 05:18																		
직접 작성	+																		
검사됨	검사했습니다.																		
첨부파일	왕석학 과제 제출.pdf																		
제출물 설명	> 댓글 (0)																		
<p>과제제출 인증</p>	<p>공부시간 인증</p>																		

- 일 자 : 2020.08.30. / 2020.09.07. / 2020.10.19. / 2020.11.24. / 2021.01.20
- 장 소 : 비대면 Teams, 대면 한국항공대학교 강의실
- 활동내용 : 총 4번의 Teams 미팅과 1번의 대면 만남을 통해 멘티들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하였다. 단체가 아닌 소수(1~2명)로 진행하여 멘티 개개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멘티가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하였다. 멘티들이 다양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체험해본 많은 교내 대회, 동아리, 행사 등을 알려주었다. 또한, 멘티들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질문도 받으며 더 나은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Teams를 이용한 비대면 멘토링



학교 강의실에서 대면 멘토링

여기서 끝리는 활동 2개 이상! ver. 온라인 *

- 대학 위시리스트 만들고 각자 or 함께 실천해나가기
- 에세이나 소설 읽고 책추천하기 (책은 멘티가 정하면 멘토가 시음, 위로가되는 에세이 같은 책 위주)
- 공부 브이로그 (일주일에 1~2회정도 자신의 공부량 정하고 인증하기)
- 대학교 어플 사용법(?) + 학부 커리큘럼 정리
- 들어가고싶은 동아리에 대한 질문 대신해주기 or 현재 2학년인 동아리 부원 소개시켜주기

여기서 끝리는 활동 2개이상! ver. 대면 *

- 화전 맛집 소개
- 볼링, 양궁 등 스포츠 활동
- 학교탐방+ 항공우주박물관(?가고싶으면..)
- 흥대에서 놀기! 보드게임이나 방탈출
- 봉사활동 or 헌혈
- 박람회 (항공 또는 기계관련)
- 대학로 연극

구글폼을 이용한 활동 선호도 조사

2021년 1월 20일

General 종료됨: 1시간 18분

← 회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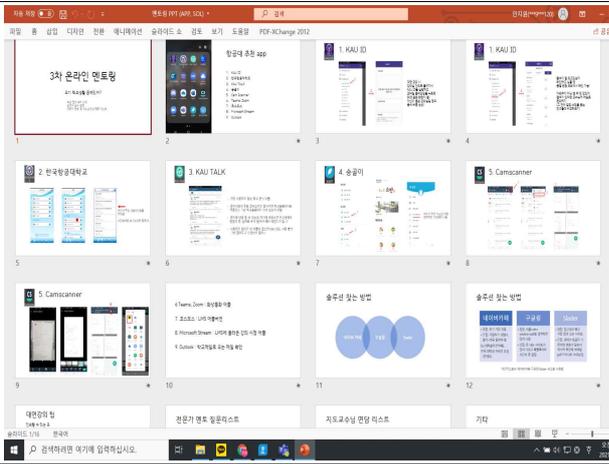
2021년 1월 22일

General 종료됨: 1시간 10분

← 회신

Teams를 이용한 멘토링 기록

- 일 자 : 2020.10.19. / 2021.01.20
- 장 소 : Teams 미팅,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 활동내용 : Teams로 만날 땐 ppt를 사용하여 솔루션 찾는 법과 학교 어플리케이션 사용법, 수강 신청 방법, 과목 추천 등을 알려주었다. 이외에는 주로 카톡방으로 진행 중인 대회나 알아야 할 공지사항, 나중에 알면 좋은 내용을 공유하였다. 또한, 마지막 팀즈 미팅에서는 2학년 때 필요한 과목별 자료와 내가 2년 동안 교내 취업 멘토링을 들으며 적어둔 자료들을 공유하는 등 멘티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전달하였다.



3차 멘토링에서 공유한 ppt 파일

*새내기멘토 마지막 zoom - Windows 메모장

파일(F) 편집(E) 서식(O) 보기(V) 도움말(H)

1. 방학 뭐하고있는지
2. 수강신청 잘 짜고있어?
열, 재료, 미방 지정반 9학점
전응제 기작 기구 드론 전기전자 확통 중에 전응제 기작 전전 9학점
기구학은 3학년때! 드론, 확통은 취항따라
3. 내년에 배우는거 솔루션
파일 만들. 정보도 같이 넣었으니까 나중에 꼭 읽어보기
4. 정보
-수강지도 상담 1월21일목~29일금
역량관리시스템-통합상담-지도교수상담-수강지도상담
장바구니 2월1일
수강신청 2월8일
-새내기멘토링 하는거 추천
-항공대 취업공유오픈채팅방 들어가는것도 추천
-날다 학습공동체 2학기때라도 같이 공부할 친구들 생기면 추천
-마일리지 장학 쌓는거 좋음
-학사공지 자주보고 활동 잘 참여하자

4차 멘토링 때 전달한 내용

- 일 자 : 2021.12.28.~2021.01.06
- 장 소 : zoom 미팅
- 활동내용 : 새내기 성공센터에서 진행하는 진로 가치관 카드검사, strong 직업 흥미검사, cst 성격강점검사를 모두 진행하였고, 각자 검사를 실시한 후 zoom을 통해 담당자님과 함께 결과를 분석하였다.



cst 성격 강점검사

	스스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여 성취감을 맛보는 것을 중시하는 가치	순위			
1. 성취	자신의 이익보다는 사회의 이익을 고려하며, 어려운 사명을 돕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중시하는 가치				
2. 봉사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혼자 일하는 것을 중시하는 가치				
3. 개별활동	해고나 조기 퇴직은 직장 없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일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중시하는 가치				
4. 직업안정	일이 반복적이거나 정형화 되어 있지 않으며 다양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중시하는 가치				
5. 변화지향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마음과 몸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일이나 직업을 중시하는 가치				
6. 몸과 마음의 여유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일을 자신의 뜻대로 진행 할 수 있는자를 중시하는 가치				
7. 영향력 발휘	일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지식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중시하는 가치				
8. 지식주구	국가의 미래나 발전을 위하여 기대하는 것을 중시하는 가치				
9. 애국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해나가는 것을 중시하는 가치				
10. 자율	생활하는데 경제적면 여유롭지 않고				

진로 가치관 카드검사

5. 멘토링 참여소감

멘토 안지원: 1학년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활동이었다. 대면으로 많이 보지 못해 아쉬웠지만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알려준 것 같아서 뿌듯하고, 준비하면서 즐거웠던 활동이다. 멘티들이 내가 준비한 활동들에 너무 잘 참여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이 인연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멘티1 박찬민: 1학기 멘토링과는 다르게 2학기에는 학교 커리큘럼에 좀 더 적응되어서 그런지 다양한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스스로 뿌듯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선배 및 동기들과 학업적인 교류를 전혀 할 수 없었는데, (긍정적 의미에서의) 강제적인 멘토링 활동을 통해 대학 생활 및 교과 과정에 있어서 궁금한 점을 편하게 질문 할 수 있는 선배가 생겼다는 점은 학교생활의 전반에 있어 나에게 굉장한 안정감을 주었다. 또한, 멘토 선배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학교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를 주시며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해주신 덕분에 대학다운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다.

멘티2 방주현: 2학기이지만 학교에 갈 기회가 적고 아는 사람도 거의 없어서 학교에 대해 잘 몰랐었는데, 멘토멘티 활동을 하며 학교에 대해 많이 알 수 있었다. 또한, 흥미진진 진로상담과 전문가 멘토님을 만나는 활동 등이 진로에 대해 보다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멘티3 안승환: 코로나로 학교를 못가고있는 상황에서 동기들을 연결해 줄 뿐만 아니라 선배님과의 관계도 형성해줘서 고마운 프로그램이었다.

진로 관련 활동도 유익했지만, 심리검사, 읽은 책 추천하기 등을 통해 나 자신을 더 알아가고 또 다른 취미생활을 갖는 기회도 얻어서 유익했다.

멘티4 신재관: 여러모로 불편했던 학기 생활이었지만 멘토멘티 활동 덕분에 학교에 대한 여러가지 사소한 것에서부터 중요한 부분들까지 조언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같이 무언가에 참여해 배워나가는 과정이 유익하고 기분 좋은 시간이었다.

멘티5 백자영: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없어 여러모로 힘들고 난감했는데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든든한 선배와 함께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학교 생활에 동기부여와 안정감, 소속감을 받아 좋았다.

6. 3중멘토 개인별 성과

- 멘티1 박찬민: 가장 도움 된 프로그램은 ‘전문가 멘토링’ 이었는데, 실제 한국항공대학교를 졸업하신 선배님이 본인의 직장에서의 위치와 하시는 일, 그리고 실제로 항공대 생활을 하시며 느꼈던 점과 충고, 조언들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또한, 멘토 선배님께서 추천해주신 ‘항우기 취업 멘토링 - 대한항공’ 또한 굉장히 값진 경험이었는데, 항공우주공학과를 졸업하고 굳이 대학원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항공업계에 종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 (학사 졸업 후, 항공 분야 회사 설계 및 생산 파트 취업, 또는 항공우주 분야 대학원 진학 및 졸업 후, 항공 분야 회사 연구직 취업 목표)
- 멘티2 방주현: 취업에 성공하신 후 꾸준히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멘토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대략적인 진로 로드맵 구성에 도움을 받았다. 더불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던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 (진로 목표는 공기업 기계계열 직무 혹은 사기업 구조생산계열 직무)
- 멘티3 안승환: 현재 연구소에서 일하시는 선배님을 직접 만나뵈며 직장내 분위기, 수준, 업무 등을 전해듣고 대학원 진학을 한번 더 고민하게 되었다.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 요즘 취업이 힘든 항공사 대신 자동차나 전자기업에 취업을 생각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분야는 학년이 오르며 경험들을 하고 난 후 내게 맞는 것을 고를 것이다.
- 멘티4 신재관: 실제 lg에 근무하시던 학교 선배님의 강의를 통해 나의 진로와 회사 생활에 대한 조언을 얻었고 그것을 통해 나의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을 구상해보았다. (진로 목표: 자동차, 항공기 분야 쪽 회사에 취업해 기계 설계 희망)
- 멘티5 백자영: 학과에 대한 궁금한 점등을 멘토 선배와 상담함으로써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생겨 더 열정있게 학업에 임할 수 있었고 덕분에 자동차 엔지니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

7. 멘토활동 포스터

새내기의 든든한 도우미 우기, 학교생활 문제있어?



필요한거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말합니다.

대학생활 적응 프로젝트



1 전문가멘토님의 강연



2 선,후배간의 친목도모



3 정기적인 ZOOM 미팅과
학교 생활 꿀팁 공유



4 흥미진진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진로 찾기

멘토: 항우기 19 안지원

멘티: 항우기 20 박찬민, 방주현, 백자영, 신재관, 안승환

WITH 새내기 성공센터

항몽어스 [H-mong us] -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항몽어스는 항공대에서 인연으로 이어진 우리끼리 서로 의지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1. 멘토링개요

가. 활동목적

- (1) 새내기들의 두 번째 학기의 적응 및 온, 오프라인 수업에 대한 도움
- (2) 새롭게 접하는 전공에 대한 도움 및 코로나 우울증 해결 노력

나. 멘토 및 멘티

- (1) 멘토 : 이성근
- (2) 멘티 : 강준구, 길유창, 김다현, 김민석, 김민준

다. 멘토링 활동

- (1) 활동횟수 : 5회 [지도교수 상담, 전문가 멘토 간담회 등 필수 제외]
- (2) 멘토활동 상세일지

일자	시간	장소	활동내용
2020. 2학기 전반적	주기적 진행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공부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2학기 후반부에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차 심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만남을 자제하고 온라인 프로그램 ZOOM을 이용하여 전공[정역학], 기초필수[물리] 등의 강의 중 모르는 부분을 학습하였습니다. 또한, 틈틈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학습과 개별적인 고민 등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 10~11월	-	온라인	오프라인 회식에서 입고 만날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의 후리스를 공동구매하였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멘토와 멘티 모두 같은 옷을 입고 만나 서로 끈끈한 결집성을 느끼기 위해 선물하였습니다. 이후 만날 때, 다같이 입고오진 못하였지만, 멘티들이 후리

			스를 일상생활에서 따뜻하게 편안하게 입고다녔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2020.11.19	17:00 ~ 21:00	오프라인 [본교 근처]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학교를 방문하지 못해 동기들, 선배들과의 교류가 부족해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하고,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멘티들을 위해 중간고사 뒷풀이 및 기말고사 대비 만남을 진행했습니다. 비록 상황상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의 우려, 지방 거주하는 인원들의 불참 등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의 참여는 불가하였지만, 교내 근처에 있는 멘티들과 친목도모를 진행했고 전반적인 학교생활 및 선배로서의 경험담, 멘티들의 스트레스 등을 이야기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0.11~12	-	온라인	멘티들에게 공지사항 등을 올라오는 대로 전달해주었습니다. 또한, 록히드 마틴, 보잉대회 등을 함께 접수신청을 진행하였고, 접수에 성공한 멘티는 2학기 보잉대회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보잉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멘티는 4등에 입상할 수 있었습니다.
2021.01.27	17:00 ~ 18:00	개인 집	학기가 끝나고 학기의 마무리로 회식을 진행하려고 약 15만원의 금액을 남겨놓았으나, 5인 이상 집합금지 및 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개별적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치킨 먹방 챌린지를 진행하였습니다.

2. 외부전문가 멘토링 활동

가. 간담회 일시 : 2020. 12. 09

나. 외부전문가멘토 소개

전문가 멘토님 : 이승현 멘토님

전문가 멘토 전공 : 열 유체 항공대학원 (장석필 교수님)

하고 있는 일 : 대한항공 항공기술 연구원, 기업 동향파악

진행방식 : Zoom을 통한 온라인 멘토링

다. 활동내용

(1) 질의응답내용

Q1. 봉사활동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A1. 멘토님은 봉사활동을 진행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Q2. 전공, 비전공, 교양 각각 어떻게 공부했는지 알려주세요! / 전공선택 과목중에 꼭 들어야 할 과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2. 학점 잘 주는 과목 및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의 특성에 따라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수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Q3. 추천하는 대회, 공모전, 대외활동이 있습니까?

A3. 대회 및 공모전, 대외활동은 진행하지 않았지만, 동아리 및 학점관리를 하여 학점을 3.95로 졸업하셨음

Q4. 대학원 갈 생각이면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A4. 학점이 제일 중요하고 이외 영어가 중요하다.

Q5. 학교에서 배운 전공 중에 실무에서 사용하는 내용이 있나요?

A5. 다 기본적인 개념으로 실무과정에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학과공부를 하다보면 천천히 익히게 됩니다.

Q6. 복수전공, 부전공이 큰 스펙이 되는가요?

A6.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취업시장 및 실무에 나가 봐야 확실히 알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Q7. (통합 질문 및 대답) 대한항공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 지금 대학생들에게 조언할 것이 있나요? + 항공우주공학과와 기계공학과, 두 과가 취업할 때 차이가 큰가요?

A7. 좋은 소식과 나쁜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

1. (Urban Air Mobility) UAM 도심 내 물품/ 승객 운송
누적 시장규모 13조, 일자리 16만명 생산 예정
PAV시장 전망이 좋고, 현대자동차에서 크게 진행하고 있음.
기계공학, 항공관련 취업 시장이 늘어날 예정임.
2. Space X, 민간주도 우주 산업이 개발되어지는 중
우주항공 스타트업이 뜨고 있다. (뉴 스페이스 시대) / 항우연, KAI,
한화, 이노스페이스 등

나쁜 소식

1. 자동차 산업 위기 심화 (몇 년째 지속중 현재상황 많이 않 좋음)
2. 대한항공 항공업계도 힘들..
3. 4차 산업혁명에서 일자리가 파괴될 것임. 그래서 코딩관련 공부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함

이외 질문

(멘토님) :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멘 티) : 취업하신 선배님들의 조언 및 멘토링을 들으면 목표도 설정하게 되고 공부에 대한 자극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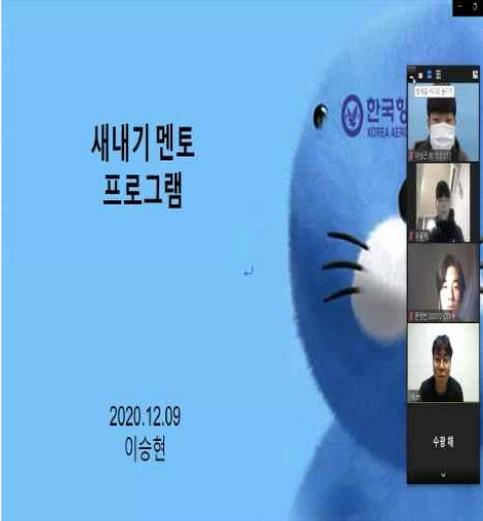
(멘토님) : 공부 뿐만아니라 경험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토익 800점에서 900점으로 올리는 것 보다는 여러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멘 티) : 대학원은 어떠셨습니까?

(멘토님) : 멘토님은 재밌으셨다고 합니다. 하나의 길이나 아니라 가지를 타는 인생이니까 대학원도 하나의 길을 가는 가지중 하나였고 재밌었다고 하심.

(2) 외부전문가멘토 조언

1. Don' t Thinking Just Do it!
2. 책(돈에 관련된)을 읽는 것을 추천
3. 과의 취업에는 크게 관련이 없다. 운과 실력이 매우 중요하다.

	
<p>대한항공 소개 PPT</p>	<p>질의응답 시간</p>

3. 지도교수 멘토링 활동

가. 간담회 일시 : 2020. 11. 11.

나. 교수님소개

지도교수님 : 박성우 교수님

지도교수님 전공 : 열 유체의 연소

지도교수 소개 : 항공용 연료에 대한 연소 파라미터 제어 연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과제 : 항공용 모사연료 개발 플랫폼 개발

모사연료를 이용한 연소 및 냉각특성 연구

다. 활동내용

(1) 질의응답내용

Q1. (공통질문) 1.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는 2학년 때, 과가 3가지로 전공 선택한다고 들었습니다. 각 과마다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A1. (지도교수님) 3가지의 전공 선택을 진행한다. 기계공학 전공, 항공우주공학 전공, 항공기 시스템 전공으로 나뉩니다.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은 거의 비슷할 것이다. 4대 역학을 위주로 배우게 됩니다.

3학년 이후부터는 구조생산 열유체 동제어로 나뉘면서 본인의

지적 호기심 또는 전공 성적에 따라 수업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기계공학은 자동차나 시스템을 제어하는 것 또는 구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취업을 위한 학생들이 선택합니다. 기계공학은 엄청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대학원을 가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항공우주공학은 기계공학을 날아다니게 만드는 것, 연구나 대학원을 갈 친구들이 선택합니다. 항공우주가 소수이기 때문에 카이스트,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작은 풀에서 좋은 대학원 진학)

시스템공학은 항공정비사를 하기 위한 교과목 배정, 향후 항공우주 전공으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21학번부터는 시스템 전공이 없어지고, 정비 융합학부에서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학년 때는 거의 다룰 게 없어 점차 알게 될 것입니다. 취업은 기계공학 전공이라고 여러 분야에 못 가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고민해서 미래를 투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공을 변경할 기회는 1회가 있으니까 전공을 진행해보다가 잘 생각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Q2. (공통질문) 2학년 이후부터 학부 연구생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학부 연구생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A2. (지도교수님) 교수와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학부생. 연구하는 인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학원을 진학할 생각이 있는 학생들도 있고, 지적 호기심과 조금의 월급, 논문에 이름이 쓰이는 것 등등 경력을 쌓는 기회라 생각하면 됩니다.

학부 연구생을 2학년 이후에 진행하게 되는 것은 전공지식이 있을 때 진행하는 게 좋다.

Q3. (공통질문) 현 코로나 상황에서 교수님께서 추천할 만한 활동 [ex) 학점관리, 대외활동, 동아리 활동 등] 또는 학문적으로 현 기계공학 학생으로서 준비하면 좋을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A3. (지도교수님) 대외활동은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하면 좋겠지만, 장려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학기는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다른 교수님들과의 회의에서 학점을 좋게 줄 생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발전 중입니다. 언택트 활동이 커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비대면과 4차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보아 3~4년 뒤를 한번 예상해보고 공부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에서 사용하는 머신러닝 등 이런 토픽등을 찾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엑셀 같은 기계공학도가 아니어도 자기만의 특기를 발전 시키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tbl 수업들을 많이 진행해보고 할 때, 열심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트렌드를 알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4. (길유창 멘티) 보잉 대회 등 할 것이 많아져서 우왕좌왕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4. (지도교수님) 계획을 세우는게 중요합니다. 열심히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단기, 중기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일이 있어도 계획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 교수인 저도 아직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가치를 두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task 위주로!

Q5. (강준구 멘티) 학사과정 졸업해서 취업하면 보통 어디에 취업하고, 석사 박사 졸업하면 보통 어디에 취업하나요?

A5. (지도교수님) 학부를 졸업하면 대기업 등 선택의 폭을 넓히려고 합니다. 기계공학 전공하면 웬만한 데는 다 갈 수 있습니다. 학부에서는 선택의 폭도 넓고 취업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석사 박사를 진행하게 되면 공부는 깊이 있게 배우지만, 공부를 더 한 만큼 선택의 폭은 더 좁아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갈 수 있는 폭은 좁아지지만, 만족도가 높은 곳에 가게 된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Q6. (지도교수님) (다른 조) 곧 군대를 갔다 와서 한 학기가 남으면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요?

A6. (지도교수님) 빨리 졸업할 것 아니면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 거
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문 하사 같은 걸 진행해서 돈을
더 벌어 나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활동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교수 박성우 교수님



멘토 이성근

4. 우리가 희망한 활동

- 일 자 : 2020. 2학기 전반
- 장 소 : 온라인 ZOOM, 카카오톡
- 활동내용 : 코로나를 이겨낸 ZOOM을 통한 스터디, 공지사항, 고민 해결 활동
멘토와 멘티가 서로 줌을 쳐놓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2학기 전반적으로 개인톡, 단체톡등을 이용하여 학습 멘토링도 겸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공지사항, 고민사항 등을 다방면으로 멘티들을 관리하였습니다.



[멘티들에게 학습 멘토링]

- 일 자 : 2020. 10~11월
- 장 소 : 온, 오프라인
- 활동내용 :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후리스 선물
날씨가 쌀쌀해지는 기간, 학교 항우기 학생회에서 진행하는 교내 후리스를 선물하였습니다. 멘티들에게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으로 학교에 대한 추억을 쌓게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적어 후리스를 선물해주면 추억에 남을 것이라 생각하여 후리스를 선물해주었습니다.



[항우기 후리스]

- 일 자 : 2020. 11. 19
- 장 소 : 본교 근처 화전동 인근
- 활동내용 : 단합 저녁 식사 및 회식

강제적으로 오프라인 회식이 어려웠지만, 잠시 코로나가 잠잠해진 시기에 서로 처음 보지만 저녁식사도 하고 회식도 진행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 고민이 있는 부분들을 대화하며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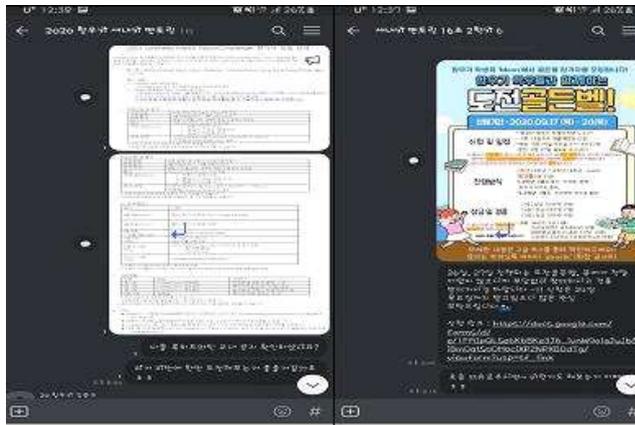
화전동 인근 쭈꾸미 삼겹살



멘티와 멘토

- 일 자 : 2020. 11~12월
- 장 소 : 한국항공대학교
- 활동내용 : 멘티의 대외활동 참여 추천

멘티들에게 공지사항 등을 올라오는 대로 전달해주었습니다. 또한, 록히드마틴, 보잉대회 등을 함께 접수신청을 진행하였고, 접수에 성공한 멘티는 2학기 보잉대회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보잉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멘티는 4등에 입상할 수 있었습니다.



[교내 활동 및 대외활동 공지]



[보잉대회 멘티의 팀원들]

- 일 자 : 2021.01. 27
- 장 소 : 개별 집
- 활동내용 : 치킨 먹방 챌린지 및 필요물품 선물

원래 마지막은 회식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지속되어 진행 불가 판단을 내려 남은 활동비로 치킨 먹방 챌린지를 진행하였습니다. 멘토링 진행 인원 멘토 1, 멘티 5 중 길유창 멘티는 학습에 필요한 버니어 캘리퍼스를 구매 원하여 버니어 캘리퍼스를 구매하였고, 이외 모든 사람은 치킨을 먹고 싶어하여 치킨 기프트콘을 받아 가족들과 함께 스트레스 푸는 시간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서로 같이 회식을 진행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였으면 좋았겠지만, 같은날 강요적으로 치킨을 먹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게 판단되어 서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이후 카카오톡을 통해 후기를 들었습니다.



[활동사진 설명]



[활동사진 설명]

5. 멘토링 참여소감

- 이성근 멘토 : 코로나로 인해 많이 챙겨줄 수 없었지만, 활동을 할 때마다 참여해주고 노력해줘서 고마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이 끝이 아니라 멘티들이 졸업할 때 까지 멘토로서 도움을 줄 생각을 하고 있고, 좋은 친구를 만든 것 같아 좋습니다.
- 강준구 멘티 : 학교수업이나 여러 방면으로 엄청 도움이 되었어요. 항상 신경써주고 저희가 자주 못 만나더라도 공부하셨던 자료 보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 길유창 멘티 : 하이브리드 로켓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 자세하게 가르쳐주시고 논문도 많이 찾아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실용적인 선물도 주셔서 공부의욕이 많이 생겼어요. 항상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다현 멘티 : 비대면밖에 불가능한 상황에서 많이 신경써주시는 것을 느끼고 늘 감사했어요. 마지막까지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민석 멘티 :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거 느끼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나중에 북한산 점령하러 갑시다. 형!
- 김민준 멘티 : 1년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났는데도 항상 물어보면 친절하게 자세히 알려주시고 도움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올해는 코로나 잠잠해지고 학교 가면 꼭 만나서 멘티애들이랑 같이 술마셔요! 1년동안 형도 너무 고생많으셨어요!

6. 3중멘토 개인별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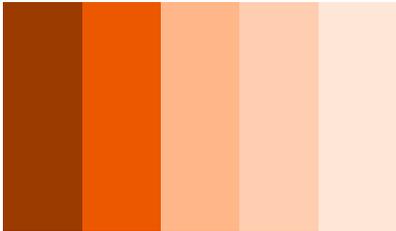
- 이성근 멘토 : 취업할 시기에 멘토님들을 만나 목표를 잡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멘티들에게도 제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선배 멘토님께서 설명해주셔서 더 좋았습니다.
- 강준구 멘티 : 학업적인 부분 뿐만아니라 진로적인 방향을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 길유창 멘티 : 1년동안 대학생활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선배님께서 1, 2학년때 진행했던 활동들을 들으며 오프라인에 대한 꿈을 키웠고, 어떤 것을 해야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 김다현 멘티 : 전공을 들어가기전 전반적인 학과의 흐름을 배우고 이 흐름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배웠습니다.

김민석 멘티 : 선배들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3중 멘토링을 통해 우리 멘토님보다 더 선배님의 대학생활, 취업생활을 듣고 선배들과의 소통, 교류를 배웠습니다.

김민준 멘티 : 우주공학과 기계공학과 시스템공학과 중 시스템공학에 관심있고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대한항공 멘토님을 만나 시스템공학으로 진로를 확실하게 잡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7. 멘토활동 포스터





항공전자정보공학부

1. 멘솔 - 장선영멘토
2. WIN(G)WIN(G) - 김예린멘토
3. 가가가고 야가야다 - 김주영멘토
4. 조합상타치 - 신지원멘토
5. 항드림즈 - 석지혜멘토
6. ten little B-boys - 김유진멘토

멘솔 - 항공전자정보공학부

멘솔은 ‘멘토 멘티가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라는 의미로, 멘토, 멘티가 서로의 소리에 더욱 집중해 줌을 위한 팀명이다.

1. 멘토링개요

가. 활동목적

- (1) 새내기들이 학교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제공과 고민상담소가 되어준다.
- (2) 친구 같은 선배, 편한 선배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나. 멘토 및 멘티

- (1) 멘토 : 장선영
- (2) 멘티 : 고주미, 김성빈, 김지영, 김홍주, 민경남, 박승우, 박창인, 송준원

다. 멘토링 활동

- (1) 활동횟수 : 총 9회
- (2) 멘토활동 상세일지

일자	시간	장소	활동내용
2020.09.23	19:00~20:00	온라인 미팅 zoom	2학기 활동의 의지를 다지며, 내가 2년동안 얻었던 정보들을 멘티들에게 공유한다.
2020.10.13- 2020.12.11		온라인 진행	멘티들이 더욱 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라인 마니또 제도를 시행했다.
2020.10.22	19:00~20:00	zoom	친구들이 화이트보드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이 무엇인지 넌센스로 맞추는 게임을 진행하였다.
2020.10.19	15:00~16:00	zoom	항공청에 취직중인 선배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양한 진로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2020.10.30	14:00~15:00	teams	지도교수님과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2020.11.05	19:00~20:00	zoom	온라인으로 화상기능을 켜 채 마피아를 진행하여 친구들의 유대감을 높이

			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020.11.09	18:00~22:00	홍대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진 틈을 이용하여, 지방에서 올라올 수 있는 친구들, 또 서울에 사는 친구들이 모여 단합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0.11.12	19:00~20:00	zoom	중간고사의 기간, 친구들이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풀 수 있도록 근황을 묻는 시간을 가졌다.
2020.12.03	18:00~19:00	zoom	외부 전문가 멘토님과의 멘토링을 진행하였다.

2. 외부전문가 멘토링 활동

가. 간담회일시 : 2020.12.03.

나. 외부전문가멘토 소개

전문가 멘토 졸업 전공	항공전자정보공학부
전문가 멘토 소개	전문연구요원으로 재직중인 ‘김민우’ 멘토님
일 하시는 곳	텔레칩스
하시는 일	컴퓨터, 휴대폰 등에 내장되는 다양한 칩설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 활동내용

(1) 질의응답내용

Q. 칩이란 무엇인가요?

A. 칩이란 많은 기능을 하는 것을 농축하여 하나의 작은 형태로 함축시키는 것이다. 내부의 logic이 입,출력되며 동작한다.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칩으로 설계하면, 부피와 면적을 줄이게 되어 그 기기 자체의 마진을 높이게 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더욱 마진을 높이기 위해 칩 연구를 지속적으로 연구중이다.

여기서 칩의 종류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1) 휴대폰에 내장된 칩(AP) : 스냅드래곤

(2) 컴퓨터에 내장된 칩 : 인텔 AMD

Q. 칩은 어떻게 만드나요?

A. 동작구현(베릴로그와 같은 HDL언어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구현) → 시물

레이션 → 소프트웨어(모델심)로 시뮬레이션 혹은 FPGA보드에 시뮬레이션 → 파운드리 업체에 문의 → 칩으로 만들어줌

Q. 하드웨어 vs 소프트웨어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

A. 반도체의 산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산업 모두 나라에서 지원이 많고 규모가 큰 사업들이라 전망이 좋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욱 이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컴퓨터를 잘 다루는 기술이 보다 더 중요해질 것이다.

Q. 대학원 진학에 대한 의견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A. 학부생을 많은 대기업에서 많이 뽑기는 하지만, 그 내부에서 진로의 방향이 처음 입사지원한 부분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 학부생의 지식으로는 모든 회사가 모든 분야에서 능력이 동일할 것이라는 가정을 두고 있으므로 지원분야가 아닌 분야에서도 일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고 싶고, 자신이 보다 원하는 분야에서 직장을 갖고 싶으면 대학원 진학이 더 유리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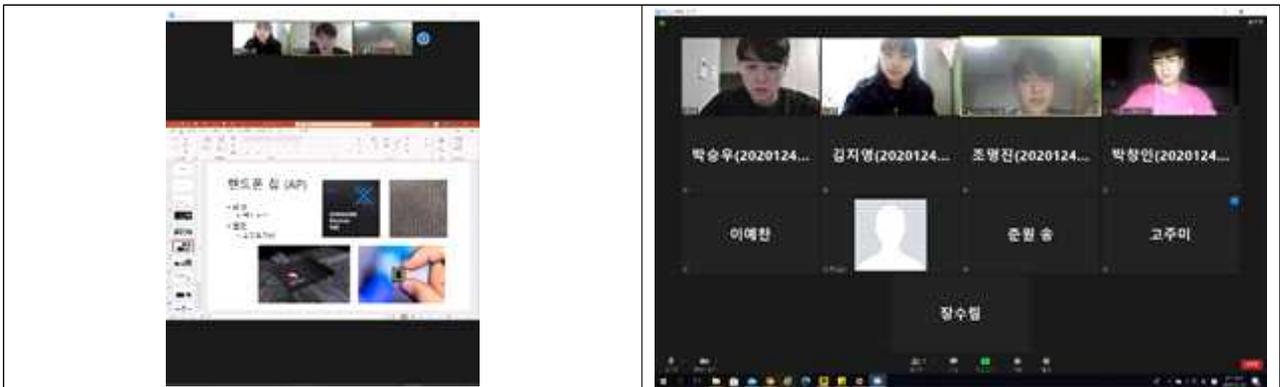
박사까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석사까지는 추천하는 바이다.

Q. 대체 복무제도가 무엇인가요?

A. 학사 후 중소기업에서 3년간 근무 혹은 박사 후 시험을 치름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대신하는 것이다. 대학원 진학에 뜻이 있는 경우 많이 선택하는 추세이다. 다양한 대체 복무제도가 있으므로 인터넷에 따로 찾아보기를 권한다.

(2) 외부전문가멘토 조언

소프트웨어는 한 명의 천재가 있을 확률이 많다. 전자과에는 취업의 방향이 무궁하게 많은데, 자신의 가치를 빨리 올리는 일은 자신에게 더 잘 맞고 유리한 길을 찾는 것이다.



3. 지도교수 멘토링 활동

- 가. 간담회일시 : 2020.10.30.
- 나. 교수님소개

지도교수님 전공	항공전자정보공학부
지도교수님 소개	김태환 교수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과제	다중 모드 스마트 레이다용 지능형 반도체 개발 기초 연구

다. 활동내용

(1) 질의응답내용

- Q. 전자과를 졸업하고나서의 진로의 선택, 취업 정보에 관해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 A. 취업할 수 있는 분야는 크게 사기업과 공기업으로 나뉜다.
대표적으로 사기업에는 네이버, sk하이닉스, kt, 삼성, nc, 소프트웨어(전자) 등이 있고, 공기업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우주연구소(KAI)(항공) 분야가 존재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많으니 자신의 진로에 맞게 찾아보길 추천한다.
- Q. 지금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자격증 정보에 관해서도 궁금합니다.
- A. 보통 학생들이 많이 준비하는 자격증에는 기사자격증, 토익 등이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3-2나 4-1에 기사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다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사기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늘어 기사자격증 준비비율이 낮은 편이다.
최근의 트렌드로는 사기업 준비시 기사자격증의 유무보다 토익점수와 같은 영어 점수가 더욱 강조되는 현실이다.
하지만, 지금도 공기업을 희망한다면, 자격증은 여전히 중요하다.
- Q. 과의 특성을 살려서 창업을 한다면 무슨 분야로 많이 창업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A. 반도체 부품, 소프트웨어 개발로 창업 등 전자과에서 진출할 수 있는 분

야가 다양함. 자기가 하고 싶은분야를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그 분야로 가면 된다.

Q. 지거국(지방거점국립대학교)와의 패널티가 대두되고 있는데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A. 공기업 같은 경우는 대학의 네임을 잘 보지 않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다. 공통분모로 중요한 것은 학교성적(학점)이므로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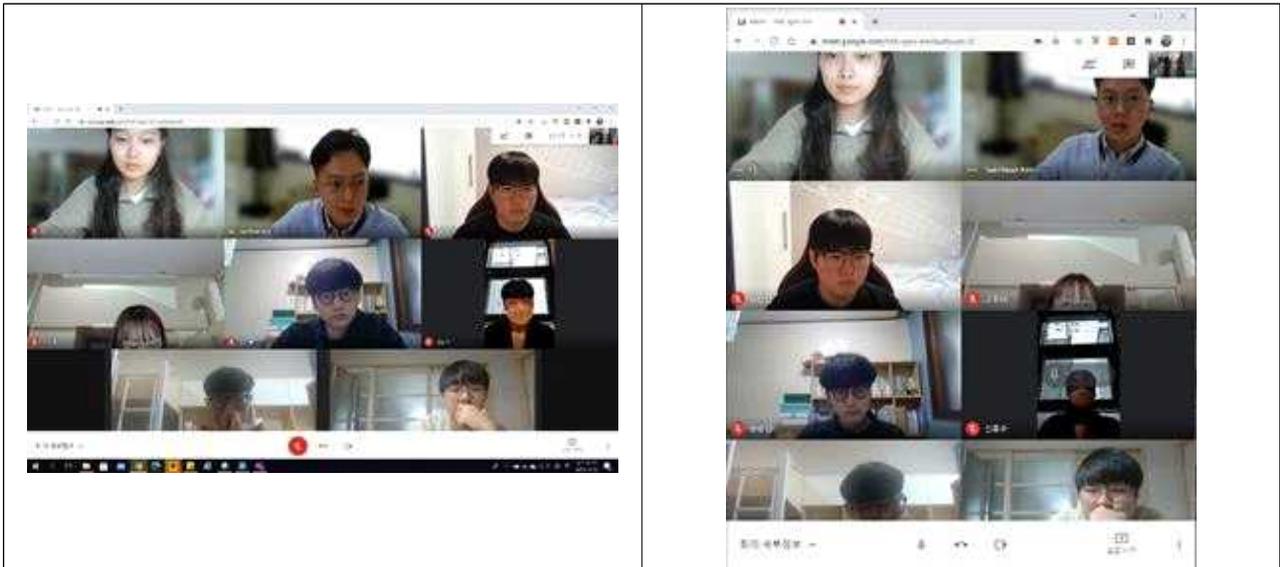
Q.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A. 공기업: 서비스위주

사기업: 집단들의 이익 중시 -> 급여높다. (But, 업무강도가 세고, 경쟁이 치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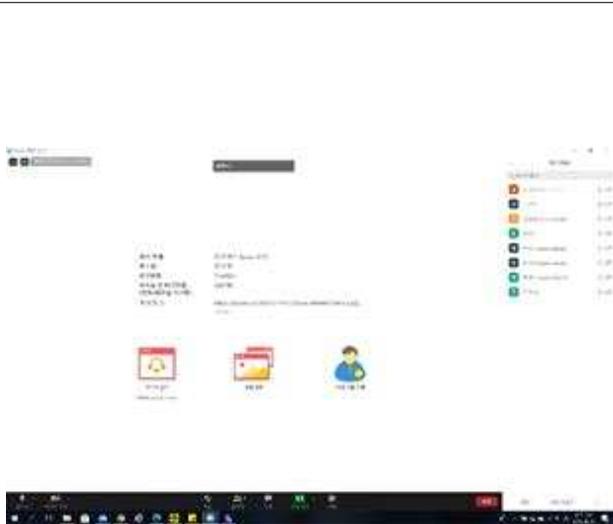
(2) 지도교수조언

대학교에서 병역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음. 그냥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아닌 대체 복무제도 등의 유익한 정보들이 많음. 1학년때부터 찾아보길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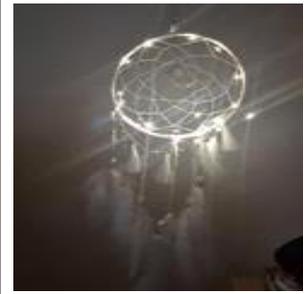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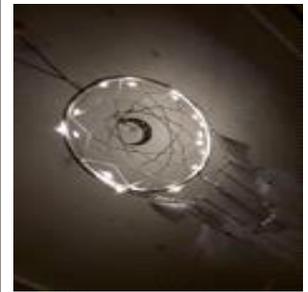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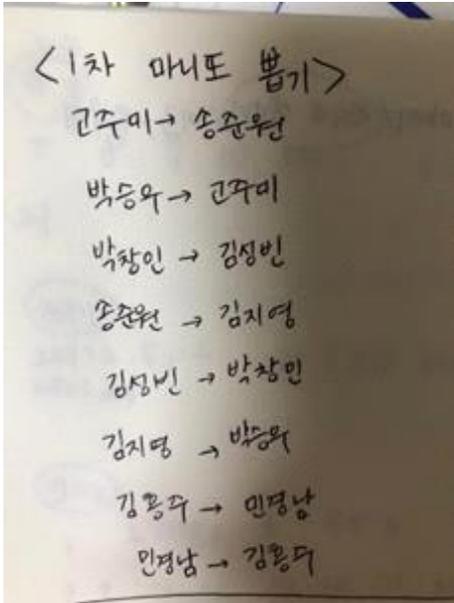
4. 우리가 희망한 활동

- 일 자 : 2020.09.23.(수)
- 장 소 : 온라인 zoom 화상 미팅
- 활동내용 : 멘토인 내가 학교를 다니며, 2년동안 알게 되었던 대내활동 대외활동들에 대하여 알려주었다.
 - ◆ 대내활동 : 멘토-멘티활동, 공모전참가(에어버스, 로키드마틴,,), 교수학습센터 튜터링제도
 - ◆ 대외활동 : 각종 기업체에서 하고 있는 서포터즈 및 대학생 활동(SK SUNNY, 드림클래스) 또한, 사기업과 공기업의 차이점과 각각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 학교의 마일리지 제도가 무엇인지 등을 알려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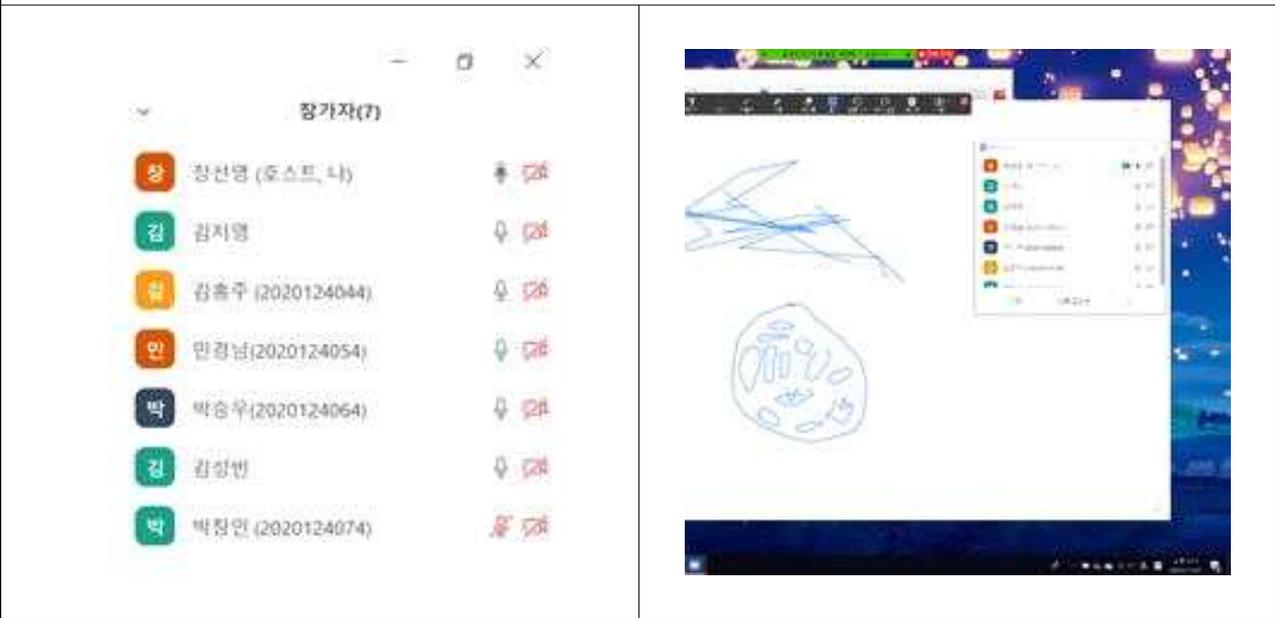
1명(김성빈 멘티)을 제외한 모두가 참가해주었고, 모두가 잘 경청해주었고, 의사소통을 하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더욱 친목과 정보수집에도 의미가 있었던 활동인 것 같다.

- 일 자 : 2020.10.13~2020.12.11
- 장 소 : 온라인(SNS)으로 진행
- 활동내용 : 코로나가 갑자기 활기차게 되며, 모든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이되고, 심지어는 학교를 한 번도 오지 못하고, 친구들과 연락도 할 기회조차 못 가지고 1년이 넘어갈 친구들이 안타까워 고안했다. 서로에 대해 더욱 친밀감을 느끼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
 -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았을 때, 개별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아이들이 반정도가 존재하였다. 원래의 의도가 완벽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새로이 연락을 하고 연락을 하기 시작한 친구들이 생긴 점이 좋았다.



위의 드림캐처는 우리의 멘토-멘티 활동에서 우정을 느끼고 추억을 남길 만한 것을 선물해 주고 싶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 일 자 : 2020.10.22.
- 장 소 : 온라인 zoom 화상 미팅
- 활동내용 : 매주 온라인으로 모임을 갖자고 하기 시작한 첫 주였다. 많은 아이들이 참여를 해주었지만, 격식이 있는 자리라고 여겨 쉽게 말을 못 꺼내는 친구들이 있어, 개별적으로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진행하였다. 아무래도 1학기 때 활동한 친구들 끼리는 보다 편하게, 뒤늦게 참가한 친구들은 보다 불편하게 시작이 되었지만, 마지막에는 모두가 재미있게 놀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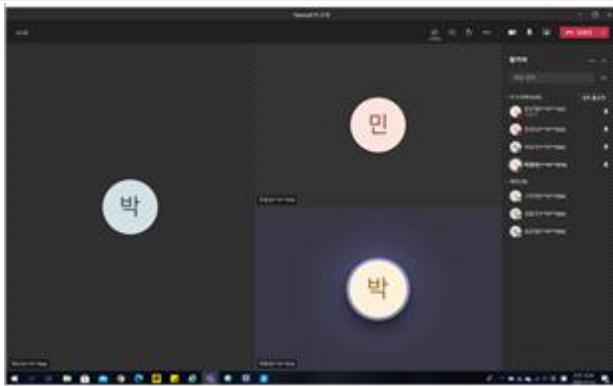
화이트 보드를 공유하여 친구들과 그림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맞추는 게임을 진행하였다. 우승 상품으로는 커피 기프티콘을 걸어 재미를 더했다.

- 일 자 : 2020.11.05
- 장 소 : 온라인 zoom 화상 미팅
- 활동내용 : 아이들이 모두 화면을 켜서 온라인으로 마피아를 진행하였다.



아이들도 멘토인 나도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마피아를 진행하는 것이라 진행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많았지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진행 했던 것 같다. (사다리 타기로 직업, 역할을 뽑은 후 개별 카톡으로 마피아, 경찰, 의사와 소통 진행)

- 일 자 : 2020.11.12.
- 장 소 : 온라인 zoom 화상 미팅
- 활동내용 : 아무래도 멘티들이 시험기간이라 또 게임을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 이야기를 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현재 멘티들이 공부를 하면서 학업에서 어려운 점이 뭔지 등을 이야기 하고 또 멘티들 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매주 혹은 격주로 온라인으로 미팅을 진행하며 -> 아이들과 수다를 떨기도 하고 게임을 하기도 하며 친밀감을 높였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아이들과 내적 친분이 생겨서 좋은 시간이었다.

매주 혹은 격주로 온라인으로 미팅을 진행하며 -> 아이들과 수다를 떨기도 하고 게임을 하기도 하며 친밀감을 높였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아이들과 내적 친분이 생겨서 좋은 시간이었다.

- 일 자 : 2020.11.09
- 장 소 : 상수역 근처의 음식점
- 활동내용 : 서울에 있는 새내기 그리고 지방에 사는 새내기를 모두 포함하여 진행한 모임이다. 1학기에 활동하던 친구들 뿐만 아니라 새로이 나온 친구들도 2명이 있어 다른 친구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 기회였다.



2학기에 멘티들과 공식적으로 모인 것이 처음이었다. 새로 보는 친구들, 원래 알던 친구들이 모두 모여 친하게 노는 모습을보니 뿌듯하였고, 코로나로 인하여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하지 못한 점이 안타까웠다.

- 일 자 : 2020.12.25
- 장 소 : 온라인 zoom 미팅 + SNS
- 활동내용 : 1년을 마무리 하는 활동으로 크리스마스날 선물을 지급하는 것을 계획하였다. 사전에 미리 투표를 하고 아이들과 1년동안 활동을 하며, 서로 마무리 하는 소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내기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케이크’를 선물하고 서로가 1년을 마무리 하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다.

5. 멘토링 참여소감

- 장선영 멘토 : 이번 학기는 또 저번학기와는 다른 새로운 친구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1년간 처음 생긴 동생이라 걱정이 많았지만, 멘티들이 잘 따라와주고 큰 반응을 해주어서 더 기분 좋게 활동을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맨 처음 목표했던 친구 같은 선배가 되어 주는 것이 조금은 성공한 듯하여 뿌듯하고, 앞으로도 멘티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길을 잘 찾았으면 좋겠다.
- 고주미 멘티 : 담당 교수님과의 상담, 전문가 멘토 간담회를 통해 학과, 진로 관련 궁금했던 점들을 직접 질문하고 그에 대한 자세한 대답을 얻을 수 있어 유익했다. 그 외에도 가장 가깝고 빠른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멘토가 있어 질문이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좋았다.
- 김성빈 멘티 : 멘토님께서 친구처럼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자주 가지는 못했지만 대학교 생활에 대해 더더욱 알 수 있었던 활동이었다.
- 김지영 멘티 : 신입생이여서 학교와 공부에 대해 모르는게 많았는데 멘토 선배님이 친절하게 궁금한 점을 알려주셔서 혼란스러웠지만 그래도 일년을 잘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홍주 멘티 : 2학기엔 많이 참여는 못했지만 1, 2학기 통틀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대학교 막 입학한 저희를 학교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해주신 멘토 선배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한다.
- 박승우 멘티 : 멘토멘티활동을 통해 많은걸 얻었던 것 같다. 1학기때 친구가 없을때 활동을 통해 많은 친구, 선배들과 만날 수 있었고, 친구때문에 고민이 있었던 2학기때는 멘토 선배와 얘기하며 잘 풀었던 것 같다. 멘토멘티라는 활동이 없었다면 학교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였을걸 생각하니 열심히 참여하길 잘한것 같다.
- 민경남 멘티 : 다양한 활동하면서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배님을 알수있게 되어 좋았다.
- 송준원 멘티 : 멘토&멘티 활동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선후배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어 선배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며 대학교 생활에 관한 조언들도 얻을 수 있었다. 멘토님 뿐만 아니라 멘티들과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대학 생활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고민들에 도움이 되었다. 학교에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 걱정하고 있던 순간에 멘토 멘티 프로그램은 저

에게 혼자가 아니라 큰 안정감을 주었다.

박창인 멘티 : 아무것도 기대한대로 되지 않는 대학생활 중 가장 재미있고 도움되는 활동이었다. 학교 행사, 정보를 자주자주 알려주는 멘토, 모르는 것을 물어봤을 때 성실하게 답해주는 멘토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됐고, 또한 같은 조원 친구들과끼리 많은 친밀감을 쌓을 수 있게 해주어서 너무 감사했고. 편하게 대해준 같은 조원들에게도 너무나 감사했다.

6. 3중멘토 개인별 성과

멘토 장선영 - 활동의 방향을 아이들이 개별로 알려주기도 하였고, 의견을 많이 내주어서 나와 다른 새로운 의견을 많이 듣기도 하여 좋았다. 또한, 교수님과의 상담, 전문가 멘토님과의 상담에서는 나 또한 궁금한 부분을 물어봐주기도 하여 여러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좋았던 것 같다.

멘티 고주미 - 아직 1학년이라 다양한 전공 과목들을 경험하지 않아서 내 적성에 맞는 분야가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하드웨어쪽 분야에 관심이 가지고 있으며 전자 및 항공전자공학으로 전공을 선택할 계획이다.

멘티 김성빈 -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다.

멘티 김지영 - 아직 기본실력이 부족한 과목이 보이기 때문에 추가 공부를 개인적으로 더 할 예정이다.

멘티 김홍주 - 일단 담당 교수님과의 상담을 통해 대학교에선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누구도 날 지도해주지 않는다해서 마음대로 학교를 다니면 안되는것을 알게되었고 진로는 아직 더 알아보기로 하고 한동안은 학교 성적에 특히 전공점수에 집중해야겠다고 목표를 정했다.

멘티 박승우 - 지금 당장 생각한 뚜렷한 진로는 없지만 멘토멘티에서한 선배님들과 만남을 통해 대기업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멘티 민경남 - 좋은 학점받아서 엔지니어가 되는것이다.

멘티 송준원 -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여하게 된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서 전문연구요원이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다. 사회복지요원으로 2년을 보내는 것 보다는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전문연구요원이 저에게 더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학사 과정이후 전문연구요원이라는 진로목표를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정할 수 있었다.

멘티 박창인 - 전자 관련 자격증 취득 후 취업목표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목표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7. 멘토활동 포스터

멘토-멘티 서로가 서로의 소리에 귀기울이겠다

멘토링

멘토: 장선영
멘티: 고주미, 김성빈, 김지영, 김홍주,
민경남, 박승우, 박창인, 송준원

2학기 우리의 활동들 활동기간 2020.09~2020.01

1. 전문가 멘토 및 지도교수님과의 멘토링
2. 격주 줌을 통한 온라인 만남!
3. 온라인 마니또 제도-서로의 연라 축구 및 드림캐처 선물로 친목도모
4. 학교 근처에서 식사 및 플라로이드 추억 남기기

NEXT >

WIN(G)WIN(G) - 항공전자정보공학부

비행할 때 나는 소리인 웅웅과 이긴다의 뜻을 합한 WIN(G)-WIN(G)입니다

1. 멘토링개요

가. 활동목적

- (1) 코로나의 위험이 있으므로 비대면 활동을 다양하게 준비하자
- (2) 친목은 모든 활동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계획하자.

나. 멘토 및 멘티

- (1) 멘토 : 김예린
- (2) 멘티 : 이윤한,조선민,한유림,최영민,이창협,황지환,장현우,양승헌

다. 멘토링 활동

- (1) 활동횟수 :5 회
- (2) 멘토활동 상세일지

일자	시간	장소	활동내용
2020.11.06	오후 9시	온라인 줌	멘토와 멘티가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언택트로 활동함.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 또한 ‘나를 맞춰봐’ 퀴즈활동을 진행함. 멘티들이 각자 본인에 관련된 문제를 2개씩 출제하고 멘토가 그 질문들을 추합하여 실시간 온라인 퀴즈로 진행함. 점수가 바로 공개되면서 서로의 순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고, 순위에 따라 기프티콘을 증정하여 참여도를 높였음.
2020.11.20	오후 6시	고양 일산 장소대여	외부인들과의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개별 장소를 대여하여 함께 음식도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냄 개개인의 고민들도 들어주며 친목의 시간을 제대로 다질 수 있었음.
2020.11.23		온라인 메신저 활용	기존 계획했던 것은 유기견들을 위한 기부팔찌를 구매하려고 했으나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께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이 의미있을 것 같아서 의료진 배지를 구매함. 또한 현재 사회문제로 떠올랐던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반대하기 위해 소녀상 배지를 함께 구매하고 개별로 청원을 진행하였음. 현재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가방에 배지를 부착하여 의료진과 위안부 문제 모두 잊지 않고 기억하고자 함.
2020.11.30		온라인 메신저 활용	새내기들의 마지막 시험 2학기 기말고사를 응원하기 위해서 기프티콘으로 간식을 전달함 개별로 연락하여 필요한 자료를 전달해주고 조언도 해주는 시간을 가짐.
2021.1.12	오후 6시	온라인 메신저 활용	친환경 소재인 옥수수 섬유로 만들어진 코니돌이라는 인형을 직접 제작하여 제3세계 아동들에게 전달하는 참여형 봉사를 진행함. 캠페인의 수익은 식량 식수 교육 의료지원으로 사용됨. 코로나를 피해서 집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게 의미 있었음. 참고 URL: 월드쉐어 (worldshare.or.kr)

2. 외부전문가 멘토링 활동

가. 일 시 : 2020.11.11

나. 외부전문가멘토 소개

16학번 이은혜 선배님, 항공대 졸업 후 반도체 펌리스 회사에서 퀄컴 스냅드래곤 AP칩셋 들어가는 모뎀쪽 네트워크 LTE랑 5G 쪽 최적화하는 네트워크 통신 쪽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 활동내용

(1) 질의응답내용

Q1. 세부전공을 선택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하셨나요? 또 결과적으로 그 세부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A1. 어떤 커리큘럼을 짜서 전공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관련된 전공이 많이 있는 학부 쪽으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전자과 안에 통신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부 전공이 다르다고 너무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하나라도 더 배운다고 생각하고 학부 때 배우는 전공들을 너무 구분짓지 말고 골고루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반도체를 판매하는 회사지만 제가 하는 업무는 통신 쪽이기에 반도체 회사를 다니더라도 꼭 반도체를 다루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주세요. 따라서 자신이 어떤 회사의 어떤 부분을 가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생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정보는 현직자를 만나보거나 채용 공고의 직업 기술서를 참고해보세요.

Q2. 현재 반도체 회사 근무중이라고 하셨는데, 네트워크 통신업무 이외에도 다양한 업무가 있을텐데 어떤 업무들이 있을까요?

A2. 삼성전자의 경우로 예를 들어보자면, 네트워크 사업부 이외에 DS(디바이스 솔루션/반도체)와 IM(무선 사업부/핸드폰)이 있습니다. 반도체 제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시스템 반도체)로 종류가 나누어집니다. 현재 한국이 주력으로 밀고 있는 분야는 메모리 반도체(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SK하이닉스)이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 시스템LSI 사업부에서 제작합니다.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시스템LSI와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드폰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칩)를 제작합니다.

또한 파운더리 사업부에서는 프로그램을 짜서 직접 반도체를 만듭니다.

Q3. 네트워크 통신이 주업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배우게 될 과목들 중에서 ‘이 과목이랑 좀 연관이 깊다!’ 하는과목은 뭘까요?

A3. 시노믹 시스템, 확률과 랜덤 변수 과목의 원리를 이해하면 회사 내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반도체공학, 물리전자공학과 같은 반도체 분야의 과목은 파운더리 쪽에 더 연관이 있습니다.)

Q4. 취업하신 회사 내 학/석/박 비율과 학위에 따른 승진에서의 차이가 있나요?

A4.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 다니시면서 석사/박사 하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조금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한 뒤에

전공을 더 공부해야 한 뒤에 실무를 경험할지 취업을 먼저 해야 할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Q5. 스냅드래곤 네트워크 업무면 어떤 공부가 필요하고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임베디드 시스템과 관련된건가요?

A5. 현재 하고 있는 직무는 임베디드 시스템과 약간 거리가 있어서 배운 적은 없지만 임베디드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학교 홈페이지에서 관련 교수님께 이메일로 질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Q6. 많은 회사들 중에 그 회사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A6. 일단 저는 여러 분야의 회사에 모두 지원해보았고 결국에는 그 중에서 저를 채용한 회사가 저의 적성이고 전공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을 잘 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각자에게 맞는 회사가 있는 것 같아요.

Q7. 취업할 때 도움이 되었던 학교 활동이 있었을까요? 학교 프로그램 중 추천하는 것 있을까요?

A7. 저희 학교 우주박물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해 있는 취업전략센터에서 근로학생을 하면서 취업전략센터의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외부 프로그램을 듣는 수고 없이 저희 학교의 취업전략센터 프로그램을 잘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Q8. 새내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

A8. 놀 때 어영부영 놀지 말고 제대로 놀아야 다른 일을 할 때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는 것도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Q9. 취업 준비하실 때 네트워크 관련해서 미리 준비를 하신 건가요?

A9. 원래 네트워크 쪽으로 취업하려는 생각은 없었지만 취업을 위해 들었던 전공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직무는 다 지원했습니다. 관련된 전공을 바탕으로 자소서를 썼고 합격했던 것 같아요.

더 알고 싶다면 학부연구생을 지원해서 교수님과 높은 수준의 프로젝트를 경험해 보는 것도 학부생으로서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Q10. 학부 때 배우는 파이썬이나 C언어만으로도 취업을 준비하기에 충분한가요? 아니면 추가로 더 배워야할까요?

A10.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내주시는 과제만 제대로 할 줄 알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추가로 배우자면 학부연구생으로 교수님께서 주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코딩실력을 늘리거나 친구들과끼리 코딩 공부 동아리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학 때 교수님께서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도 진행하시니 최대한 많이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11. 외국계 기업은 이름조차 알기 쉽지 않은데 관련 정보를 어디서 얻으셨나요?

A11. 외국계 기업 관련해서는 링크드인(<https://www.linkedin.com/>)과 슈퍼루키(<https://www.superookie.com/>) 사이트를 가장 많이 활용했고 일반 회사의 경우에도 자소서닷컴(<https://jaseol.com/>) 에서 날짜별로 올라오는 기업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2) 외부전문가멘토 조언



3. 지도교수 멘토링 활동

가. 일 시 : 2020.10.22(목)_ 오후 5시

나. 지도교수님 소개

이성욱 교수님께서서는 현재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용 센서와 관련하여 레이더를 이용하는 자율주행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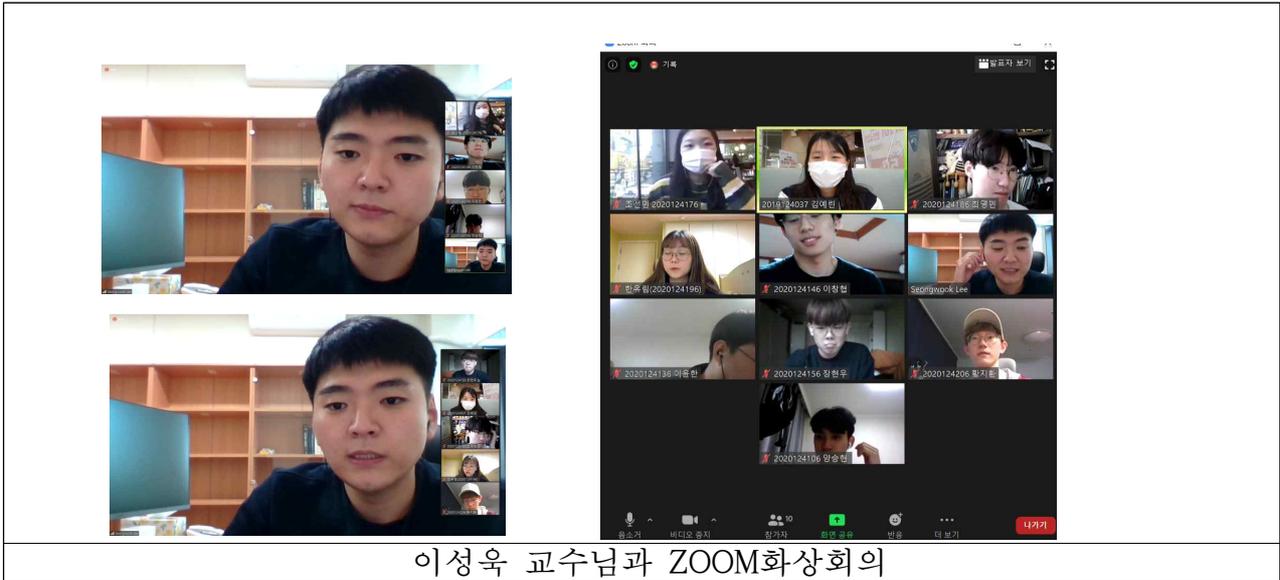
다. 활동내용

(1) 질의응답내용

- Q1. 레이더와 관련하여 사회로 진출 하기 위해서는 석, 박사 학위까지 얻는 게 수월한가요? 학사만으로는 무리가 있을까요??
- A1. 최소한 석사 필요 (항공대는 좀 특수해서), 레이더 공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별로 없어서 사회에 진출하려면 최소한 석사는 필요하고(다른학교는 과목이 석사과정부터 있음), 박사는 선택
- Q2. 학사 수준에서 레이더와 관련해 진출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교과과정이 나 있으면 도움이 되는 강의는 무엇이 있을까요?
- A2. (자율주행센서, 아이폰12에 이용되는 라이더 센서가 요즘은 소형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그런 관련된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 레이더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합쳐진 것이라 (레이더)신호처리, 확률, 전자공학1/2와 같은 과목을 잘하면 좋다.
- Q3. 항전정 학부를 보면 테크 트리 나뉘어 있던데, 항공전자 및 제어쪽이 레이더 관련 테크 트리라 볼 수 있나요?
- A3. 항공전자 및 제어쪽의 통신부분으로 되어있긴 한데, 통신이나 신호시스템등고 레이더를 들어도 상관없다.
- Q4. 안테나 공학과 레이더 공학이 있던데, 안테나와 레이더의 동작원리는 비슷한 거 같은데 이렇게 나뉘어서 배우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A4. 안테나 공학은 하드웨어에 좀 더 치중, 레이더는 안테나로 받은 정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는 공학이다.
- Q5. 만약 레이더와 관련하여 전공을 하게 되면, 어떤 분야로 진출할 수 있으며 딥 러닝과 머신 러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A5. 머신 러닝은 가장 큰 범주(기계학습), 딥러닝은 머신러닝에 속해있는 하나의 테크닉이라고 볼 수 있다.

- Q6. 머신 러닝이나 딥 러닝이라 하면 대체로 인공지능 분야쪽인건가요?
인공지능 관련 분야는 어느 전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나요? 대체로 컴공이나 소프트웨어인가요?
- A6. 컴퓨터공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히려 요즘은 수학과 출신들도 많이 한다. (교수님은 수학과가 가장 밀접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계산이 워낙 복잡하다고...) 전자과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석사/박사는 해야 할 수 있다.
- Q7.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분야로 진출하는 것이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 A7. 잘 모르겠다. (통신시스템, 마이크로파, 반도체, 항공전자시스템, 컴퓨터 뒤시기) 대부분 7-8년 주기로 바뀌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 Q8. 학부생들에게 조언해주실 것이 있나요?
- A8. 여러 전공 한두개정도는 들어봐야 어느쪽에 잘 맞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3-2까지는 다양한 분야의 전공을 접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 Q9. 저는 이제 2학년 2학기가 반정도 남은 시점이고, 요즘은 진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는 중인데, 그러다 보니 학부 연구생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사실 에타 같은 커뮤니티에서는 학부 연구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을 어느 정도 아시는, 혹은 겪어보신 교수님의 조언이 듣고 싶습니다.
- A9. 항공대 학생들이 하는 이유가 취업할 때 자소서엔 한줄이라도 더 적으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인다. 교수님들이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알아보고 (가르치시는 과목과 실제 연구하는게 다름) 교수님께서 쓰셨던 논문 몇 개 읽어보고 참고하기. 교수님 찾아가서 새끼연구 받아서 해보기. 학회 논문이라도 써볼 수 있게 지도를 하고있다. 가르치는 과목으로 판단판단 말 것. 찾아가서 상담 요청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유의미한 결과물을 내려면 열심히 해서 학회논문 한편을 써보겠다는 마인드로 하면 좋겠다.

(2) 지도교수님 조언



이성욱 교수님과 ZOOM화상회의

4. 우리가 희망한 활동

- 일 시 : 2020.11.06. 오후 9시
- 장 소 : 온라인 줌
- 주 제 : 친목도모와 개별 퀴즈 활동
- 내 용 : 멘토와 멘티가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언택트로 활동함.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 또한 ‘나를 맞춰봐’ 퀴즈활동을 진행함.

멘티들이 각자 본인에 관련된 문제를 2개씩 출제하고 멘토가 그 질문들을 추합하여 실시간 온라인 퀴즈로 진행함. 점수가 바로 공개되면서 서로의 순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고, 순위에 따라 기프티콘을 증정하여 참여도를 높였음.

※ 멘티 8명중 8명 모두 참여

※ 멘티들에게 실제로 배포한 첨부 파일 [온라인미팅공지].pdf 파일 참고



[ZOOM 화상회의]

- 일 시 : 2020.11.20. 오후 6시
- 장 소 : 고양 일산 장소대여
- 주 제 : 코로나를 피해 오프라인 만남 진행
- 내 용 : 외부인들과의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개별 장소를 대여하여 함께 음식도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냄 개개인의 고민들도 들어주며 친목의 시간을 제대로 다질 수 있었음.

※ 멘티 8명중 6명 참여 (이윤한, 양승현 멘티는 개인사정으로 불참의사를 전함)



단체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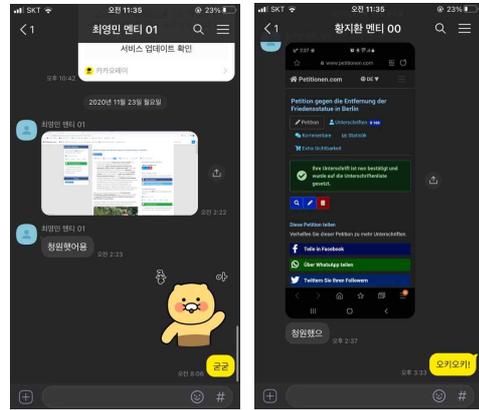
함께 음식한 사진

- 일 시 : 2020.11.23
- 장 소 : 온라인 메신저 활용
- 주 제 :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의료진께 기부가 되는 배지구매
- 내 용 : 기존 계획했던 것은 유기견들을 위한 기부팔찌를 구매하려고 했으나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께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이 의미있을 것 같아서 의료진 배지를 구매함. 또한 현재 사회문제로 떠올랐던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반대하기 위해 소녀상 배지를 함께 구매하고 개별로 청원을 진행하였음. 현재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가방에 배지를 부착하여 의료진과 위안부 문제 모두 잊지 않고 기억하고자 함.

※ 멘티 8명중 8명 모두 참여



구매한 배지들



청원을 인증하는 개별 카톡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반대 함께 해주세요.
이미지 클릭시 청원페이지로 이동합니다.

Am 28.09.2020 wurde die **Friedensstaeue in Berlin-Moabit** vom Koreaerfand errichtet. Wie viele bereits wissen stie die Friedensstaeue gegen sexualisierte Gewalt und Krieg, aber symbolisiert Frieden, Frauen- und Menschenrechte. Insbesondere erinnert die Friedensstaeue an die sogenannten "Trauerfrauen" die waehrend des Zweiten Weltkriegs von japanischen Maechten sexualisiert verkruepelt worden sind und setzt sich gegen eine Wiederholung saecher Verbrechen weltweit ein. Es geht nicht um eine anti-japanische Bewegung sondern um die **Naechste Zusammenhaelnde**. Trotz dieser klaren Absicht hat die japanische Regierung Druck auf das Auswaertige Amt, den Berliner Senat und das Bezirksamt Mitte ausgeuebt, die Staeue zu entfernen. Und leider hat Berlin es hingenommen was mich persoenlich sehr entkraeucht hat. Der Bezirksbuergmeister von Mitte teilte dem Berliner Korea-Verband am 7.10.20, die Friedensstaeue innerhalb einer Woche zu beseitigen.

Wenn Sie auch meiner Meinung sind und auch fuer **Demokratie, Kunstfreiheit und Meinungsfreiheit** einsetzen moechten, foerdere ich Euch auf gegen die **Entfernung der koerzlich errichteten Friedensstaeue in Berlin-Moabit zu unterschreiben**.

Ich moechte klaerstellen, dass ich weder fuer die Organisation Korea Verband noch fuer die sudkoreanische Regierung arbeite. Ich bin einfach eine Staeblerin, die sich besonders fuer das Thema interessiert.



Quelle und fuer mehr Informationen: <https://www.koreaverband.de>

Ah-Hyun Angela Lee Verfasser der Petition kontaktieren

Unterschreiben diese Petition
Mit meiner Unterschrift ermaechtige ich **Ah-Hyun Angela Lee**, meine Unterschrift an Personen weiterzugeben, die hinsichtlich des Sachverhalts die Entscheidungsbefuechtung haben.

Mit Facebook Kontaktieren

ODER

Vorname Nachname
Republik Korea Stadt

Maladresse (freiwillige Information)
Ich unterschreibe, weil... (freiwillige Information)
나는 서명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사항)

Meine Unterschrift oeffentlich anzeigen
Ja Nein 이름을 공개적으로 합니다. 예/아니오

E-Mail senden, wenn es eine Aktualisierung zu dieser Petition gibt
Ja Nein 이 알림에 참여합니다. 알림을 보내줄 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예/아니오

Ich bin mindestens 16 Jahre alt und akzeptiere die Datenschutzhinweise. 1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Ja Nein 예/아니오

Sie werden eine E-Mail mit einem Link zur Bestaetigung Ihrer Unterschrift erhalten. Um sicherzustellen, dass Sie unsere E-Mails erhalten, fuegen Sie bitte ahhy@petitionen.com Ihrem Adressbuch oder Ihrer Liste mit sicheren Adressen hinzu.

Sie beachten Sie, dass Sie Ihre Unterschrift nicht durch eine Antwort auf diese Nachricht bestaetigen koennen.

일본군 '위안부'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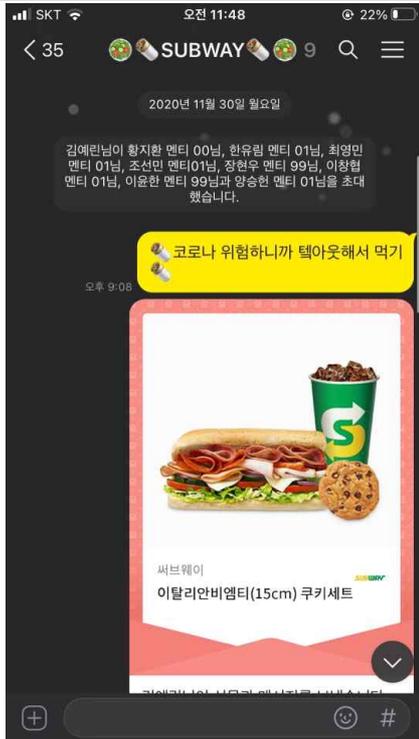
일본 제국주의 정령기에 일본에 의해 군위안소로 끌려가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으로 1930년대부터 1945년 일본의 패망 전까지 강제로 전선으로 끌려가 일본 군인들의 성노예로 인권을 유린당했다.



청원하는 방법/ 위안부 배지에 대하여

- 일 시 : 2020.11.30
- 장 소 : 온라인 메신저 활용
- 주 제 : 시험기간 응원 + 간식 전달
- 내 용 : 새내기들의 마지막 시험 2학기 기말고사를 응원하기 위해서 기프티콘으로 간식을 전달함 개별로 연락하여 필요한 자료를 전달해주고 조언도 해주는 시간을 가짐.

※ 멘티 8명중 8명 모두 참여



간식전달 사진과 /인증 사진

- 일 시 : 2021.1
 - 장 소 : 각자 집에서
 - 주 제 : 언택트 봉사활동 진행
 - 내 용 : 친환경 소재인 옥수수 섬유로 만들어진 코니돌이라는 인형을 직접 제작하여 제3세계 아동들에게 전달하는 참여형 봉사를 진행함. 캠페인의 수익은 식량 식수 교육 의료지원으로 사용됨. 코로나를 피해서 집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게 의미 있었음 (참고 URL: [월드쉐어\(worldshare.or.kr\)](http://worldshare.or.kr))
- *추가로 당시 남은 활동비가 754,50원이었기 때문에 멘티 7명에게 각각 만원씩 지원후 개별로 만원을 더 준비하여 진행하였음.

※ 멘티 8명중 7명 참여 (이윤한 멘티는 입대로 불참의사를 전함)



일시 : 2021.01. 12 / 단체사진 촬영

5. 멘토링 참여소감

- 멘토 김예린- 코로나의 장기화로 1년동안 모든 멤버가 한자리에 만나지 못해서 아쉬웠음. 하지만 준비가 안된 1학기에 비해 2학기에는 비대면 활동을 많이 준비해서 비교적 의미있는 활동을 많이 했다고 생각함.
- 멘티 이윤한 - 코로나19로 정말 무료하고 언어나가는 것이 없는 한 해가 될 뻔했지만 멘토 멘티 활동 덕분에 우리 학교에 대해 혼자서는 얻을 수 없었던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고 지도교수님과 먼저 취업하신 선배님과의 인터뷰 덕분에 제 미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 멘티 조선민- 멘토링을 통해 잃어버린 새내기를 찾은 느낌이었다. 선배, 동기 간의 관계 뿐만 아니라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비대면으로 많은 활동을 기획해주신 덕에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았다.
- 멘티 한유림- 좋은 동기들과 좋은 선배를 알아갈 수 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해보는 대학생활에 있어서 멘토멘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된 멘토 선배가 있어서 든든했고, 좋은 멘티 동기들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 멘티 이창협- 코로나 때문에 1년을 그저 비대면으로 강의만 듣고 공부만 하며 보낼수 있었는데 멘토 멘티 활동을 통해 여러 정보를 얻고, 여러 활동들을 경험할 수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 멘티 황지환- 코로나로 인해 대학 생활 대부분을 비대면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하지만 멘토 멘티 활동을 통해 비록 비대면이라도 대면 같은 활동과 여러 유익한 정보를 얻고 경험할 수 있었다.
- 멘티 장현우- 친구 한명 만들지 못한 채로 끝날 수도 있었던 새내기 생활이었지만 멘토 멘티 활동을 통해 친한 동기와 선배가 생긴것 같아 매우 행복했다. 내가 정말 대학에 와있고 대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실감나게끔 해준 멘토 멘티 활동이었다는 생각을 한다.
- 멘티 양승헌-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채 1년을 낭비할 뻔 했는데, 참여한 활동들을 통해 공부 이외에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었다. 전공 교수님, 졸업한 선배님들의 조언이 특히 유용했다.
- 멘티 최영민-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대학생활을 1년간 비대면으로 보냈다. 멘토멘티 프로그램은 이런 상황 속에서 비대면 수업을 하며 좀 더 알찬 새내기 생활을 하도록 많은 도움을 준 활동이었던 것 같다. 멘토님께서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 이런 경험을 하게 해준 멘토님께 가장 감사한 것 같다.

6. 3중멘토 개인별 성과

- 멘티 이윤한 - 1학기에 이은 이성욱 지도교수님과의 2번째 면담을 통해 전공으로 아직 접해보지 못한 레이더공학이라는 분야에 대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자세하게 알 수 있었고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시는 선배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외국계 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학부생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취업준비생 때는 어떤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는지에 대하여 많은 팁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어디를 가고 싶다는 목표는 못 정했지만, 그 동안 아예 생각조차 못했던 외국계 기업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으니 꼭 국내 기업만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을 목표로 하여 시야를 더 넓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추가로 개인적으로 C언어가 어려워져 제 적성은 그 분야가 아닌 것 같다 생각했었지만 코딩은 어디에서나 쓰이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더 제대로 공부한 다음에 하고 싶은 업무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 멘티 조선민- 여러 인터뷰를 통해 아직 관심 없었던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멘토링에서 형성된 관계를 바탕으로 함께 공모전도 준비함으로써 유익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
- 멘티 한유림- 멘토링 팀에서 추진한 인터뷰를 통해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있을지 막연한 상상에서 더 구체적인 플랜을 세워볼 수 있었다. 나같은 경우 이미 취업한 선배님과의 인터뷰가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다.
- 멘티 이창협-두 번의 인터뷰를 통해 나중에 경험할 전공이나 특히 취업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도 알고 고민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봉사 활동을 하며 재미와 함께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 멘티 황지환- 교수님과의 인터뷰와 멘토님의 조언을 통해 AD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고, 드론의 통신 방법, 균형을 잡는 알고리즘 등을 배우며 드론에 흥미가 생기게 되었다. 또한, 흥미에 그치지 않고 ROV를 주제로 한 동아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 멘티 장현우- 막연한 생각으로 오게된 항전정에 대한 정보를 교수님과 졸업생 인터뷰를 통해 얻어갈 수 있었고 함께한 봉사 활동들이 그저 재미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 보람찬 활동들로 구성되어있었다는 점에서 좋은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학교로 부터 얻어갈 수 있는 최대치를 멘토 멘티 활동을 통해 얻어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 멘티 양승헌- 세부전공을 잘 이해할 수 있었고, 대학 일자리센터에서 취업에 대한 다

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성공적인 경험담을 통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 공부라는 것을 상기할 수 있었다.

멘티 최영민- 두 번의 선배님과 교수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막막하기만 했던 대학생활에 도움이 됐다. 평소에 궁금했던 점들이나 앞으로 내가 어떤 길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들을 듣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유익했고 기억에 남는다.

가가가고 야가야다 - 항공전자정보공학부

우리는 모두 같은 고민과 같은 것을 바라는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다.

1. 멘토링개요

가. 활동목적

- (1)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여 진로적, 학습적 원인의 결과를 얻기
- (2) 대학에서 만나는 첫 멘토링으로서 서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나. 멘토 및 멘티

- (1) 멘토 : 김주영
- (2) 멘티 : 강태원, 김경민, 김민환, 김지상, 김하웅, 서보경, 송재근, 박소운, 박정현, 맹유나

다. 멘토링 활동

- (1) 활동횟수 :5 회
- (2) 멘토활동 상세일지

일자	시간	장소	활동내용
2020.09.07	15:00 ~ 16:00	Teams 화상회의	멘토-멘티가 모여 2학기 멘토링활동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짐.
2020.10.30	11:00 ~ 14:00	대학 일자리센터	대학 일자리센터를 방문하여 센터의 목적과 프로그램을 알고 본인이 장차 얻을 수 있는 진로, 취업, 멘토 정보를 엿볼 기회를 가짐.
2021.01.08	18:00~19:00	본인 집	본인이 원하는 책을 구매하여 자기계발을 한다.

2. 외부전문가 멘토링 활동

가. 일 시 : 2020.11.30

나. 외부전문가멘토 소개

- △ 전문가 멘토 전공 : 항공전자 및 제어시스템
- △ 전문가 멘토 소개 :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근무 중. 남태형

다. 활동내용

(1) 질의내용

김경민 : 보안기술과 관련된 회사면,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실 때에 어떤 내

용을넣으셨나요?

김민환 : 항공 쪽 대학을 나와서 일반 취직을 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그걸 위한 노력은 무엇인가요?

박정현 : 학부 과정에서 배운 전공이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응용되는지?

박소윤 : 학교 교과과정에서 배웠던 과목 중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던 과목과 그 이유는?

서보경 :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교내, 교외 활동은?

맹유나 : 전공을 통해 배운 것 중 회사생활에 가장 도움이 되는 과목은?

김지상 : 1) 학교 입학 전에 공대에 흥미가 있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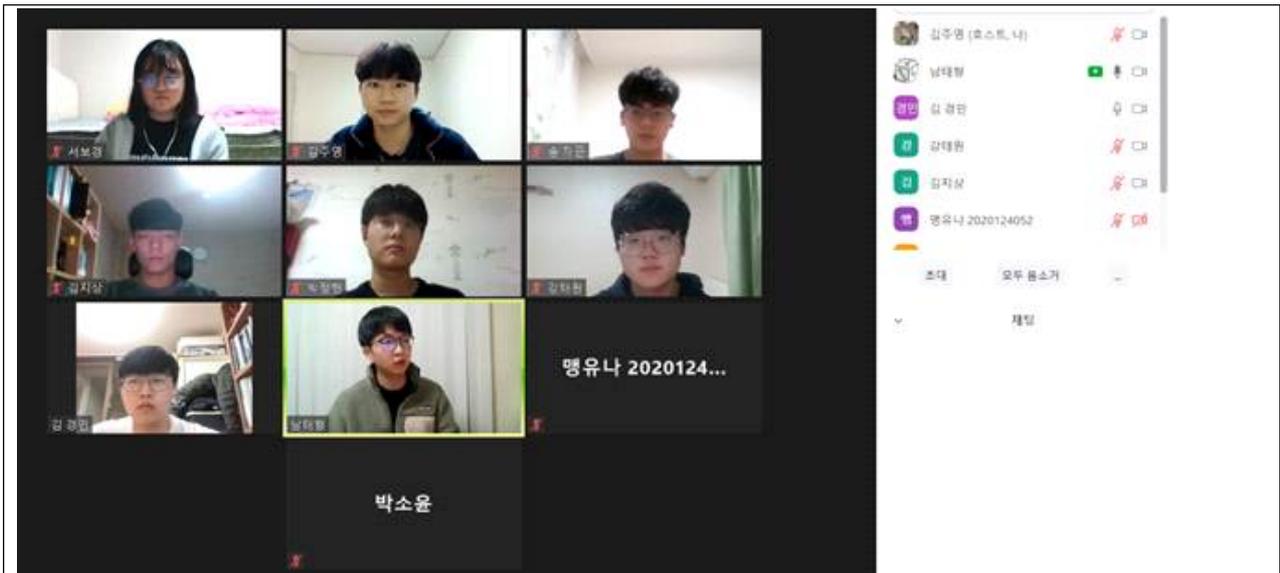
2) 학교 공부가 적성에 맞았는지

3) 공학에 큰 열정이 없어도 취업 선택의 폭이 넓다는 이유로 공대를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송재근 : 항공전자 및 제어시스템을 전공하기 위해서 어떤 과목들을 중점적으로 학습해야 할까요?

강태원 : 항공전자 및 제어시스템 쪽으로 취업은 어떤지, 대학원에 가야 하는 분야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외부전문가멘토 조언



Teams 화상회의를 통해서 전문가멘토-멘티 멘토링을 하여 학과 졸업생 현직자와의 이야기를 나눠 보는 시간을 가졌다.

3. 지도교수 멘토링 활동

가. 일 시 : 2020.10.26

나. 지도교수님 소개

△ 지도 교수 전공 : 항공전자정보공학부

△ 지도 교수 소개 : 한정희 교수님

다. 활동내용

(1) 질의내용

김민환 : 2학년부터 전공을 결정하게 되는데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쪽은?

김지상 : 전공 선택을 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박정현 : 2학년 들어가기 전 방학 동안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박소윤 : 취업할 때 도움이 되는 대외활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김하웅 : 코로나 시국에 어떤 식으로 학교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는지

김경민 : 전공이 어떻게 세분화돼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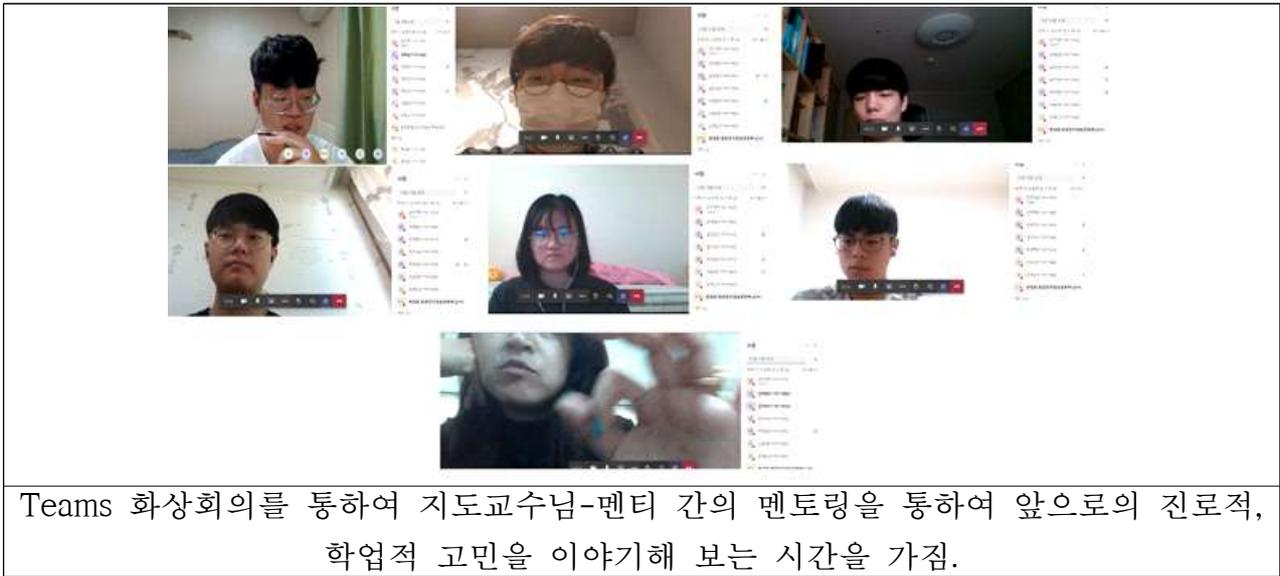
맹유나 : 항전정이 입사할 때에 메리트로 가질 수 있는 부분과 그 부분을 향상하기 위해 해야 할 점은?

강태원 : 제어 쪽으로 진로를 잡았을 때 1학년 과목 중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송재근 : 학부 이수체계를 보면 많은 과목이 있는데 어떤 과목들을 선택해서 들어야 할까요?

서보경 : 선택할 전공에 대해 확신이 없는 새내기들에게 해 주실 수 있는 조언은 무엇인가요?

(2) 지도교수님 조언



4. 우리가 희망한 활동

- 일 시 : 2020.09.07. (월) 15:00~16:00
- 장 소 : teams 화상회의
- 주 제 : 2학기 활동계획 온라인 회의
- 내 용 : 2학기에 희망하는 활동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 ※ 멘티 10명 중 4명 불참. 송재근(가족 행사), 서보경(개인 사정), 김하웅(개인 사정), 맹유나(아르바이트)



온라인 회의

- 일 시 : 2020.10.30. (금) 11:00~14:00
 - 장 소 : 대학 일자리센터
 - 주 제 : 대학 일자리센터 탐방
 - 내 용 : 대학 일자리센터를 방문하여 센터의 목적과 프로그램을 알고 본인들이 장차 얻을 수 있는 진로, 취업, 멘토 정보를 엿볼 기회를 가짐. 특히, 남학생들은 군대 전역 후에 일자리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법을 얻어갈 수 있었고 여학생들은 2학년을 진학하면서 가지고 있던 진로 고민과 적성 검사에 대하여 일자리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안내 받음.
- ※ 멘티 10명 중 3명 불참. 김민환(개인 사정), 김하웅(개인 사정), 맹유나(아르바이트)



대학 일자리센터 / 점심(꼬기꼬기)

- 일 시 : 2021.01.08. (금) 18:00~19:00
 - 장 소 : 본인 집
 - 주 제 : 책을 보자!
 - 내 용 : 본인이 원하는 책을 구매하여 자기계발한다.
- ※ 멘티 10명 중 4명 불참. 김민환(개인 사정), 김하웅(개인 사정), 박정현(개인 사정)



도서샷 인증

5. 멘토링 참여소감

- 멘토 김주영: 여러 가지 활동적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멘토로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의견을 멘티들과 서로 의견을 나누며 각자의 가치관과 성향을 파악하면서 앞으로의 활동에 더 긍정적인 방향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멘티 강태원: 교수님과의 단체상담, 전문가와의 멘토링 등 활동을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 멘티 김경민: 학교에 제대로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배님과 동기들을 만나고 진로나 학과에 대해서 많이 알아갈 수 있었다. 선배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잘 이끌어 주셔서 매우 보람차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 멘티 김민환: 이번 학기는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는 없었지만,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어 활동폭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학기 활동에 많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간접적으로는 체험해볼 수 있었다.
- 멘티 김지상: 2학기 멘토 멘티 활동 중에 코로나 확산이 심해져서 많은 활동을 하진 못했지만, 멘토 선배의 도움으로 적은 활동으로도 동기들과 조금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었다. 또한, 졸업생 선배와의 멘토링을 통해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틀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 멘티 김하웅: 학교에 처음 들어오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알려주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 멘티 박소윤: 진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대학 일자리센터도 방문해보고, 졸업하신 선배님께 온라인으로 조언을 들으면서 앞으로 학교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진로목표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많이 고민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활동을 비대면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었다. 학교에 처음 들어와서 학교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던 나에게 좋은 지도가 되어준 값진 경험이다.
- 멘티 박정현: 2학기에는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서 만날 기회가 적었지만 1학년 동안 학교프로그램을 통해 진로나 미래에 관해 생각할 수 있었다.
- 멘티 맹유나: 코로나가 1학기보다 더욱 심해지면서 만나서 할 수 있는 활동을 못한 것이 아쉽다. 1학기의 연장선으로 교수님과의 간담회나 취업특강을 한 것은 도움이 많이 되었다.

멘티 송재근: 코로나로 인해 1년 동안 비대면 강의를 했다. 그래서 학교에 자주 가지 않고 학교 사람들을 볼일이 거의 없었는데 멘토링을 통해서 동기들과 선배를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멘티 서보경: 멘토 선배님 덕분에 간접적으로나마 학교생활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감사했습니다. 새내기라서 놓칠 수 있는 점을 알려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6. 3중멘토 개인별 성과

멘티 강태원: 3중 멘토 개인별 성과 : c언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어 능력이 부족한가라는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교수님과의 상담을 통해 노력이 부족했음을 깨닫고 c언어 학습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 잘은 못해도 흥미가 높아지게 되었다.

멘티 김경민: 선배로부터 학교에서 얻어갈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과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아갈 수 있었다. 교수님께 학과가 어떻게 분리되고 교육적인 내용에 있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교환학생이나 공모전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전문가 멘토를 통해 이 학과를 나와서 어떤 분야로 나아갈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대략적인 로드맵과 그것을 이루기 위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멘티 김민환: 항공대를 졸업했지만, 항공 쪽 업무가 아닌 일반 업무와 관련된 회사에 취직하신 많은 선배와 대화를 해보며 항공 이외 기업 취직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멘티 김지상: 3중 멘토링 활동을 통해 나의 가치관 설립과 학과의 진로에 대해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영어과 전공 공부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학교생활 동안 영어 자격증을 딸 것이고 전공 공부에 관한 구체적인 공부를 할 것이다. 또한, 대외활동을 통해 사회와의 교류를 도모할 것이다.

멘티 김하웅: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진로에 대하여 전보다 더 뚜렷하게 알게 되었고 나 자신이 어떤 분야에 취업하게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멘티 박소윤: 졸업하신 선배님께 조언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진로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무엇보다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찾아서 이 부분을 나의 강점으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 이를 실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멘티 박정현: 2학년 전공 선택에 있어 통신 쪽보다는 전자 쪽으로 선택하게 다짐할 수 있었다.

멘티 맹유나: 항공전자와 관련된 전문가 특강을 통해 내 전공을 더욱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멘티 송재근: 3중 멘토링을 통해서 항공전자 및 제어시스템 전공을 위해 어떤 과목들을 공부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고 이 전공에 관심이 생겼다.

멘티 서보경: 1학년 동안 저의 목표는 전공을 정하고 4학년까지 제가 해야 할 활동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멘토 선배님과 실직자 멘토님, 교수님께서 해 주신 말씀을 토대로 전공도 확실하게 정했고 학년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과목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어 앞으로의 방향도 잡은 것 같습니다.

7. 멘토활동 포스터

[어디서든, 우리는 (on or off)line이다.]

by. 가가 가고
야가 야다

online

2020.09.07 온라인회의



-2학기 멘토.멘티 활동 계획 회의

2020.10.26 지도교수간담회



-한정희 지도 교수님과 간담회

2020.11.30 전문가멘토 온라인 멘토링



-전문가 멘토 전공 :항공전자 및 제어시스템
-전문가 멘토 소개: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근무

offline

2020.10.30 대학일자리센터 방문



센터
위치, 목적
설명

**진로
상담에
대한 설명**



**점심
식사**



- 대학일자리센터에 방문해 센터에서 얻을 수 있는
진로, 취업, 멘토 정보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음

**※ 코로나19 2.5단계 이전,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모임을 가졌습니다.**

➔ 멘토/멘티 활동 소감

멘토 김주영 : 여러 제약 상황속 의견 제시를 통한 대화로, 멘티 성향을 파악해 앞으로 활동에 대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었다.

멘티 :

- ◎ 진로, 학과에 대해 알 수 있었다.
- ◎ 동기들과 대화를 통해 간접적 체험을 할 수 있었다.
- ◎ 멘토 선배의 도움으로 동기와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었다.
- ◎ 학교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조합상타치 - 항공전자공학전공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룬 멘토링팀의 조합이 더 잘 맞기를 바라는 의미

1. 멘토링개요

가. 활동목적

- (1) 다양한 활동을 통한 시야 확장
- (2) 친목도모 및 학교생활 적응

나. 멘토 및 멘티

- (1) 멘토 : 신지원
- (2) 멘티 : 금한결, 김동현, 김재석, 남윤상, 박상범, 박용일, 백동현, 송민석

다. 멘토링 활동

- (1) 활동횟수 : 총 5회 외 다수 온라인(카톡) 멘토링 진행
- (2) 멘토활동 상세일지

일자	시간	장소	활동내용
2020.10.17	20:00 ~ 21:30	온라인	전문가 멘토링 및 지도교수 만남 이전 사진 미팅을 진행하였으며, 이번 학기 내 활동의 방향성을 잡는 시간을 가짐
2020.11.03	20:00 ~ 21:30	온라인	전자계산기 사용법에 대한 기본 사용법 안내 및 학생역량관리시스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하여 안내하고 활용법을 소개
2020.11.04	17:00 ~ 18:00	온라인	온라인으로 교수님과의 간담회 진행
2020.11.06	18:00 ~ 21:00	화전	MT진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의 갑작스런 확산으로 MT를 취소 후 화전에서 타 멘토링 팀과 함께 회식을 진행하며 친목도모를 진행
2020.11.28	20:00 ~ 21:00	온라인	여가활동을 다 같이하며 영화 관람하고 식사, 기말고사 관련 대화를 나누고 목표했던 여가 관련 활동 진행
2020.12.31	18:30 ~ 19:30	온라인	온라인으로 타 멘토링 팀과 함께 전문가 멘토와의 멘토링 진행

2. 외부전문가 멘토링 활동

가. 간담회 일시 : 2020.12.31. 18:30~19:30

나. 외부전문가멘토 소개

롯데정보통신에 재직중이시며 한국항공대학교 전자정보공학부 졸업, 대학원 진학 후 관련 직종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조현승 멘토님과 멘토링을 진행하였다.

다. 활동내용

(1) 질의응답내용

▶ 대학 재학 중 추천하는 활동은?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함. 대학생때만 할 수 있는 공모전이나 해외봉사 등 전공공부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눈을 넓히는 것이 중요함

▶ 취업 준비할 때 어떻게 했는가

대학원 진학 후 취업준비를 진행했지만 학부 진행 후 취업준비를 진행할 때는 학부시절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정리하고, 프로젝트에서 배운 것을 내 장점으로 만들어서 준비하였음

▶ 컴퓨터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전공 시 갈 수 있는 분야 및 할 수 있는 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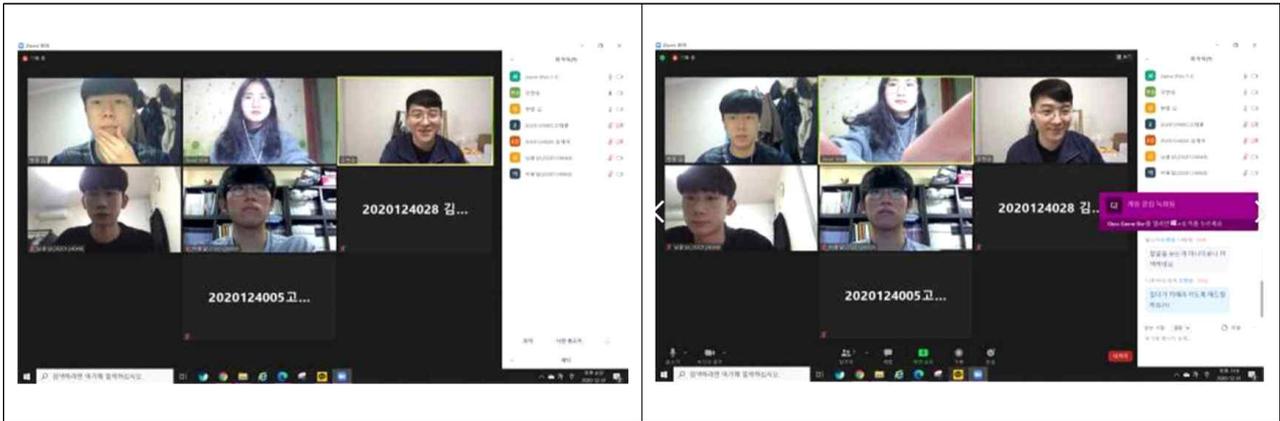
네트워크 관리를 많이 하게 됨

▶ 현직자의 입장에서 추천하는 세부전공or과목

본인에게 맞는 과목이 가장 좋은 전공이고 과목이라고 생각함. 단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할 수 있는 과목을 수강하면 좋음

▶ 실제 현직에서 하는 일과 배우는 과목이 연관성이 많은가

배우는 과목은 현직에서 하는 일의 기초임. 입사 후 다시 배워야 하지만 거기반은 학부시절 배운 내용이 기반이 됨



3. 지도교수 멘토링 활동

가. 간담회 일시 : 2020.11.04. 17:00 ~ 18:00

나. 교수님소개

지도교수님은 이장원 교수님으로 AI 및 컴퓨터 비전등을 전공하셨다.

다. 활동내용

(1) 질의응답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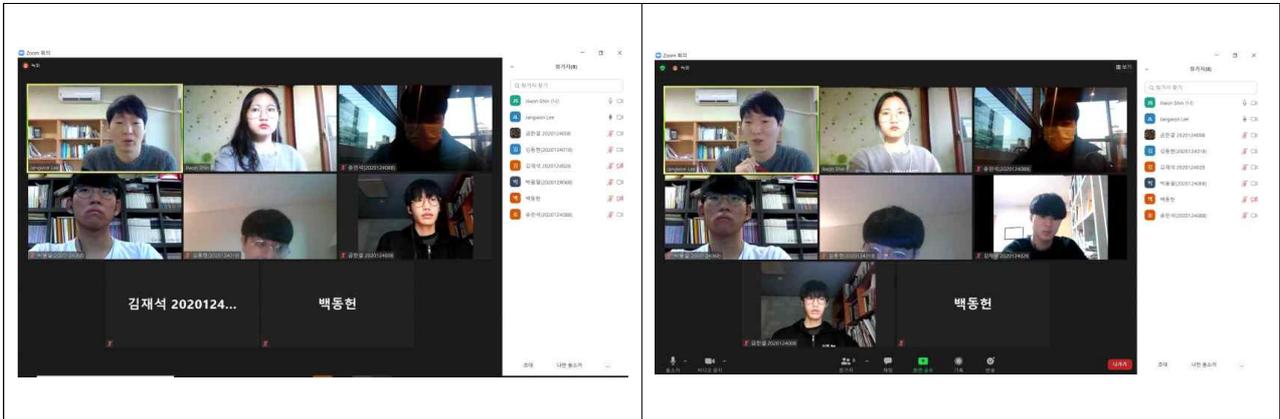
- ▶ 대학원 진학을 준비할 때 준비해야하는 (평균적으로)대외활동, 동아리는 무엇이 있는가?
특정 대외활동이나 동아리보다는 본인이 하고싶은 공부를 찾아야 함. 대학원 부터는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연구하고 싶은 분야를 찾는 것이 최우선임.
- ▶ 대학교 졸업 혹은 대학원 졸업 이후 창업을 많이 하는가?
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보임. 특히 대학원 졸업 이후에 창업 할 경우 본인 전공 및 공부한 분야에 대해 창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학부 졸업 이후에는 보통 전공을 살려서 창업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 ▶ 배우고 있는게 전자정보공학부 관련인데 융합학부를 배우게 될 경우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가?
중점적으로 할 수 있음. 그 분야 관련 과목에 대해 많이 이수할 수 있으며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이 가능함
- ▶ 정보통신과가 항공대에서만 메리트있게 배우는 것이 있는가?
정보통신과 자체의 메리트보다는 전자과에서 배우는 HW와 결합해서 배

울수 있다는 점이 하나의 메리트라고 생각함. SW와 HW를 모두 다룰 수 있다는 점은 상당한 메리트임.

- ▶ 세부전공에서 배우는 교과목 외에 다른 강의를 들어도 되는가
학부때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길을 찾아가는 과정임. 다양한 과목을 듣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을 추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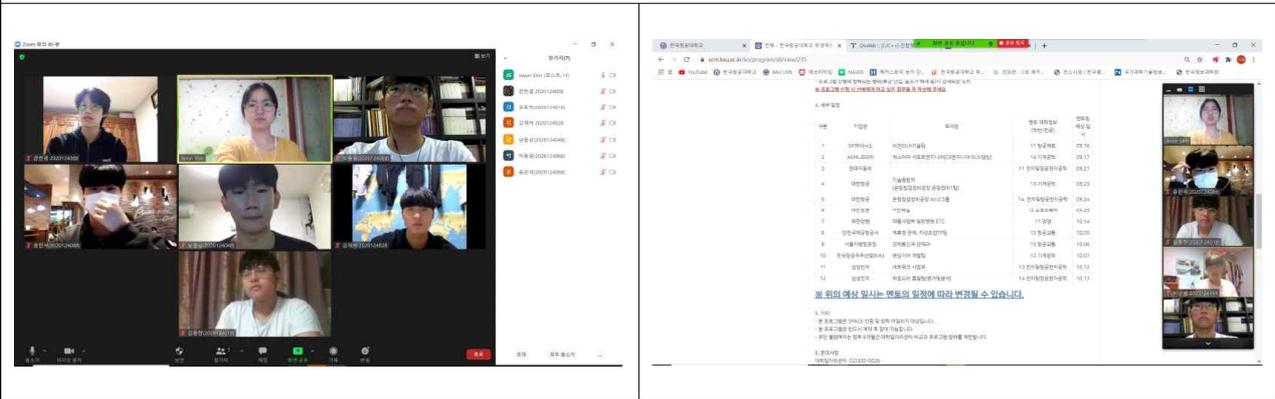
(2) 지도교수님 조언

학생때만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시도해 볼 것. 인생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긴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기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일들을 다양하게 시도해 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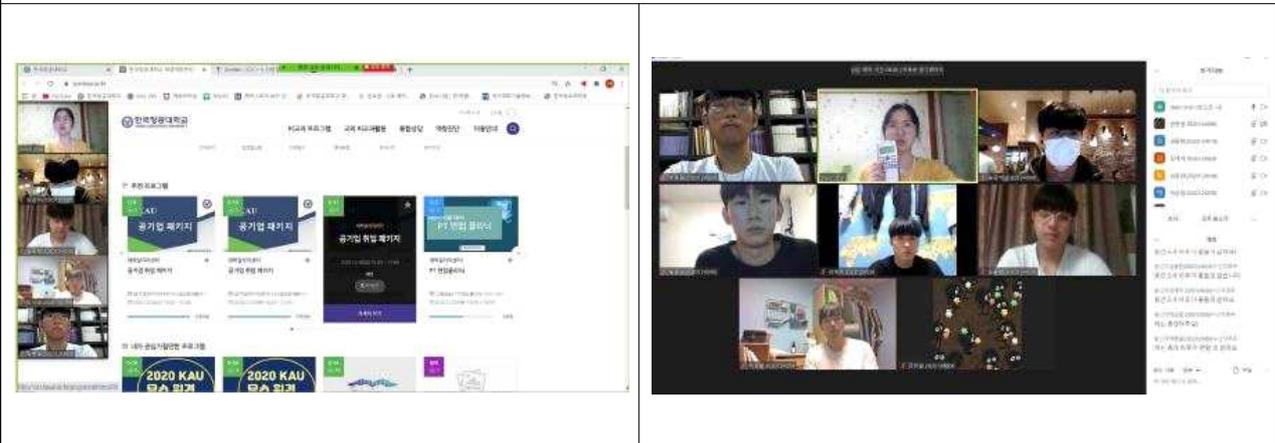


4. 우리가 희망한 활동

- 일 시 : 2020.10.17.(토) 20:00~
 - 장 소 : Zoom을 통한 온라인 멘토링 진행
 - 주 제 : 전문가 멘토링 및 지도교수 만남 사전 미팅
 - 내 용 : 전문가 멘토링 및 지도교수 만남 이전 사전 미팅을 진행하였으며, 이번 학기 내 활동의 방향성을 잡는 시간을 가지게 됨.
- ※ 멘티 9명 중 1명(백종현)은 개별연락을 취하였으나 개인일정으로 불참의견을 전달하였으며 별도 연락을 통해 의견을 수렴함.



- 일 시 : 2020.11.03.(화) 20:00~
- 장 소 : Zoom을 통한 온라인 멘토링 진행
- 주 제 : 전자계산기 사용법 안내 및 학생역량관리시스템 활용안내
- 내 용 : 전자계산기를 주문하여 멘티들에게 지급 후 전자계산기 사용법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였음. 또한 학생역량관리시스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하여 안내하고 활용법을 소개하여 멘티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게 함.



- 일 시 : 2020.11.6.(금) 18:00~
- 장 소 : 화전
- 주 제 : 오프라인 만남을 통한 친목도모
- 내 용 : MT진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의 갑작스런 확산으로 MT를 취소 후 화전에서 타 멘토링 팀과 함께 회식을 진행하며 친목도모를 진행하였음. 코로나상황으로 인해 절대적으로 희망자만 참석하게 하였으며 8명 중 5명이 참석하였고 3명의 멘티가 불참하였음. 그간 일상 공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됨



- 일 시 : 2020.11.28.(토) 20:00~
- 장 소 : Zoom을 통한 온라인 멘토링 진행
- 주 제 : 아우트란 검사진행 및 검사결과 공유
- 내 용 : 함께 아우란트 검사를 진행하고 본인의 장점을공유하는 시간을 가짐.
1학년 친구들이라 그런지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아 도움이 되었음

※ 멘티 전원 참석



5. 멘토링 참여소감

- 멘토 신지원 - 1학기에 비해서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 희망했던 활동들을 거의 진행하지 못하고 온라인 위주로 진행되어 아쉬움이 많았음. 멘토링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도움을 주고 싶은 아쉬움이 남음
- 멘티 금한결 -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정되어 있던 오프라인 모임도 취소 및 축소되며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1학기과 마찬가지로 2학기에도 상황이 계속되며 멘토분들도 온라인 멘토링이 쉽지 않으셨을텐데 멘티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고맷다.
- 멘티 김동현 - 새내기성공센터 멘토링에 멘티로 참여하면서 선배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학교를 다니면서 앞으로 제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감을 잡은 것 같습니다.
- 멘티 김재석 - 멘토께서 물어보는거에 대해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잘 알려주셔서 1년간 학교생활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2학년의 생활이 기대된다.
- 멘티 남윤상 - 1학기에 비해 함께 멘토링을 하는 아이들 및 멘토님과 더 친분을 쌓을 수 있었다. 멘토링을 통해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많은 도움을 받음.
- 멘티 박상범 - 학교에 나가지 못해 경험하지 못했던 대학생활이나 얻기 어려웠던 정보들을 멘토님 덕분에 적절히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 멘티 박용일 - 멘토 멘티를 하면서 비록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같은 과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가까워 질 수 있었으며, 담당 멘토님 뿐 아니라 다른과 선배님들도 직접 만나보면 학교에 대해 알 수 있었다.
- 멘티 백동현 - 코로나로 인하여 오프라인으로 계획했던 많은 활동이 취소된 것이 아쉽지만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소한 질문이라도 멘토분께 질문하면 친절하게 답변해주신 것이 대학생활 적응에 큰 도움이 되었다.
- 멘티 송민석 - 멘토링을 통해 학업에 대한 방향성과 그리고 학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 내년에 입학하는 새내기분들에게도 강력히 권유하고 싶다. 나중에서라도 이 멘토링 팀원 들과 함께 엠티를 가고 싶다.

6. 3중멘토 개인별 성과

- 멘티 금한결 - 교수님 멘토링과 전문가 멘토링은 아무래도 선배 멘토링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효용성이 적은 것 같았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그래도 이제는 어느정도 진로에 대해 생각이 정리되었는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 멘티 김동현 - 학점을 최대한 잘 받아서 대기업에 들어가는데 저의 목표입니다. 2학기 부터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이나 기업에서 하는 일 등을 천천히 조사해 나갈 것입니다. 기업에서 재직중이신 선배님과의 만남을 통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멘티 김재석 - 전자회로쪽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전문가 멘토링 및 교수님과의 간담회 모두 전자회로 쪽이 아니어서 아쉬웠습니다. 관련 전문가를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멘티 남윤상 - 선배, 교수님,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항공전자정보공학부에서의 미래 진로라던가 공부 방향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받음. 반도체 산업과 관련하여 진로를 정해줬으며 이에 대한 로드맵을 세울 수 있게 됨.
- 멘티 박상범 - 멘토링 활동에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내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 것 같다. 이제 2학년이 되니 본격적인 준비를 조금씩 해나가야겠다.
- 멘티 박용일 - 3중 멘토링을 통해 우리 과에서 주로 어느쪽으로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는지 알 수 있었고,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서 독특하고 특색있는 직업도 알게 되었다. 1학기 때와 정말 다른 분야의 전문가 멘토와 멘토링을 진행하였는데 다양한 분야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어서 유익했다.
- 멘티 백동헌 - 학과전공 맞춤형 진로목표 설정과 전공별 주요 진출분야 탐색에도 도움이 되었다. 내가 정한 진로는 3학년 진학 시 전공 자유선택 할 때 전자 및 항공전자공학 전공을 선택하고 항공우주분야 연구원이 되는 것이다.
- 멘티 송민석 - 3중멘토링을 통해 대학원, 학과 졸업 후 진로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나는 토익 점수를 높이고 항공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항공사에 들어갈 것이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항공사 중 어느 직렬에 들어갈지 고민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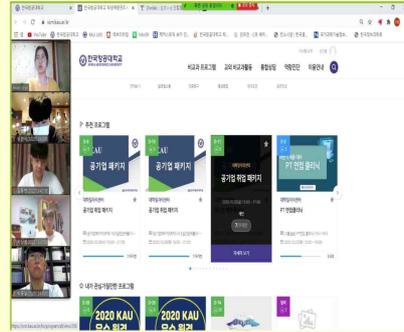
7. 멘토활동 포스터

조합상타치



MT의 아쉬움을 달래며 진행한 회식

2학기 첫 오프라인
#다음엔 MT가자



학생역량관리센터 활용법

숨겨진 꿀팁 #다양한 활동들



전문가 멘토링 사전모임

질문은 미리미리



교수님과의 간담회

이장원 교수님
아쉬운 온라인 간담회

온라인이라 아쉬웠지만 그럼에도 즐거웠습니다
멘토링 끝나고도 연락해요 우리
다양한 선배님과의 만남 유익했습니다

멘토 : 신지원
멘티 : 금한결 김동현 김재석 남운상
박상범 박용일 백동현 송민석

항드림즈 - 항공전자정보공학부

항공대의 꿈이 될 사람들

1. 멘토링개요

가. 활동목적

- (1) 정보 교류(진로, 취업, 대내활동)를 위한 연결다리 생성
- (2) 코로나 19로 인해 적응하기 힘든 학교 생활 지원

나. 멘토 및 멘티

- (1) 멘토 : 석지혜
- (2) 멘티 : 오선희, 이대훈, 주한조, 정지훈, 임서영, 허태영, 이정원, 이승주,
최정우

다. 멘토링 활동

- (1) 활동횟수 : 총 5회
- (2) 멘토활동 상세일지

일자	시간	장소	활동내용
2020.09.28	19:00 ~ 20:00	zoom	2학기 활동에 대한 일정 공유와 흥미 혹은 적성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짐.
2020.09.24	17:00 ~ 18:00	zoom	대학생활 위시리스트를 작성해 봄으로써 학부시절 하고싶은 활동에 한번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고 의미있는 20대 시절을 보내기 위해 희망사항 및 목표를 기재.
2020.11.09	12:00~13:00	강의실	여름방학 중 멘티들이 한 활동, 1학기 성적, 앞으로 공부할 과목들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향후 진로에 대한 대화를 나눔.
2020.11.11	17:00~17:30	zoom	빼빼로 데이 기념 소소한 이벤트를 통해 멘티들과 가까워 지기 위한 요소를 마련.
2020.11.16	12:00~20:00	홍대	멘티끼리 친해질 계기를 만들고자 보드게임, 볼링 등을 통해 어색함을 풀고 식사를 통해 자연스러운 소통의 기회를 마련.

2. 외부전문가 멘토링 활동

가. 간담회 일시 : 2020.12.10

나. 외부전문가멘토 소개

△ 전문가멘토 전공 : 통신신호처리, 통신모뎀설계

△ 전문가멘토 소개 : 항공대 통신과 졸업 후 항공대 대학원 석사로 졸업

△ 하고있는일 : 2012년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입사

올해부터 학술연수에 선발되서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진행

다. 활동내용

(1) 질의응답내용

코로나 19가 격상됨에 따라 ZOOM을 통해 멘토링을 진행하였고, 사전 질문을 받아 학생들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함.

Q1. 교수님이 추천하시기도, 저번학기 멘토님도 대학원을 가셨는데 대학원을 가는 것이 좋은건가요?

A1. 개인적인 의견은 대학원을 가는 것을 추천 드리며 여건이 된다면 박사까지 졸업한다면 더 넓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2. 타 대학교 대학원이 아니라 자대 대학원을 가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A2. 4학년 1학기를 다니면서 통신에 대해 더 공부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며 1학기가 지났고, 자연스럽게 자대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Q3. 취업시 도움이 되었던 강의 혹은 대내외 활동을 알 수 있을까요??

A3. 제가 기억하는 면접 경험은 학부-부학생회장, 대학원-학생회장 경험담이었습니다. 최근에는 SW쪽에는 취업 시험 단계로 SW역량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지만 GitHub나 Opensource 활동, App 출시 등 능동적인 경험을 높게 평가한다고 생각합니다.

Q4. 통신분야로 석사 졸업하시고 취업까지 진로를 정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A4. 저는 4학년 1학기까지 공부한 과목 중에 통신이 가장 재미 있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면 취업 방향도 전공에 맞춰 선택하게 되고 공부한 경험을 이어 갈수 있어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 Q5. 전자과에서 삼성전자로 갈 수 있는 분야와 그와 관련된 직무를 알고 싶습니다.
- A5. 대기업의 경우 볼륨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부서가 있고 다양한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사업분야로는 반도체, 스마트폰, TV, 생활가전, 네트워크, 의료기기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어 개발에 HW, SW 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생산을 위해서 공정 관리, 물류관리를 위한 인력도 필요하며, 전자관련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전자 기술지식이 필요한 상품기획, 영업 등에서도 공대 졸업생이 필요합니다.
- Q6. 설계직무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적 혹은 석.박사 생을 많이 뽑는다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 A6. 사업부 별로 설계직무는 존재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석사는 2년 박사는 8년 경력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도 학사, 석사, 박사 졸업생의 담당업무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외부전문가멘토 조언



3. 지도교수 멘토링 활동

가. 간담회 일시 : 2020.11.09.

나. 교수님소개

- △ 지도교수 전공 : 황진영
- △ 지도교수 소개 : 반도체 소자 전공
- △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과제 : 나노전자소자 연구실

다. 활동내용

(1) 질의응답내용

1학기에 비대면으로 이미 한번 진행하였을 때 대면으로 간담회 진행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교수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른 조와 함께 교수님 간담회를 진행함. 새내기 성공센터를 통해 강의실을 대여하고, 코로나 19를 고려하여 식사는 1인분씩 나누어 하였고 함께 식사를 통해 편안한 분위기를 형성하였음. 주로 지난 1학기를 통해 느낀 점, 여름방학 동안 서로의 일상 공유를 시작으로 앞으로의 진로설정과 학과 공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이후, 시간내서 모인만큼 조금 더 시간을 함께 보내고자 멘티들과 커피를 마시며 앞으로의 새내기 멘토링 활동에 대해 의논하는 시간을 가짐.

(2) 지도교수님 조언



* 교수님과 사진은 찍지 못하였고, 이후 남은 인원끼리 사진을 촬영함

4. 우리가 희망한 활동

- 일 자 : 2020.9.24.(목) 17:00~ 18:00
- 장 소 : ZOOM
- 활동 내용 : 2학기 첫 활동을 시작하며 여름방학동안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얘기를 시작으로 2학기 활동에 대한 구체적으로 하고싶은 사항에 대해 의논하였음. 이후, 대학생활 위시리스트를 작성해 봄으로써 학부시절 하고싶은 활동에 대해 한번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고 의미 있는 20대 시절을 보내기 위해 희망사항 및 목표를 기재.



- 일 자 : 2020.09.28.(월)
- 장 소 : ZOOM
- 활동내용 : 자기가 하고싶은 흥미 혹은 적성 검사를 선택하여 ZOOM하는 시간동안 빠르게 진행하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논하는 시간을 가짐. 이를 통해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멘티들의 성향을 더 알 수 있던 시간을 가짐.



- 일 자 : 2020.11.16.(월) 12:00~20:00
- 장 소 : 홍대
- 활동 내용 : 멘티들의 오프라인 수업 후 함께 모여 홍대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눔. 이후 방문한 보드게임 카페에서 아직 친해지지 못한 멘티들을 위해 게임을 통해 어색함을 풀고 친해지는 계기를 마련했음. 볼링장에서는 팀을 나누어 팀워크를 발휘하며 친밀감을 높이고 소소한 내기를 통해 멘티들의 참여 의지를 높였고 저녁 식사를 마지막 일정으로 하였음.



보드게임카페



단체사진



볼링장 1



볼링장 2

- 일 시 : 2020.11.09(월) 14:00~15:00
 - 장 소 : 학생식당
 - 주 제 : 근황토크
 - 내 용 : 교수님과 멘토링 후, 커피 한잔을 하며 서로 애기와 이후 만나서 할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친해지는 발판을 마련하였음.
- ※ 멘티 10명중 2명 (이대훈-복통, 주한조-지방거주) 은 개별연락을 취하였으나 개인일정으로 불참 의견 전달함

- 일 시 : 2020.11.11(수) 17:00~17:30
 - 장 소 : ZOOM
 - 주 제 : 빼빼로데이
 - 내 용 : 빼빼로데이 기념 소소한 이벤트를 통해 멘티들과 가까워지기 위한 요소를 만들었음.
- ※ 전원참석

5. 멘토링 참여소감

- 석지혜 멘토 : 코로나 19로 인해서 멘티들의 참여를 이끄는 것에 조금 힘들었지만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멘티들이 흥미를 가지고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알고있는 정보를 계속 알려주려고 개인적인 연락도 자주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선후배간 교류가 미미했던 학교활동에서 새내기 멘토링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새내기 멘토링을 바탕으로 이 여러 인연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모습이 향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 임서영 멘티 :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했던 학교에 가지 못해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멘토님의 도움으로 차근차근 적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멘토링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덕분에 든든한 선배도 만나게 되었고, 동기들 과도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진로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 한층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 이승주 멘티 :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외부활동을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ZOOM 및 카카오톡을 통해 학교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최정우 멘티 : 코로나 19로 인해서 학교에 갈 일도 잘 없고 동기들을 만날 기회도 없어서 대학생활에 적응하기 힘들 수 있었는데 새내기 멘토링 덕분에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 멘티 이정원 :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있어서 새내기 멘토링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 입학할 신입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멘티 주한조 : 지방에 거주하여 만남 활동을 많이 못 해서 아쉽지만 새내기 멘토링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 많은 활동이라 좋았습니다.
- 멘티 정지훈 : 멘토 멘티 활동을 통해 처음 학교 생활할 때 정보를 더 편하게 얻을 수 있어 좋았고 좋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어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 멘티 이대훈 :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수업 진행과 동시에 기숙사도 입사하지 않아 학우들을 만날 기회가 매우 적었다. 하지만 멘토/멘티 활동을 통해 그런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멘티 오선희 : 코로나 19로 인해 할 수 없었던 학교생활을 보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멘토 멘티 활동을 통해 동기를 만날 기회가 생겼고, 취업 학업에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선배를 통해 얻을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 멘티 허태영 : 1학기에 비해 2학기에 멘티들과 더 친해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좋

았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에서 멘토링은 멘티들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6. 3중멘토 개인별 성과

석지혜 멘토 :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대면으로 선배님을 직접 뵈 수 없어서 아쉬웠지만 학부생으로서는 알기 힘든 정보와 현업에서 계신 선배님의 시각에서는 대학생 시절 아쉬운 점과 하면 좋겠는 것들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만, 조금 더 선배님들의 분야가 선호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주 멘티 : 앞으로의 일에 더 관심을 가질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정우 멘티 : 취업하신 선배의 이야기를 통해서 취업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수님과 만나 뵈을 때 들은 학부생 연구 조교? 관련한 얘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로목표 : 반도체 관련업 취업 희망)

이정원 멘티 : 취업하신 선배님들께 궁금한 점을 여쭙보면서 구체적인 목표설정을 할 수 있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도 더 고민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임서영 멘티 : 좀 더 활발하게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 진다면 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멘티들의 참여를 더욱 활발히 시킬 필요있음.)

주한조 멘티 : 다양하고 많은 활동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정지훈 멘티 : 교수님과의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대훈 멘티 : 굳이 찾자면, 멀리 사는 친구들을 위한 대책을 다같이 고안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선희 멘티 : 교수님과 개인적인 면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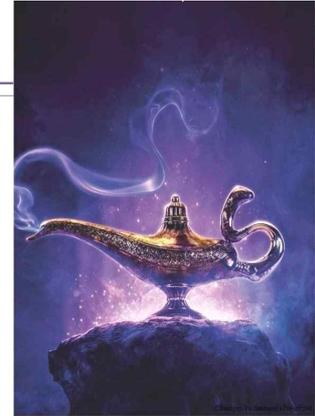
허태영 멘티 : 대학원을 가신 선배님들도 좋지만 그렇지 않고 바로 취업하신 현업의 선배님이나 전자과 학생들이 주로 희망하는 직무에 가신 선배님과의 연결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7. 멘토활동 포스터



목차 A table of contents

- 1 대학생할 위시리스트
- 2 교수님 간담회
- 3 3중 멘토링
- 4 특별한 추억
- 5 소소한이벤트



Part 1 대학생활 위시리스트

예시-1

목차 A table of contents

- 1 하고 싶은 것 -항원에
- 2 하고 싶은 것 -20대
- 3 하고 싶은 곳



예시-2

하고 싶은 것 -항원에

학원의 활동하기 (봉사활동, 학회활동, 동아리활동, 인턴십 활동)
공부하기 (영어학, 교양, 전공수업의 수강 관리하기)
재미있는 동아리 (야구, 축구, 수영, 동아리활동 등)
취미 활동하기 (댄스, 요가, 요술, 요리, 취미활동 등)
연락처 활동하기 (새내기 멘토링, 멘토링, 멘토링, 멘토링 등)
교양활동 하기 (영어학, 교양, 전공수업의 수강 관리하기)
교양활동 하기 (영어학, 교양, 전공수업의 수강 관리하기)

20대를 알차게 보내기 위해 앞으로의 계획 및 준비사항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 마련

©Seaboy's Yu, Seaboy's PowerPoint

Part 2 교수님 간담회

황진영 교수님

전공 : 반도체 소자
(나노전자소자 연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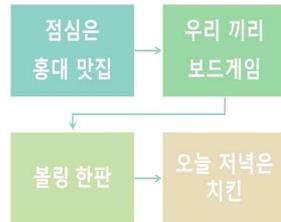
물리전자공학, 반도체 소자, 공학수학 2 담당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의 진로상담 및 학과의 세부 전공별 분야에 대한 토론 시간

©Seaboy's Yu, Seaboy's PowerPoint

Part 4 특별한 추억



©Seaboy's Yu, Seaboy's PowerPoint

Part 4 특별한 추억



©Seaboy's PowerPoint

Part 3 3중 멘토링

이규진 멘토님

전공 : 통신신호처리, 통신모뎀설계

2012년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입사
올레부터는 학술연수에 선발되어 연세대학교
에서 박사과정 공부 중



선배님의 시각에서 새내기가 준비해야하는 점, 현재 취업시장 등 현실적인 조언과 대학생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Seaboy's Yu, Seaboy's PowerPoint

Part 5 소소한이벤트



빠빠로 데이를 기념하여 사다리 타기를 통해 빠빠로 및 초콜릿 이벤트

©Seaboy's Yu, Seaboy's PowerPoint

ten little B-boys - 항공전자정보공학부

10명의 전정 1,2학년들이 서로 뭉쳐 즐겁게 지내자는 의미

1. 멘토링개요

가. 활동목적

- (1) 1학기에 원활한 활동을 못한 새내기들의 학교 적응을 돕는다.
- (2)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러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

나. 멘토 및 멘티

- (1) 멘토 : 김유진
- (2) 멘티 : 안광휘, 우지용, 이병현, 이영민, 이종찬, 임재민, 진성규, 홍지혁

다. 멘토링 활동

- (1) 활동횟수 : 총6회
- (2) 멘토활동 상세일지

일자	시간	장소	활동내용
2020.08.26	14:00 ~ 15:00	온라인 ZOOM	멘티들에게 이번 학기 새내기 멘토링 계획을 ppt로 설명하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간단한 자기소개로 가짐.
2020.10.07	16:00 ~ 19:00	한국항공대학교	첫 대면 모임으로, 멘토가 멘티들에게 학교에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소개하고, 학생회관 외에 있는 멘토가 활동하는 동아리방을 짧게 보여준 뒤 같이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2020.10.15	13:00~14:00	온라인 TEAMS	지도교수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교수님의 당부 말씀과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교수님께 질문하고 해결할 수 있었다.
2020.11.06	18:00~22:00	신촌	두 번째 대면 모임으로 거의 모든 멘티들이 참여한 모임이었음. 같이 식사도 하고, 술집도 가는 등 멘토 멘티가 완전히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2020.11.20	13:00~15:00	행신	마지막 대면 모임으로 코로나19 상황

			이 더 심각해지기 직전에 짧게 식사를 하였음. 모든 멘티들이 참가한 대면 모임이었으며, 남은 학기에 대한 멘토의 조언과 멘티들끼리 상의하는 시간을 가짐.
2020.11.27	18:00~19:00	온라인 ZOOM	외부전문가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졸업하고 KAI에 취직하신 선배님께 직장 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음. 학교 생활에 대한 조언도 많이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음.

2. 외부전문가 멘토링 활동

가. 간담회 일시 : 2020.11.27

나. 외부전문가멘토 소개

우리 학교 전자과에서 석사과정까지 마치고 KAI에 입사했고, 현재 3년차 근무 중. 경남 사천에서 근무, 거주 중

다. 활동내용

(1) 질의응답내용

Q1) KAI(한국항공우주)에 들어가려면 꼭 석사 과정을 마쳐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현재 신입사원 비율을 따졌을 때에는 석사보다 오히려 학사의 비율이 더 많은 것 같고, 석사라고 해서 학사에 비해 훨씬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학사과정만 마치고도 충분히 입사할 수 있습니다.

Q2) 고학년, 석사과정 때에는 어떤 교수님과 연구를 진행했나요?

A2) 종합설계 과정에서 정영호 교수님과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했고, 그 경험을 통해 석사과정까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정영호 교수님이 매우 꼼꼼하시고 잘 도와주셔서 입사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Q3) 꼭 통신 쪽이 아닌 다른 쪽 취업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있으실까요?

A3)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주변 동기들이 취업하는 것을 본다면 확실히 전자, 세부적으로는 반도체 분야가 요새 취업이 확실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Q4) 석사과정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취업 준비는 따로 안 하셨나요?

- A4) 아닙니다. 저는 석사과정을 하기 전에 4학년 마칠 때쯤 취업 준비를 했으나 마음먹은대로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대학원 진학을 하여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Q5) 선배님께서는 대외활동은 따로 하셨나요?
- A5) 저는 사실 대외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아리활동을 조금 열심히 했고, 그 활동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잘 녹여냈습니다. 대외활동보다도 학점 관리가 더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 Q6) 방학 때 새내기로서 저희가 따로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 A6)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방학 때는 쉬면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나 굳이 해야 할 일을 찾는다면 영어공부는 필수이기에 토익이나 토익스피킹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Q7) 경남 사천에서 근무하면 심심하시진 않나요?
- A7) 회사 동료들과 술 마시는 것 외에 딱히 취미 생활을 즐기기에 어려운 환경인 것 같아요. 항공대 앞과 상권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말에 서울 올라가시는 분들도 많고 조용히 생활하기에 좋습니다.
- Q8) 근무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 A8)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4가지인데, 지역/사람/돈/일입니다. 저는 이 중에 3가지는 매우 만족하고, 굳이 따지자면 지역이 엄청 마음에 들진 않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매우 행복한 회사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 Q9)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시나요? 주말에도 일을 하시나요?
- A9) 근무 여건은 매우 좋은 편이라 일반 직장인들처럼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합니다. 지금까지 주말에 일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프로젝트가 일이 많으면 주말에도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Q10) 교내에서 활동할만한 것들 중에 추천하실 것들이 있나요?
- A10) 글썄요 저는 동아리활동 외에는 크게 활동한 것이 없어서..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멘토링 활동 같은 것도 매우 좋은 것 같고, 교내 공모전들도 잘 찾아보고 지원하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 Q11)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더 궁금한 내용 있으면 연락 드려

도 될까요?

A11)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저도 이런 멘토링은 처음이라 오늘 시간이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멘토를 통해서나 저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2) 외부전문가멘토 조언

질의 응답하며 조언을 많이 해주셨지만, 정리하자면 남은 학교 생활을 너무 취업 걱정에 스트레스만 받지 말고, 해볼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p>일시 2020. 11. 27: / 멘토링 시작</p>	<p>일시 2020. 11. 27 /멘토링 끝 단체사진</p>

3. 지도교수 멘토링 활동

가. 간담회 일시 : 2020.10.15.

나. 교수님소개 : 1학년 컴퓨터프로그래밍 담당, 네트워크/컴퓨터 분야 담당

다. 활동내용

(1) 질의응답내용

Q. (진성규 멘티) 네트워크 진로에 미리 준비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지도교수) 머신러닝과 임베디드 시스템에 관해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을 기본으로 열심히 준비할 것.

Q. (안광희 멘티) 컴퓨터 진로에 관한 기업은 어디가 있나요?

A. (지도교수) 포괄적인 질문이나, 학생들이 모두 아는 컴퓨터 대기업, 게임 회사 등 여러 가지 분야가 많다.

Q. (이종찬 멘티) 항전정에서 나아갈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이 있나요?

- A. (지도교수) AI나 원격진료, 자율비행,주행 등이 교수님이 맡고 있는 분야이고, 반도체, 소프트웨어, 시스템메모리, 통신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 Q. (이병현 멘티) 항전정에서 장점으로 활용할만한 것은 무엇인가요?
- A. (지도교수) 열정있는 교수님들과의 연구 활동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 Q. (홍지혁 멘티) 일반물리가 어려운데 2학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 A. (지도교수) 물리 과목은 전자과에서 필수이다. 특히 지금 배우고 있는 2학기 일반물리 전자기쪽 물리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1학기 물리가 많이 어려웠다면 2학기 전자기쪽 물리에라도 우선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 Q. (김유진 멘토) 교수님 랩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것은 어떤가요?
- A. (지도교수) 보통 3학년 2학기부터 컨택이 들어와서 랩실에 학부연구생들이 참여를 하는데, 교수가 내준 연구 과제들을 진행하고 종합설계와 같이 병행한다. 힘들지만 그만큼 얻어가는 것이 많다.

(2) 지도교수님 조언



4. 우리가 희망한 활동

- 일 시 : 2020. 08. 26
 - 장 소 : 온라인 ZOOM
 - 주 제 : 20-2 새내기 멘토링 설명
 - 내 용 : 멘티들에게 이번 학기 새내기 멘토링 계획을 설명
3중 멘토링의 의미를 알려주고 방향성을 같이 계획
따로 ppt를 만들어 40분정도 진행했음.
많은 멘티들이 참여하진 않았으나 서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짐.
- ※ 멘티 7명중 4명(진성규, 이종찬, 홍지혁, 이영민)은 개별연락을 취했으나 개인 일정으로 불참.

화면캡처 없음

- 일 시 : 2020. 10.07
- 장 소 : 한국항공대학교
- 주 제 : 20-2 첫 대면 모임 & 학생회관 외에 있는 동아리방 소개
- 내 용 : 첫 대면 모임을 가짐.
 학생회관 내 동아리방은 방역지침으로 입장불가하므로 학생회관 외
 에 있는 동아리방을 짧게 소개함.
 학교 건물들을 구석구석 소개시켜줌으로써 학교 건물에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짐.
 화전역 앞 유명식당을 소개시켜주고 같이 저녁식사를 함.
 ※ 멘티 7명중 5명(이병현, 우지용, 이종찬, 홍지혁, 이영민)은 개별연락을 취했으나
 개인 일정으로 불참.



일시 : 10.07 / 소규모 모임



일시 : 10.07 / 저녁 식사

- 일 시 : 2020. 11.06
- 장 소 : 신촌
- 주 제 : 20-2 두 번째 대면 모임
- 내 용 : 두 번째 대면 모임을 가짐.

많은 멘티들이 모인 첫 번째 모임이었음.

같이 식사도 하고, 술집도 가는 등 5시간여를 같이 보냈음.

이번 멘토링에 참여하지 않은 멘티 임재민의 군입대 전 송별회를 하는 시간을 가짐. (멘티 7명중 2명(우지용, 홍지혁)은 개별연락을 취했으나 개인 일정으로 불참.)



일시 : 11.06 많은멘티들이 모임

- 일 시 : 2020. 11.20
- 장 소 : 행신
- 주 제 : 20-2 마지막 대면 모임
- 내 용 : 마지막 대면 모임을 가짐.
 - 모든 멘티들이 대면으로 모인 첫 번째 모임이었음.
 - 코로나19 상황이 너무 심각하여 식사만 하는 자리로 마무리.
 - 모든 멘티들이 참여함.(멘토 1명 + 멘티 7명)



일시 : 11.20 / 마지막 대면 모임



일시 : 11.20 / 점심 식사

5. 멘토링 참여소감

멘토 김유진 - 지난 1학기 활동이 거의 없었던 멘티들과 처음에 멘토링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음. 그러나 대면 모임을 통해 많이 친해지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도와줄 수 있었음. 앞으로도 계속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멘티1 안광휘 - 한 학기동안 멘토와 멘티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활동하여 즐거웠음.

멘티2 우지용 - 학교에 입학하고 동기들을 잘 몰랐었지만, 이번 멘토멘티 활동을 통해 좋은 형과 친구들을 알게되었기에, 앞으로 더 연락하면서 친해지고싶다고 생각합니다!

멘티3 이병현 - 멘토 선배님이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고 여러 모임들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덕분에 좋은 선배님과 동기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멘티4 이종찬 - Covid-19로 갖지 못했을 수도 있는 동기들과 선배를 만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감사했고, 학업과 진로를 같이 의논할 수 있어서 좋았다.

멘티5 진성규 - 멘토 멘티 활동을 통해 멘티 친구들과 더불어 멘토 형과도 긍정적인 교류를 하여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멘티6 홍지혁 - 어려운 시기에 학교생활을 잘 할수 있도록 해준 활동이었습니다. 덕분에 친한 동기도 생기고 나름 재미있게 학교생활을 할수 있었습니다.

멘티7 이영민, 임재민은 훈련소 입소

※ 기재되지 않은 다른 멘티들은 군입대로 멘토링 참가하지 않음.

6. 3중멘토 개인별 성과

- 멘티1 안광휘 - 실제 취업한 선배님을 만나보며 진로에 대해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었고 진로에 대한 막연한 걱정만 하기보다 현재 해야 하는 공부들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됨 (진로목표는 전자분야 공기업 or 대기업 취업)
- 멘티2 우지용 - 본래 진로를 회로쪽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어떤 것을 공부해야할 지 등 여러 준비단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 멘티3 이병현 - 실제로 항공 관련 공기업에 취직하신 선배님을 만나 q&a 시간을 가지며 공기업에 대해 궁금했던 내용들도 많이 알게되었고 진로에 대한 목표가 더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 멘티4 이종찬 - 외부 멘토 선배님들을 통한 멘토링을 통해 현재 자신이 진로에서 어느 위치에 서있는지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어서 정말 유익했다.(네트워크 분야 희망)
- 멘티5 진성규 - 교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남은 학교 생활의 방향성을 뚜렷하게 설정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컴퓨터 분야 희망)
- 멘티6 홍지혁 - 관심이 있던 항공분야에 구체적인 진로방향을 찾을수 있어 좋았습니다. 덕분에 항공관련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어떠한 공부를 해야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 멘티7 이영민, 임재민은 훈련소 입소

※ 기재되지 않은 다른 멘티들은 군입대로 멘토링 참가하지 않음.

7. 멘토활동 포스터

남자들의 새내기

항전정 ten little B-boys

→ 열명의 B반 남자들(3명은 군입대..)

#1 재학생 멘토와 멘티들의 대면 모임!

#2 외부 전문가 멘토링

→ 졸업하신 과 선배님과 진솔한
진로 관련 talk!

#3 지도교수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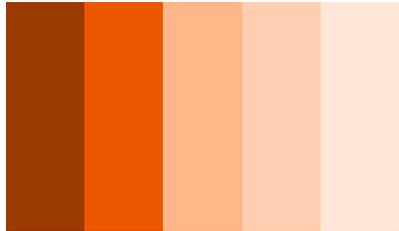
→ 교수님께 직접 듣는 공부 꿀팁!

→ 멘토와 멘티간의 친목도모 시간!
주강신청, 대외활동 동아리 등
각종 대학생활 정보 나눔!

비대면 시대, 온오프라인으로 즐겨보자!

멘토 김유진 멘티 안광희 우지용 이병현 이영민 이종찬 진성규 홍지혁

Made with MANGOBOARD



소프트웨어학과

1. 소주한잔 - 김다영멘토
- 2.

소주한잔 - 소프트웨어학과

...

소학의

주인공들이

한자리에

잔뜩

...

이라는 의미로 멘티들이 제안한 다양한 팀명 중에서 채택된 것입니다.

1. 멘토링개요

가. 활동목적

- (1) 정보 공유
- (2) 친목 도모

나. 멘토 및 멘티

- (1) 멘토 : 김다영
- (2) 멘티 : 강민준, 권순우, 권용현, 김경래, 김민기, 김민석, 김민호

다. 멘토링 활동

- (1) 활동횟수 : 총 5회
- (2) 멘토활동 상세일지

일자	시간	장소	활동내용
2020.11.01.	15:00~17:00	소프트웨어학과 사무실	지도교수님과의 간담회
2020.11.07.	14:00~	메가박스 홍대점	영화관람
2020.11.07.	15:30~	히어로 보드카페 홍대점	연합멘토링 - 보드게임
2020.11.07.	18:00~	아웃답 홍대점	연합멘토링 - 저녁 식사
2021.01.12.	10:00~10:40	온라인 간담회	전문가 멘토님과의 간담회

2. 외부전문가 멘토링 활동

가. 간담회 일시 : 2021.01.12.(화)

나. 외부전문가 멘토 소개

- (1) 성 명 : 김용환 멘토님
- (2) 전 공 : 컴퓨터 공학과
- (3) 멘토소개 : 한국항공대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해 대학원에 진학하신 후 현재는 경찰청에서 근무하고 계심.

다. 활동내용

(1) 질의응답 내용

Q1) ‘디지털 포렌식’ 이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A1) 우선, 사이버 수사대에서는 사이버상에서 저지른 범죄자를 잡습니다. 그 중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은 디지털 기기(휴대폰, 전산망 등)을 통해 증거를 찾는 것을 말합니다.

Q2) 되는 법은 무엇이 있나요?

A2)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공채와 경력 채용이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 쪽은 경찰들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전문직이 필요하고 경력 채용, 특채를 통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Q3)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하시고, 이 분야를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A3) 석사, 박사를 마친 후 생각을 해봤을 때, 다들 공무원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하고 싶어서 선택한 이유도 있었지만, 나이를 먹었을 때 경제 활동에도 좋고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Q4) 1학기 때 전문가 멘토님께서도 대학원 진학을 하셨었는데, 대학원 진학기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A4) 똑같은 조건일 때, 대학원 진학이 있으면 거기에 살짝 가산점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학원 진학 대신 그 기간동안 사회생활을 해 경험을 쌓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어떤 분야인지에 따라 무엇을 더 좋게 볼지는 다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대학원 진학이

취업에는 도움이 더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2) 외부전문가 멘토 조언

여러분은 직업을 선택할 때, 돈벌이가 되는지 / 보람되는지 / 하고 싶은 일 인지 고려해서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정해 그 가치를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둘 건지 생각해 보세요.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양한 직업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들어 ‘네이버’ 회사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면,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 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동기들이나 선배들을 만나 놀러 다니고 술을 마시는 것 또한 다양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마다 생각도 다르고 경험해온 것도 다르니,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자신의 생각을 넓히고 간접경험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네요.



ZOOM을 통한 온라인 간담회 진행 중

3. 지도교수 멘토링 활동

가. 간담회 일시 : 2020.11.01.(일)

나. 교수님소개

- (1) 성 명 : 황수찬 교수님
- (2) 전 공 : 데이터베이스(DB)
- (2) 소 개 : 한국항공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님

다. 활동내용

- (1) 질의응답 내용

Q1) 학점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A1) 솔직히 우리 과가 취업을 할 때, 학점을 그렇게까지 따지지는 않는 것 같아. 그래도 보통은 해야 하니까 3점대는 돼야 하지 않겠어?

Q2) 전공 공부를 하면서 웹디자인 같은 분야도 따로 공부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2) 다른 사람들과 차별성을 더 주고 싶다면, 디자인보다는 다른 분야를 공부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네.

(2) 지도교수님 조언

1학년 친구들이 C언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C언어는 2학년 때 자료구조 수업에 C++ 쓰기도 하고 앞으로 계속 쓸 거니까 한번 할 때 제대로 해놓는 게 좋아.

요즘 하도 코딩이 중요해져서 다른 학과에서는 자신들 전공에 코딩을 추가로 공부하고 그러는 추세잖아. 그러면 우리 과는 개네들 보다는 실력이 확실히 뛰어나야 해. 그래서 그만큼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우리 과가 다른 다양한 분야와 융합될 수 있는 만큼 너희도 많은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어. 책을 많이 읽거나, 교양 수업도 그냥 듣지 말고 새로운 경험을 쌓는다고 생각하면서 듣도록 해.



지도교수님과의 오프라인 간담회 진행

4. 우리가 희망한 활동

- 일 자 : 2020. 11. 01. (일)
- 장 소 : 한국항공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사무실
- 활동내용 : 1학기에 이어 지도교수님이신 ‘황수찬’ 교수님과 의 간담회를 진행했음. 1학기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이를 아쉬워하는 멘티들이 많아 2학기에는 오프라인으로 교수님을 만나봤음.



지도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멘티들



간담회를 마친 후 인증샷

- 일 자 : 2020. 11. 07. (토)
- 장 소 : 메가박스 홍대점
- 활동내용 : 2학기에는 멘티들과 연극/뮤지컬/영화 등을 관람하기로 계획했기에, 가장 도전하기 쉬운 영화를 관람하기로 했음. 당시 개봉한지 얼마 되지 않은 영화 ‘도굴’을 관람함.



영화 시작 전 인증샷



ssoonwoo_
메가박스홍대

한국판 범죄 오락의 전형적인 클리셰. 기존 영화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스토리, 관전장막, 마지막에 반전이랄시고 실은 내용도 조금은 예상이 되는 그런 영화다. 이제론이 누승만 거 둘 때부터 대응 눈치 감.

범죄 오락 영화에서의 몰입도는 스토리 개연성과 전개 속도에 달한다고 생각하는데, 개연성은 그저 그렇지만 전개 속도는 빠른 편이라 무척 보기에는 좋은 영화.

극 중 캐릭터들과 배우들의 연기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주인공 동생 빼고. 너무 신만해. 그게 캐릭터지만 별로 웃기지도 않고 산

멘티가 작성한 영화 리뷰

- 일 자 : 2020. 11. 07. (토)
- 장 소 : 히어로 보드카페 홍대점
- 활동내용 : 오프라인 만남을 주최하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적기에, 소프트웨어학과 새내기 멘토 ‘홍혜선’ 멘토와 함께 연합하여 연합 멘토링을 진행했음. 다른 팀이라 멘티들끼리 어색해 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같이 게임을 하다 보니 다른 멘티들과도 쉽게 친해진 모습을 볼 수 있었음.



보드카페에서.



보드게임 ‘뱅(Bang)’ 하는 중에.

- 일 자 : 2020. 11. 07. (토)
- 장 소 : 아웃닭 홍대점
- 활동내용 : 선약이 있는 멘티들을 제외하고, 치킨 맛집 ‘아웃닭’ 에 방문했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치킨과 감자튀김을 먹으며 깊이 있는 대화를 이 어간 후 마무리했음.



음식점에서.



주문한 메뉴

- 일 자 : 2021. 01. 12. (화)
- 장 소 : 온라인 만남
- 활동내용 : ZOOM을 통한 전문가 멘토님과의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했음.



온라인 간담회 진행

5. 멘토링 참여소감

- 김다영 멘토 : 지난 학기에 비해 대면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해 많이 아쉬웠습니다. 활동을 기획하고, 예산을 맞추고, 멘티들과 멘토들의 시간을 조정하고 여러 방면으로 신경 쓸 일이 많았지만, 멘티들의 학교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신청 시기를 놓쳐 21년도 1학기 새내기 멘토 신청은 하지 못하였으나 다음번에 기회가 또 있다면 또 신청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잘 할 수 있길!!
- 강민준 멘티 : 코로나로 인해 대학 생활을 할 수 없었는데 이 활동을 통해 대학 친구 및 선배와 교류를 해서 좋았다.
- 권순우 멘티 : 비대면 시대에 같은 학과 동기들 만나기가 엄청 어려웠는데, 올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선배, 동기들과 교류하며 학과, 진로 등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 권용현 멘티 : 선배들과 동기들을 만나서 좋은 기회였고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음.
- 김경래 멘티 : 방학 때 하면 좋은 활동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 김민기 멘티 : 코로나 때문에 동기들이나 선배들과 교류할 기회가 하나도 없었는데 멘토-멘티 덕분에 조금이나마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교수님과 면담, 멘토와 면담 등을 통해 학점관리, 학교생활을 개선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김민석 멘티 : 모르는 것들 알려주시고 고민 상담도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공모전이나 장학금 신청 등 다양한 공지도 해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 김민호 멘티 :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제대로 나가지는 못했지만, 멘토-멘티 활동을 통하여서 혼자서 학교 생활을 한다는 기분보다는 여럿이 함께 학교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날이 많아서 좋았다. 비단 기분뿐만 아니라 수업을 들으면서 곤란한 부분이 생겼을 때, 진지하게 상담해주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주는 선배 멘토와 함께 걱정해주고 도와주는 멘티 친구들이 있어서 학교생활을 하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자칫 아무런 추억도 남기지 못할뻔했던 1학년의 시간에 그래도 친구들과의 추억을 쌓고 선배와 교류를 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6. 3중멘토 개인별 성과

- 강민준 멘티 : 교수님과 면담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하는지 조언을 받았다. 진로에 관한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으면 교수님에게 언제든 찾아와 물어보라 하셨다. (개인별 진로목표 : 보안 관련 분야 지금은 정보보안전문가)
- 권순우 멘티 : 경찰청 선배님과 온라인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학과가 꼭 코딩이나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여러 분야로 많이 취업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어 좋았습니다.
- 권용현 멘티 : 학교를 졸업하신 전문가 멘토님과의 간담회를 통해 학업에 대한 동기 부여와 학교생활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음.
- 김경래 멘티 : 방학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목표를 가지게 되었어요.
- 김민기 멘티 : 진로에 대해 막막했는데 3중 멘토링을 통해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 수 있었고, 나의진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 김민석 멘티 : 과 선택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멘토님께서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존중해주셔서 선택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 김민호 멘티 : 진로목표는 현재 AI 연구원과 컴퓨터-스마트폰 어플 프로그래머 가운데

데에서 고민 중이다. 교수님과의 면담 시간 속에서 이를 성취하기 위해 앞으로 들을만한 과목들, 개인적으로 공부해보면 좋을 만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멘토 선배와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취업을 위해 미리 준비해보고 노력하면 좋은 것들에 대해 듣고 간단하게나마 진로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의 틀을 잡을 수 있었다.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은 복수전공-융합 전공 부분이다. 교수님, 선배, 친구들의 입장에서 각각 선택하기 좋은 학과의 장점과 선택 시에 우려되는 점들에 대해 들을 수 있어서 선택을 확정 짓고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7. 멘토 활동 포스터

2020학년도 2학기 멘토-멘티 활동 보고서

소 주 한 잔

학의 주 인공들이 한 자리에 특



2020.11.01

지도교수님과의 간담회

1학기 때 온라인 간담회로 아쉬워하는 멘티들을 위해 이번에는 오프라인 만남으로 진행! 맛있는 다과와 음료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020.11.07

오늘은 나도 문화인!

상영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따끈따끈한 영화 '도굴'을 함께 봤다구~ 영화정도는 봐줘야 문화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



2020.11.07

연합멘토링_보드게임으로 친해지자!

소학 새내기 멘토를 맡고 있는, 놀 줄 아는 언니! '홍해선' 언니와 연합 멘토링을 기획했다. 애들이 과연 잘 놀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너무 걱정과 다르게 게임 하다보니까 금방 친해지더라는,, 글구 여태 뱅(BANG) 게임하면서 배신자가 이기는 판을 본적이 없는데... 처음하는 민준이가 새 역사를 써주었담..★ 유 아 스마트 보이 (O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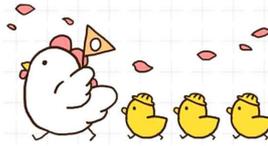


인스타그램에 영화 리뷰
까지 남겨준 순우☆
@ssoonwwoo_
@_kwonsoonwoo





2020.11.07



B와 D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C죠.
이처럼 탄생(Birth)과 죽음(Death)
사이에는
치킨(Chicken)이 있습니다.
치킨은 중요합니다.

연합멘토링_치킨으로 친해진 사이랍니다ㅎ

원래 치킨 같이 먹으면 친해지는 거겠어. 바삭바삭 매콤달달
치킨 산에 짭짤한 감자튀김 소복히 쌓고 그 위에 쫄깃쫄깃
떡까지 올려주면!! 사진에 모두가 웃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야~ 서로 근황 얘기도 하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2020.12.13



시험기간 응원선물

1학년이라고 해도 시험기간이면 스트레스
쌓이는 것이 당연!! 시험때문에 괴로워하는
멘티들에게 당충전을 할 수 있는 초코세트
선물해주기ㅎㅎ 별거 아니지만 정말 좋은
반응을 보여줘서 고마웠어 친구들 ~



2021.01.06

멘토 생일 챙겨주는 멋진 멘티

멘티에게 역조공이라니...!! 감격...
저희 애들이 이렇게 마음씨도 착하고
센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알아야 해 아주!!

2021.01.12



전문가 멘토님과의 간담회

경찰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김용환' 멘토님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경찰청에서 하시는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경험을 해보며
진로를 선택하는 것을 강조하셨다★



소주한잔 - 소프트웨어학과

자바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언어임에 동시에 (세상을) ‘자유롭게 바꿔 보자’ 를 의미한다.

1. 멘토링개요

가. 활동목적

- (1) 학교 교과 외 많은 활동을 체험하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진로 탐색할 기회를 제공
- (2) 팀원(동기들)간의 유대감 증진 및 친목 도모

나. 멘토 및 멘티

- (1) 멘토 : 홍혜선
- (2) 멘티 : 박건아, 박상신, 박상혁, 박소은, 박영권, 박정기, 박준혜

다. 멘토링 활동

- (1) 활동횟수 : 온·오프라인 다수활동 진행
- (2) 멘토활동 상세일지

일자	시간	장소	활동내용
2020.09.20	오후	홍대 (경의중앙선 숲길 근처)	멘티들의 취미를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했습니다. 클래스 후에는 카페에 가서 음료와 케이크를 먹으며 학교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0.11.07	오후	홍대 (2호선 근처)	코로나로 인하여 동기를 못 만난 멘티들을 위하여 더 많은 새내기를 만나고자 연합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다같이 홍대 메가박스에서 영화(도굴)을 보고, 보드게임 카페에서 게임을 하며 친목을 다지고,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시	-	온라인	코로나로 인하여 카카오톡 및 ZOOM등을 활용하여 다수 온라인 활동을 통하여 멘티들의 질문들을 해결하였습니다

2. 외부전문가 멘토링 활동

가. 간담회 일시 : 2021.11.29

나. 외부전문가 멘토 소개

△ 전문가멘토 전공 : 소프트웨어학과(알고리즘)

△ 전문가멘토 소개 : 전문가 멘토분 중 제일 최근에 졸업하셨습니다.

따라서 취업 관련 질문을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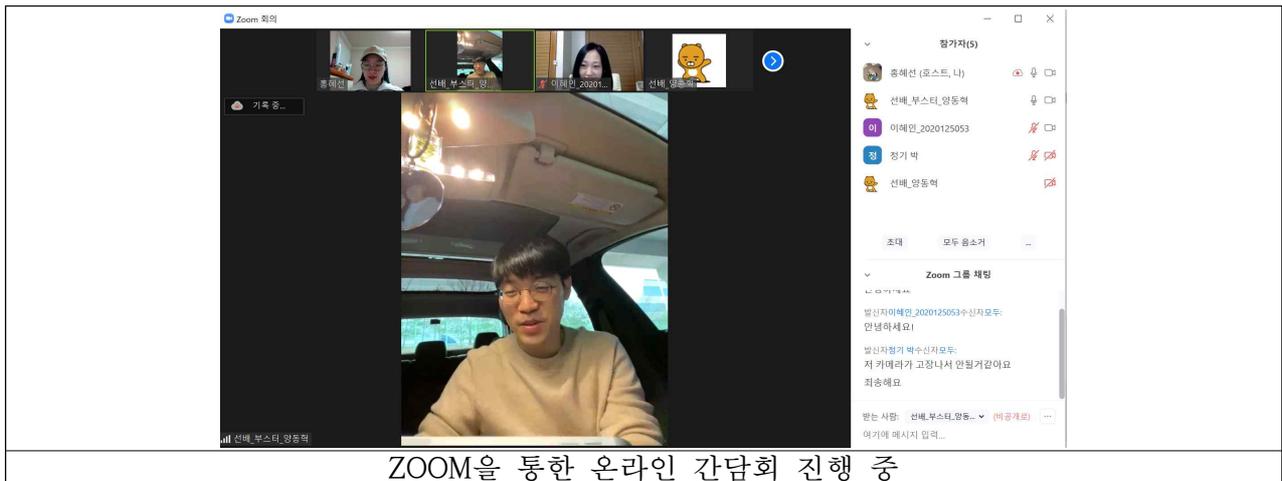
△ 하고있는일 : repair알고리즘을 구현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본 알고리즘을 통해서 불량인 물건을 찾아내고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다. 활동내용

(1) 질의응답 내용

주로 취업에 관련된 질문을 하였고, 선배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코딩테스트를 준비했고, 시행착오 및 성장과정을 설명해주셨다. 또한 참여하지 못한 멘티들을 위해 간담회 내용은 워드로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2) 외부전문가 멘토 조언



3. 지도교수 멘토링 활동

가. 간담회 일시 : 2020.11.02.

나. 교수님소개

△ 지도교수 전공 : AI (딥러닝/머신러닝)

△ 지도교수 소개 : 2학기에 새로 배정받은 지승도 교수님입니다.

△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과제 : 딥러닝을 이용하여 국방 시뮬레이션, 드론
편대 비행 등 많은 연구에 참여

다. 활동내용

(1) 질의응답 내용

한 멘티가 코딩 공부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였고, 교수님께서서는 자전거를
예시로 들면서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 익히다보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2) 지도교수님 조언



ZOOM을 이용하여 지도교수님(지승도교수님)과의 3중 멘토링을 진행한 사진입니다.

4. 우리가 희망한 활동

- 일 시 : 2020.09. 20 (일)
- 장 소 : 홍대 (경의 중앙선 숲길 근처)
- 주 제 : 나만의 향수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
- 내 용 : 멘티들의 취미를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했습니다. 클래스 후에는 카페에 가서 음료와 케이크를 먹으며 학교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멘티 7명중 5명(박건아, 박상신, 박상혁, 박영권, 박준혜)은 개별연락을 취하였으나 개인일정으로 불참 의견 전달함



향수클래스



클래스 후 카페 방문

- 일 시 : 2020.11. 07 (토)
 - 장 소 : 홍대 (2호선 근처)
 - 주 제 : 연합 멘토링
 - 내 용 : 코로나로 인하여 동기를 못 만난 멘티들을 위하여 더 많은 새내기를 만나고자 연합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다같이 홍대 메가박스에서 영화(도굴)을 보고, 보드게임 카페에서 게임을 하며 친목을 다지고,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 멘티 7명중 3명(박건아, 박상신, 박상혁)은 개별연락을 취하였으나 개인일정으로 불참 의견 전달함



보드게임 카페



아웃닭 (저녁식사)

5. 멘토링 참여소감

- 멘토 홍혜선 - 1학기 때의 시행착오를 보완한 멘토링을 진행하여서 만족스러웠다. 또한 2학기 때 코로나가 심해지기 전에 대면활동을 많이 진행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 멘티1 박건아 - 전문가 멘토링에 참여를 못했지만 레포트로 정리해서 보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멘티2 박상신 -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멘티3 박상혁 - 이번 학기는 개인사정으로 저번 학기보다 많이 참여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 멘티4 박소은 -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1학년이라 모르는게 많았는데 선배님 덕분에 많은걸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못 뵈게 아쉽기만 하네요
- 멘티5 박영권 - 상황이 좋지 않아 활동을 많이는 못 했지만 1년동안 즐거운 멘토링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멘티6 박정기 - 이번 학기는 많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멘토링 활동 덕분에 기억에 남는 추억 많이 만들어갑니다!
- 멘티7 박준혜 - 편하게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는 선배를 만날 수 있는 기회라서 좋았으며, 연합 멘토링 또한 재미있었습니다!

6. 3중멘토 개인별 성과

- 멘티1 박건아 - 레포트를 통해 간담회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전문가 멘토님의 가르침을 얻어갈 수 있었다.
- 멘티2 박상신 - 레포트에서 전문가 멘토님이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통해서 코딩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음
- 멘티3 박상혁 - 전문가 멘토님이 코딩테스트를 준비하며 느낀 시행착오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 멘티4 박소은 - 취업을 위해서는 코딩테스트 준비를 해야하고, 알고리즘 공부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 멘티5 박영권 - 코딩 대회에 관심이 있었는데, ACM ICPC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 멘티6 박정기 - 취업 준비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면 좋은 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알고리즘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 멘티7 박준혜 - 코딩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전문가 멘토님의 조언 덕분에 막막함이 사라졌습니다.

7. 멘토 활동 포스터

2020-2학기 새내기 활동

자유롭게 바뀔보자



멘토 홍혜선
멘티 박건아 박상신 박상혁 박소는 박영권 박정기 박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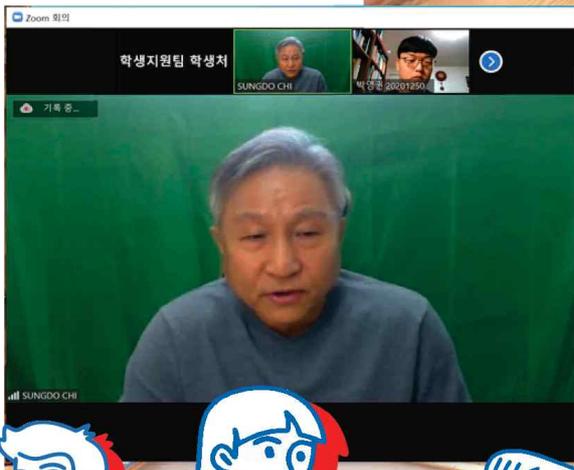
주요 활동 내용



향수 클래스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서 각자의 향수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취미를 공유하니 금세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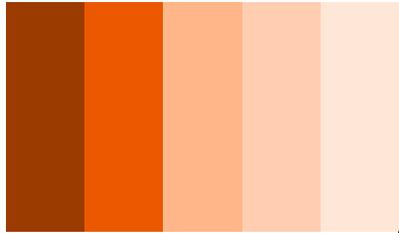


연합 멘토링
같은 학과 다른 팀과 연합으로 모였습니다.
영화/보드게임 카페/치킨을 통해서 더 가까워질 기회가 되었으며, 코로나로 인해 만나지 못한 동기를 만날 기회가 되었습니다.



3중 멘토링
ZOOM을 통해 지도교수님, 전문가 멘토님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평소 전공에 대한 전망, 고민, 질문을 해결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항공재료공학과

1. 항공재료, 하늘을 날다 - 김지오멘토

항공재료, 하늘을 날다 - 항공재료공학과

‘항공재료, 하늘을 날다’ 라는 팀명은 미래에 비상할 재료공학과 새내기들의 굳은 의지를 의미합니다.

1. 멘토링개요

가. 활동목적

- (1)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활동했습니다.
- (2) 학과의 미래를 소개하고, 학업의 방향을 알려주고자 활동했습니다.

나. 멘토 및 멘티

- (1) 멘토 : 김지오
- (2) 멘티 : 박경서, 박성민, 박윤관, 박지환, 백태준, 석정원, 성정환, 양지원

다. 멘토링 활동

- (1) 활동횟수 : 총 5 회 이상
- (2) 멘토활동 상세일지

일자	시간	장소	활동내용
2020.08.25	14:00 ~ 15:00	zoom	처음 멘토-멘티가 zoom을 이용해 만났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짐
2020.08.28	17:00 ~ 18:00	zoom	멘토링활동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계획을 세웠고,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말해주며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짐
2020.10.10	17:00 ~ 19:00	zoom	항공기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와 항공기 구조 설계하는 데 필요한 지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
2020.10.20	18:00 ~ 19:00	zoom	지도교수님과의 만남을 갖기 전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들에 대해 의논함
2020.11.04	18:00 ~ 21:00	신촌	멘티-멘토가 처음으로 대면으로 만남. 학교 동아리와 대학생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등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통해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짐

2. 외부전문가 멘토링 활동

가. 간담회 일시 : 2020.11.14

나. 외부전문가멘토 소개

조운구멘토

삼성 SDI에서 양극, 음극, 전해액 등 음극 소재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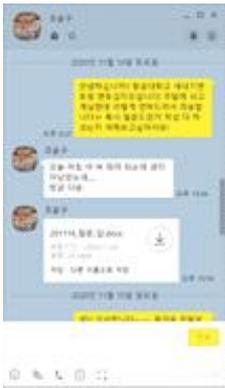
다. 활동내용

(1) 질의응답내용

Q. 재료공학과 졸업생이 취업을 하는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A. 기본적으로 전공은 깔고 가야함. 사실 자소서 쓸 때나 면접때 전공이라는 게 별 필요 없긴 한데 …….(직무면접제외) 기본적으로 전공성적 및 지식이 부족하면 애가 대학을 제대로 안다녔구나 라고 먼저 바닥에 깔고 가게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 직무면접때도 관련 질문 들어오면 당황하게 되어있음… 제 회사 들어가서 하는 업무와 전공지식이 100% 연관되는 일은 하긴 힘들긴 하지만, 일 하다 보면 전공책을 다시 들여다 보게 될 때가 있어서 전공이 중요하다고는 할 수 있음.

(2) 외부전문가멘토 조언

	
<p>코로나로 인해 만남은 갖지 못하고,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p>	<p>파일로 답변을 전달받았습니다.</p>

3. 지도교수 멘토링 활동

가. 간담회 일시 : 2020.10.26

나. 교수님소개 : 최용규교수님 (비정질재료, 광재료 연구)

다. 활동내용

(1) 질의응답내용

Q. 항공재료공학과와 다른 학교의 재료공학과와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A. 항공기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 배운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항공기 시장의 길이 좁고, 타학교와 다르게 특별한 것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학과 이름을 바꿀 예정입니다.

(2) 지도교수님 조언



교수님께서 연구하고 계신 분야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대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4. 우리가 희망한 활동

- 일 시 : 2020.10.10.(화) 17:00~19:00
- 장 소 : 온라인 ZOOM
- 주 제 : 비행기 모형을 제작
- 내 용 : 비행기 모형을 제작함.

항공재료로 사용되는 재료와 항공기 구조 설계하는 데 필요한 지식에 대해 이야기나눔.

※ 멘티 8명중 3명(박성민, 박윤관, 양지원)은 개별연락을 취하였으나 개인일정으로 불참 의견 전달함



만든 비행기를 서로 보여주며 자랑하는 모습입니다.

- 일 자 : 2020.11.04.(수)
- 장 소 : 신촌
- 활동내용 : 멘티들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신촌에서 만나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와 학업 고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신입생들끼리 친해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멘토팀과 함께 만남은 가졌습니다. 총 9명이었기 때문에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식사 시간 외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되기 전에 만남을 가졌습니다.)



신촌 빨간 잠만경에서 만났고, 대면으로 만나서 반가운 마음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 일 시 : 2020.10.18.(화) 24:00~
- 장 소 : 모바일 카트라이더 마이룸
- 주 제 :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친목도모
- 내 용 : 직접 만나 학교 동아리와 경험에 대해서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멘티들과 함께 모바일 게임하고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 멘토링 참여소감

멘토 김지오 - 온라인으로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친해질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편하게 생각해주고, 다가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멘티 1 박경서 - 학교를 다니면서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는 많은 공모전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ex. 록히드마틴 공모전)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으로 만날 수 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비대면으로도 모형 항공기 만들기 등 여러 활동을 하며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도교수님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학과의 실습 종류가 왜 다양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재료의 종류에 따른 다양한 진로를 탐색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멘티2 박성민 - 개인사정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진 못했지만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려고 노력하셨던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멘티3 박윤관 - 알바 때문에 선배님을 뵙지 못해서 아쉽지만 취업관련해서 질문했을 때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멘티4 박지환 - 후배들을 챙겨주려고 하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멘토링이 끝나고 도 이 관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멘티5 백태준 - 항상 질문에 빠르게 답변해주셔서 좋았습니다.

멘티6 석정원 - 한학기동안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선배에게 경청하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멘티7 성정환 - 대외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많이 주시고, 학과 관련된 수업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셔서 좋았습니다.

멘티8 양지원 - 전문가 멘토링으로 학과에서 뭘 배우는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6. 3중 멘토 개인별 성과

- 김지오 멘토 : 새내기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하면서 저의 대학 생활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1학년때 못해서 아쉬웠던 것들을 중심으로 멘티들에게 조언을 해주었지만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재료공학과 20학번 멘티들에게 도움을 준 만큼 우리 멘티들도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멋진 선배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경서 멘티 : 학교를 다니면서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는 많은 공모전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ex. 록히드마틴 공모전)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으로 만날 수 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비대면으로도 모형 항공기 만들기 등 여러 활동을 하며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도교수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학과의 실습 종류가 왜 다양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재료의 종류에 따른 다양한 진로를 탐색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석정원 멘티 : 학과를 졸업하면 내가 어디로 취업을 할 수 있을지 궁금했는데 전문가 멘토님과 지도교수님께 학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 성정환 멘티 :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서 학과에서 뭘 배우는지, 미래 진로를 위해 뭘 해야 하는지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7. 멘토활동 포스터

한국항공대학교 새내기 멘토링

항공재료, 하늘을 날다

멘토 김지오 멘티 박경서 박성민 박윤관 박지환 백태준 석정원 성정환 양지원



새내기 친목도모
친구들아 안녕 ~
나는 항공대새내기야 9(/ ◻ - *) 9

전문가 멘토링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선배님의 조언 덕분에
해결할 수 있었어요!
회사에서 보요 선배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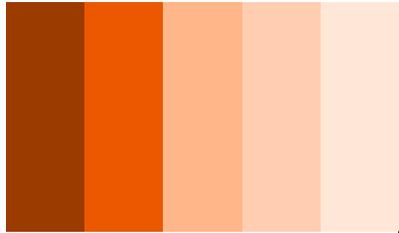


우와~ 항공재료공학과
배울 수 있는 것도 많고
너무 좋다

항공대 정말 매력있어!!!



지도교수님 간담회
교수님!
항공재료공학과는 뭘 배우나요?



항공교통물류학부

1. 코로나 없애조 - 강보경멘토
2. 이쇼멘 - 이시연멘토
3. 신나는 1학기, 끝까지 오래가는 DURACELL- 남승연멘토

코로나 없애조 - 항공교통물류학부

코로나로 인해 활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도 멘토링 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함.

1. 멘토링개요

가. 활동목적

- (1) 코로나로 인해 활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온,오프라인 활동을 진행하여 친목 도모 기회 제공
- (2) 학교 생활과 전공 선택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제공

나. 멘토 및 멘티

- (1) 멘토 : 강보경
- (2) 멘티 : 김준영, 김준휘, 김채런, 김채린, 김태홍, 김하진, 김현수, 김현지, 김형태, 도연지, 문상윤

다. 멘토링 활동

- (1) 활동횟수 :
- (2) 멘토활동 상세일지

일자	시간	장소	활동내용
2020.09.11. ~09.13	00:00 ~ 24:00	카카오톡 채팅방	설문조사를 통해 앞으로의 멘토링 방향을 결정하고 익명채팅방에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친목 도모 시간을 가짐.
2020.09.13		카카오톡 채팅방	멘티들에게 학사일정과 참가할 만한 공모전에 대한 정보를 카드뉴스로 만들어 제공.
2020.10.09. ~10.10	19:00~08:00	파티룸	다른 항공교통물류학부 멘토링 팀과 연계하여 같은 학부 학우들과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생활 팁 및 전공 선택에 대한 조언 제공.
2020.12.23. ~12.24	00:00 ~ 22:00	카카오톡 채팅방	다른 멘토링 팀과 연계하여 크리스마스배 모바일 게임 팀전 대항전 진행.

2. 외부전문가 멘토링 활동

가. 간담회 일시 : 2020.11.16.(월) 오후 7시

나. 외부전문가멘토 소개 : 박보미멘토

△ 박보미 멘토님은 항공교통연구원으로 일하는 중으로 우리나라의 교통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는 곳으로 항공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 관련된 정책도 개발 중이시다.

△ 전문가 멘토 일터 소개

항공교통연구원은 4차산업, 도로교통물류, 철도 등 종합적으로 해양연구 관련 파트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연구를 수행 하는 곳이다.

다. 활동내용

(1) 질의응답내용

Q1. 앞으로의 비전, 연구원으로 재직하는 것의 장점 등등

A1. 원래 연구원쪽으로 적성이 잘 맞았다. 연구원은 반복적인 일을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우리나라에서 먼저 이 부분을 연구해서 알릴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점 같다.

Q2. 적성이 필요할까요?

A2.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되는 것 같다. 물론 특출나게 적성에 잘 맞아서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어느정도 수준으로는 다 잘할 수 있고 적성보단 노력이 필요하다.

Q3. 재직 중 만족스러운 부분

A3. 반복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것, 연구원이 재직하는 곳이라 계급과 직급에 따른 제한사항이 심하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 이다. 공무원처럼 딱딱한 부분은 아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토론을 해주고 같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점이 좋은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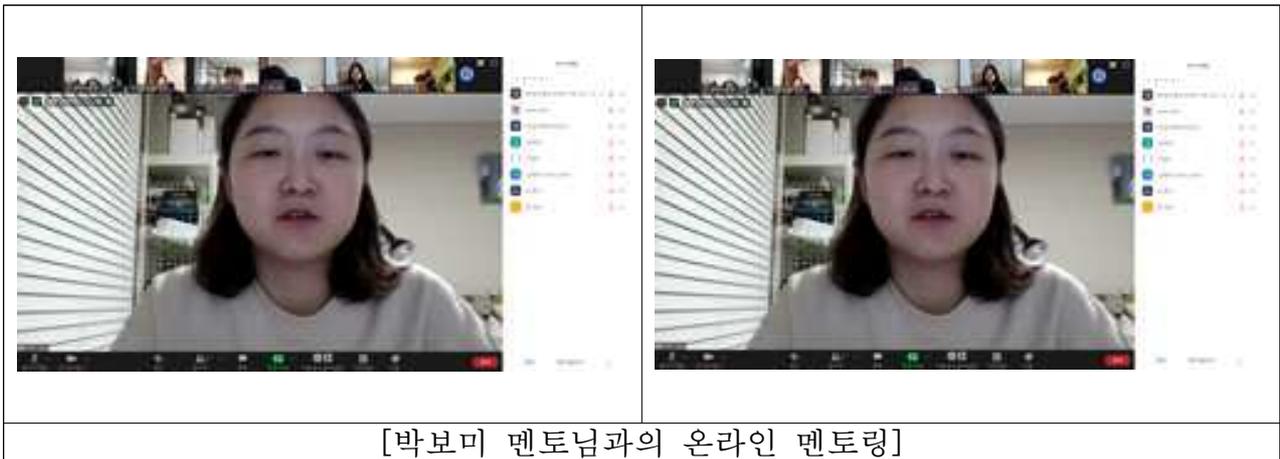
Q4. 연구직만의 고충, 견뎌야 하는 부분

A4. 1년 장기간에 걸쳐서 연구를 해서 정책을 개발해서 쫓는데, 현실적인 문제나 정치적 문제로 인해 실현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그럴때 약간 회의감이 들고 왜 일을 시키는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입법이 안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똑 같은 이슈가 또 생길 때 그때는 연구를 진행했던 것이

있으니까 편한 것 같다.

(2) 외부전문가멘토 조언

학부생 생활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외부활동.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을 나누고 다른 생각 관점을 나누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학교 밖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우리학교 안에서는 너무 학교 안 생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으면 좋겠다.



[박보미 멘토님과의 온라인 멘토링]

3. 지도교수 멘토링 활동

가. 간담회 일시 : 2020.10.30.(금) 오후 7시

나. 교수님소개 : 항공교통전공 김휘양 교수님

현재 항공교통 전공에서 관제, 비행절차 등을 주로 가르쳐주시는 교수님입니다. 교수님이 되시기 전 국토교통부 관제사로서 비행절차를 설계하고 공역관련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다. 활동내용

(1) 질의응답내용

Q1. 앞으로의 관제사의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로나 이후 관제사 to전망이 어떻게 되나요?

A1. 앞으로 티오가 생길 것, 새내기들이 졸업할 때 썸엔 티오가 생길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은 하지 못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 썸은 코로나를 극복하여 항공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일 것이다. 계속 항공은 발전할 것이고 조만간 다시 좋아질 것이다. 관제사가 다시 늘어날 것이

나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관제사는 매년 20-30명을 뽑았었다. 한국 공항공사도 매년 5명씩은 뽑았었다. 원래 상황에는 고정적으로 관제만 봤을 때 계속 뽑을 것이다. 그리고 그 중 가장 경쟁력이 있는 학교는 우리학교이다. 현재 가장 좋은 학교는 한국항공대이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2) 지도교수님 조언

관제사로 일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내가 다른 일을 해보고 싶을 때, 다른 것을 못하고 관제만 해야 해서 답답하고 힘들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관제사가 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관제직으로 시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관제직으로 들어가면 다른 업무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관제를 하다 다른 곳으로 진출할 수 있으면 진출을 하라고 꼭 말을 한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나아가야할 지 잘 모르겠던 것 그게 가장 어려웠다. 능력껏 다른 곳으로 가봤으면 좋겠다.



4. 우리가 희망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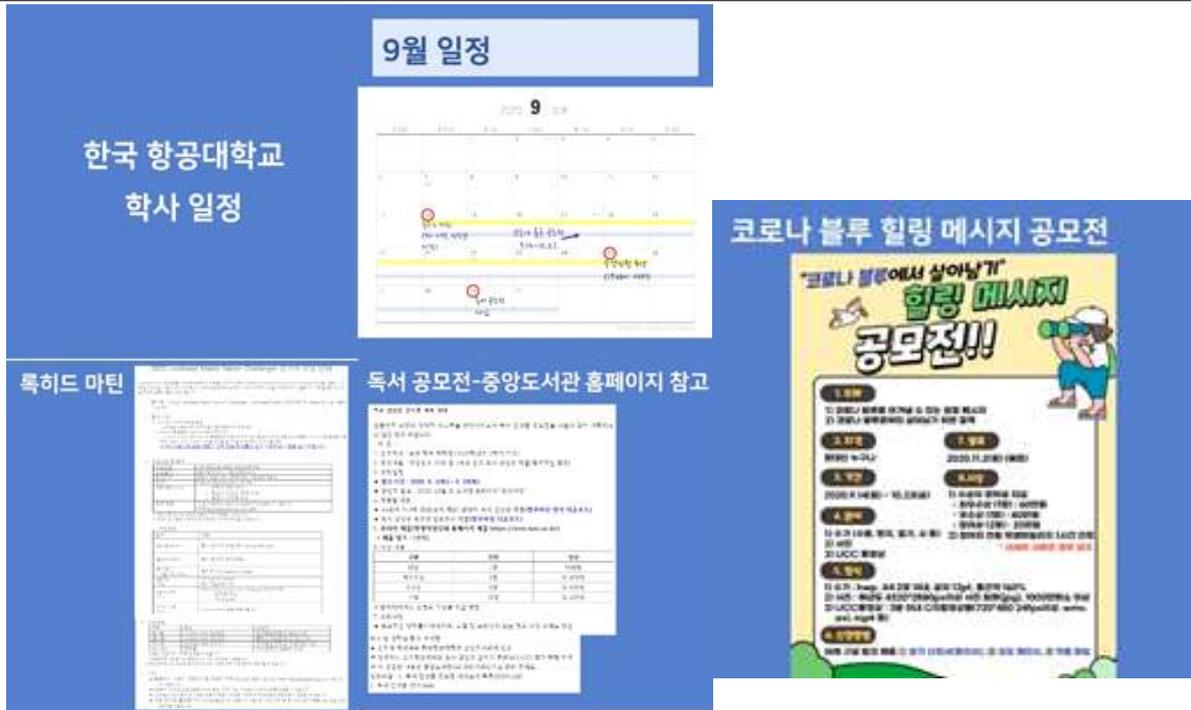
- 일 시 : 2020.09.11.(금) ~13(일)
- 장 소 : 온라인 활동으로 카카오톡 익명 오픈채팅방에서 진행
- 주 제 : 익명 채팅방에 서로 주말 일상사진을 공유하며 친해져 보자!
- 내 용 : 코로나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심해짐에 따라 오프라인 활동이 불가능하여 온라인 활동으로 먼저 서로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익명 오픈채팅방을 사용하여 부끄러움이 많아 실명 단톡방에서 아무 말도 하지못한 멘티들에게 좀 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진 공유=1점, 사진에 대한 멘트=1점 이렇게 점수를 매겨 경품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한 금요일에는 한 명의 멘티가 사진을 올리는데 끝이었으나 일요일에는 서로 일상 사진을 주고받고 서로에 대해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 전원 참석, 1~3등 카카오톡 기프티콘 제공



[익명 채팅방에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친목을 다지는 모습]

- 일 자 : 2020.09.13.(일)
- 장 소 : 카카오톡 채팅방
- 활동내용 : 멘티들에게 9월달 학사일정과 1학년 때 참가하기 좋은, 비교적 참여가 쉬운 교내 공모전이나 행사를 선정하여 카드 뉴스 형식으로 교내 공지와 함께 달력에 표시하여 알려주었습니다.



[카드뉴스를 통해 학사일정 공유]

- 일 자 : 2020.10.09.(금) / 2020.10.10.(토) 오전 8시
- 장 소 : 파티룸
- 활동내용 : 같이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는 향교물 멘토(박현호)와 함께 공동 MT를 주최하였습니다. 다행히 양쪽 모두 멘티분들에게 의견을 묻자 모두 찬성해 주셔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경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새내기분들에게 사전에 열이 나거나 아픈 분들은 불참할 것을 권고했고 입장하시는 새내기분들 모두 열 체크를 하고 손소독을 진행한 후 입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학교 생활 및 전공 선택에 대한 팁을 제공하고 서로 본 적이 없는 같은 과인 학우들과 친해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단체 사진



보드 게임을 즐기는 멘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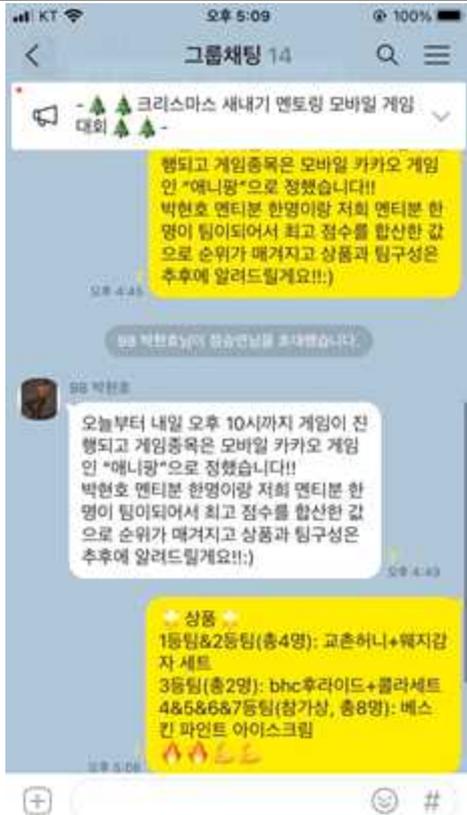


보드게임을 즐기는 멘티들



처음 왔을 때 사진은 못 찍었습니다.

- 일 자 : 2020.12.23(수) / 2020.12.24.(목)
- 장 소 : 카카오톡 채팅방 & 모바일 게임 (애니팡)
- 활동내용 : 10월에 같이 친목 MT를 기획했던 박현호 멘토와 함께 멘토들도 게임에 참가하여 박현호 멘토 팀 1명과 저희 멘토링 팀 1명이 팀을 이뤄 모바일 게임 대항전을 진행하였다.



[단톡방을 만들어 게임 규칙 설명]



[애니팡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 결정]

5. 멘토링 참여소감

- 강보경 멘토 : 처음에 멘토링을 시작했을 때는 본인이 멘티들을 도와주는 일방향적인 관계라고 생각했지만 멘토링을 진행하다 보니 오히려 멘티분들의 새로운 관점과 생각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본인에 대한 아무런 정보, 호감이 없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호감을 얻고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 김현수 멘티 : 코로나로 자주 직접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멘티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게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오픈채팅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대화를 했던 것도 처음 한 경험이었는데 멘티들과 관계를 다지는데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멘토가 비대면으로 어떻게 멘티들이 활발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신경썼다는게 느껴졌습니다. 연구원으로 일하고 계신 선배님과의 줌으로 한 면담에서도 멘토분이 멘티들의 질문을 모아 정리해서 해주셨던 것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한학기 활동을 거의 비대면으로 진행했음에도 전혀 부족한 점이 없었고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 김하진 멘티 : 이런 멘토링 활동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온라인 활동 오프라인 활동 모두 멘토님이 많이 고려해서 활동하여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대학친구도 생기고 학교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대학생활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채린 멘티 : 선배님들과 동기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좋았습니다.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도연지 멘티 : 1학기동안 다양한 범위에 걸쳐 도움이 많았지만 특히 현직에 계신 선배님과의 면담이 인상 깊었습니다. 평소에는 듣기 힘든 현직에서의 경험과 진로에 대한 깊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던 진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여러모로 힘든 점들이 많았지만 멘토링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 김형태 멘티 : 요번 학기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멘토링 활동으로 마음 편하게 많은 도움을 받았고, 좋은 추억도 많이 쌓여서 즐거웠습니다.
- 김채린 멘티 : 멘토링 수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과의 면담 시간이나 많은 행사들에 참여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워가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멘토 선배분께서 최대한 다양한 정보와 활동을 제공해주려고 하셔서 감사하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김현지 멘티 : 코로나 때문에 아쉬움이 많은 이 시기에 친구들 뿐만 아니라 선배들, 교수님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아주 뜻 깊었습니다.

6. 3중 멘토 개인별 성과

강보경 멘토 : 멘토링 활동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좋은 멘토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태홍 멘티 : 교수님과의 상담을 통해 진로 설정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김현수 멘티 : 현직 연구원으로 일하시는 전문가 멘토님과의 멘토링을 통해 진로를 선택하는데 조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도연지 멘티: 전문가 멘토님의 멘토링을 통해 평소에는 듣기 힘든 현직에서의 경험과 진로에 대한 깊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7. 멘토활동 포스터

코로나 없애조

-2020 2학기 새내기 성공센터 멘토링-

멘토 강보경

멘티 김준영 김준휘 김채련 김채린 김태홍 김하진
김현수 김현지 김형태 도연지 문상윤



2020.10.30

2020.11.16

3중 멘토링

- 외부 전문가 & 지도 교수님과의 멘토링
- 김보미 멘토님의 생생한 현장 경험
- 김휘양 교수님의 선배로서의 조언과 학교생활 팁

멘토 연계 MT

- 다른 멘토링 팀과 연계하여 MT 진행!
- 비대면 수업으로 만남적 없었던 같은 과 학우들과의 만남
- 학교 생활에 대한 궁금점 해결!

2020.10.9~10





2020.09.13

다양한 비대면 활동

- 익명 오픈 채팅방을 통해 어색함 없이 자유로운 소통
- 멘토 연계 크리스마스 배 게임 대회
- 비대면으로 안전하고 재밌게 친해질 수 있는 시간



이쇼멘 - 항공교통물류학부

ISSHOMEN은 ‘It’ s your mentor’ 의 줄임말로, 현직자 선배님들을 찾아 뵈어 ‘인터뷰’ 활동을 주로 하는 팀이다. Mentor는 3중 멘토인 학부 지도교수님, 현직 선배님, 재학생 멘토를 뜻한다.

1. 멘토링개요

가. 활동목적

- (1) 새내기 학우들의 학교 생활 적응 돕기
- (2) 새내기 학우들의 진로 설계 돕기

나. 멘토 및 멘티

- (1) 멘토 : 이시연
- (2) 멘티 : 유재경, 유태영, 윤성휘, 윤연섭, 윤재준, 이동욱, 이민재, 이상목, 이석진, 이성열

다. 멘토링 활동

- (1) 활동횟수 : 총 5회
- (2) 멘토활동 상세일지

일자	시간	장소	활동내용
2020.10.07	17:00~18:00	국립항공 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견학 및 조종관제체험
2020.10.16	16:00~18:00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인천국제공항공사 김영서 선배님과 인터뷰 및 인천국제공항 제 1 터미널 견학
2020.11.10	18:00~19:00	마곡나루 비엔나커피 하우스	국토교통부 관제사 황희주 선배님과 인터뷰
2020.11.20	14:00~18:00	국립항공 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제7회 UAM 학술세미나> 참석
2020.11.20	19:00~20:00	김포공항물 해븐온더탑	항공안전기술원 김주현 선배님과 인터뷰

2. 외부전문가 멘토링 활동

가. 간담회 일시 : 2020.11.16

나. 외부전문가멘토 소개 : 박보미멘토님

△ 하고있는일 :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연구원 직책을 맡고 계시며, 항공을 포함한 도로교통 관련 정책까지 아우르는 정책 개발 업무

△ 전문가 멘토 연혁 및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연구원 직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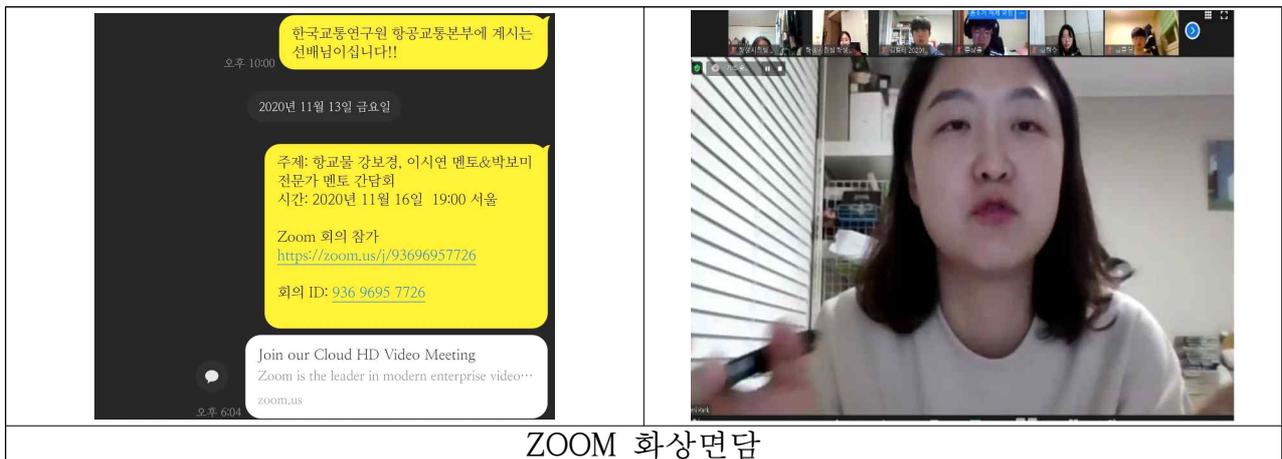
△ 학부 재학 시절 학습법 및 대외활동, 취업준비 관련 질문 및 답변

다. 활동내용

(1) 내 용

다양한 현직자 선배님과 인터뷰를 기획하고자 새내기성공센터 측에서 섭외 해주신 선배님 이외에도 평소에 친분이 있던 선배님들께 인터뷰 요청을 드렸다. 새내기들과 함께 인터뷰 질문지를 작성하고 졸업 후 오랜만에 뵙게 된 현직에 계신 선배님께 현직에 계시며 느낀 점, 취업준비과정, 새내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등을 소규모로 들을 수 있었던 인터뷰는 생각보다 훨씬 진로 설계와 학업에 동기부여가 되었다. 이러한 활동을 새내기 때부터 할 수 있도록 새내기성공센터가 설립되어 물심양면으로 멘토와 멘티들을 지원해주신 것에 감사함과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전공선택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된 새내기 멘티들에게 부러움을 느꼈다. 이러한 과정에 멘토로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뜻 깊었다.

(2) 외부전문가멘토 조인



ZOOM 화상면담

3. 지도교수 멘토링 활동

가. 간담회 일시 : 2020.10.23. 15:00 ~ 16:00

나. 교수님소개 : 항공교통물류학부 송보미교수님

한국항공대에서 O.R 응용, 컴퓨터프로그래밍, 항공교통물류정보 개론 과목을 담당하고 계심, 주요 경력으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에서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심

다. 활동내용

(1) 질의응답내용

물류 전공의 현직자 선배님들을 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학부전공설명회’를 소개하시며, 이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심

(2) 지도교수님 조언

1-2학기를 맞이하는 새내기 학우들이 앞으로 학교 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 학업과 진로 탐색, 대외활동의 균형을 맞추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심



[항공교통물류학부 송보미 지도 교수님 간담회]

4. 우리가 희망한 활동

- 일 자 : 2020.10.07 / 2020.11.20
- 장 소 : 국립항공박물관
- 활동내용 :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조종관제체험을 현직 조종사/관제사로 계셨던 분들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제7회 UAM세미나>에 새내기 학우들과 함께 참여하였는데, 우연히 항공대 교수님을 만나 뵈어 반갑게 인사 드렸던 것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국립항공박물관 조종관제체험]



[제7회 UAM 학술세미나 참석]

- 일 시 : 2020.10.16(금) 18:00 ~ /2020.11.10.(화) 18:00~
- 장 소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마곡나루 카페 비엔나커피
- 활동내용 : 전문가 멘토와 인터뷰 후 멘티들과 인터뷰 내용 관련 담소 및 피드백
- 참여인원 : 멘토 포함 3명/ 멘토 포함 3명



[인국공 선배님 인터뷰]



[국토부 관제사 황희주 선배님 인터뷰]

- 일 시 : 2020.11.20 (금)
- 장 소 : 김포공항 롯데월드몰 헤븐온탑
- 활동내용 : 전문가 멘토와 인터뷰 후 멘티들과 인터뷰 내용 관련 답소 및 피드백
참여인원 : 멘토 포함 3명/ 멘토 포함 3명



[항공안전기술원 선배님]



[식사 및 답소]

5. 멘토링 참여소감

이상목 멘토 : 코로나로 인해 새내기 생활을 하나도 못 즐긴 새내기로 생활하면서 멘토 멘티활동은 할 수 있던 새내기다운 활동이어서 좋았습니다.

이다은 멘티 : 대면 활동에 참가를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많은 걸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유재경 멘티 : 멘토링 활동으로 학교 생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전공을 선택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활동인 것 같다.

유태영 멘티 : 학교에 대한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이민재 멘티 : 대면 활동을 많이 못해서 아쉬웠지만 배운 점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윤재준 멘티 : 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어 좋았다.

이석진 멘티 : 대면 활동을 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여러가지를 배울 수 있었다.

이동욱 멘티 : 멘토멘티 활동을 통해 여러가지를 배울 수 있었 좋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보다 다양한 활동을 하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윤연섭 멘티 : 다양한 분야의 선배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6. 3중 멘토 개인별 성과

멘티 이상목 : 항공교통전공으로 갈 것입니다.

멘티 윤재준 : 아직 교통과 고민중이지만 물류에 관심이 많다. 교통 분야의 전망을 어둡게로만 생각했지만 다시금 생각해보게 했다

멘티 이동욱 : 항공교통전공으로 갈지 물류전공으로 갈지 아직 고민중입니다
교통분야에 관련된 여러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고 지금 당장의 전망이 아닌 보다 나중의 전망에 대해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멘티 유태영 : 물류 전공을 선택할 것 같다. 다양한 취업 루트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멘토 윤연섭 : 항공교통전공을 통해 진로를 결정하고 싶고 관제사를 꿈꿔왔지만 항공교통과 관련된 직무라면 상관없이 수행해보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나보다 먼저 경험해본 선배님의 의견으로 삶의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멘티 이석진 : 항공 교통쪽으로 생각하고있었지만 최근 물류쪽으로 생각을 바꿨다. 벌써부터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꼭 해야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멘티 이민재 : 물류로 갈 것이고 이후의 진로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얻을 수 있었다

멘티 이성열 : 물류로 갈것이다. 취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었다.

멘티 이다은 : 항공교통 전공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항공운항관라사 분야로 고민중입니다. 교통분야의 미래 전망에 대해 알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멘티 유재경 : 물류 전공으로 갈 것을 희망하고 있다.인터뷰를 통해 평소에 잘 몰랐던 분야의 일을 접하게 되면서 취업에 대한 시야가 넓어졌다.

멘티 윤성휘 : 아직 고민 중이나 물류 쪽에 좀더 관심이 있습니다. 군문제나 향후 대학 생활에 관심이 많았는데 1년, 2년 후 일정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획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7. 멘토활동 포스터

2020-2학기 멘토링

항공안전기술원
김주현 선배님과의
인터뷰

국립항공박물관
<제7회 UAM 학술세미나>
항공대 교수님과 만남

국립항공박물관
조종관제체험
견학 및 체험



신나는 1학기, 끝까지 오래가는 DURACELL - 항공교통물류학부

이번 2학기 동안 화끈하게 활동하자는 의미에서, 건전지 Duracell의 슬로건을 모티브

1. 멘토링개요

가. 활동목적

- (1) 선후배간 친목도모 및 학교생활 완벽 적응
- (2) 학과 및 진로의 이해

나. 멘토 및 멘티

- (1) 멘토 : 남승연
- (2) 멘티 : 조영민, 조유정, 진의진, 차민수, 최지오, 최진주, 하웅빈, 하현정
한민아

다. 멘토링 활동

- (1) 활동횟수 : 대면 및 비대면 상시 운영
- (2) 멘토활동 상세일지

일자	시간	장소	활동내용
2020.09.01. ~09.11	오후	온라인	이번 학기 더욱 만족스러운 멘토링 활동과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익명 설문조사를 통해 멘티들의 의견을 물음. 희망하는 활동빈도와 방식(비대면/대면), 이번 학기 바라는 활동에 대한 의견을 들어봄으로써 전반적인 멘토링 활동방향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됨.
2020.09.28	오후	온라인	Zoom 화상미팅을 통해 1학기 종강 이후의 서로의 근황을 전함. 희망하는 멘토링 활동 방향에 대한 익명 설문결과를 공유하며, 멘토링 활동 목표와 방향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짐. 또한 성공적인 멘토링 활동을 위하여 3팀(총무팀, 기획팀, 촬영팀)으로 역할을 분담함.
2020.10.05	오후	신촌역 인근 카페	교내 KAU 선배 멘토링 프로그램(인천국제공항공사 계류장관제팀)에 함께 참여함. ‘인

			천국제공항공사' 와 '계류장 관제' 의 직무를 이해하고, 입사를 위하여 대학생활동 중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짐.
2020.10.30	오후	신촌역 인근 파티룸	학기 초 활동방향에 대한 설문 결과, 많은 의견을 받았던 MT를 통해 친목을 도모함.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씻기, 개인 접시에 반찬덜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되었으며, 비대면 활동을 통해서도 공유하기 어려웠던 학기 중 고민을 진지하게 얘기해 볼 수 있었음.
2020.11.24. ~12.06	오후	온라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최한 공항 산업기술에 관련한 온라인 전시회를 참여한 후, 각자 관심있게 본 기술을 다른 멘티들에게 소개하고 후기를 공유함. 이를 통해 최근 공항산업 동향의 이해, 개개인의 관심 분야에 대한 흥미 고취 및 진로 설계를 도움.
2020.12.08	오후	온라인	기말고사를 앞두고 Zoom 화상만남을 통해 야식을 먹으며 공부 중 어려운 부분과 시험 공부의 고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 활동비로 일정금액을 지원하여 각자 주문한 음식을 함께 먹으며, 더운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 나눌 수 있었음.
상시	-	온라인	학기 중 진행되는 교내 취업프로그램은 물론, 국토교통부 등의 국가기관에서 주최하는 취업 및 항공산업 박람회를 공지함(항공&관광 회복전략 토론회, 제 11회 항공산업전망 세미나, 2020 항공산업 일자리 박람회 등). 이를 통해 항공산업에 대한 이해와 직무 이해 및 진로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2. 외부전문가 멘토링 활동

가. 간담회 일시 : 2020.11.26

나. 외부전문가멘토 소개

- 전문가멘토 전공 : 항공교통
- 전문가멘토 소개 : 한국공항공사, 도심항공교통추진단 재직중
- 하고있는일 : 국내 UAM 도입 및 상용화를 위한 시장 연구 등 사업 추진

다. 활동내용 : 질의응답

(1)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차이점, 특징

인국공은 계류장관계 업무만 평생, 교대근무 또한 필수사항. 싫은 상사를 계속 봐야하는 것이 단점. 반면 한국공은 월급이 적다. 그래도 다양한 부서에서 업무를 경험할 수 있음이 장점이다.

(2) 업무 중 위험했던 순간 또는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대구공항에서 근무시절, 항공기사고수습 훈련 중 드론 고장으로 실제 비행기에 충돌한 적이 있다. 비행기 가격이 상당해서 아찔했는데 다행히 큰 파손은 없었다.

(3) 한국공항공사 입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알바 포함해서 인턴, 여행, 연구보조원, 교수님들 국책과제연구 보조 등등 다해봐라.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 진로와 일치하는 경험이면 좋겠다.

블라인드 면접에서 이기려면 자소서가 중요, 자소서가 흥미로우려면 경험이 많아야 한다.

(4) 이외 다수 질의 응답 진행

(5) 외부전문가멘토 조언

	
<p>ZOOM 화면채팅</p>	<p>참여자 목록</p>

3. 지도교수 멘토링 활동

가. 간담회 일시 : 2020.10.27

나. 교수님소개

- 지도교수 전공 : 항공교통물류학부
- 지도교수 소개 : 통계학원론, ATC 컴퓨터프로그래밍 과목을 가르치시며 대학원 강의를 함께 맡고 계심
-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과제 : 시스템분석, AI, 시뮬레이션

다. 활동내용

(1) 질의응답내용

- 복수전공에 대해 추천하시는데 대한 의견
의미 있지만 2개의 전공을 함께 공부하는 것이 시간, 노력 등 쉽지 않을 것임. 고민이 된다면 언제든 찾아와라. 고민을 함께 해결해보자.
- 2학년으로 올라가기 전, 어떻게 의미 있는 방학을 보낼 수 있을지?
방학은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 따라서 학기 중보다 방학 때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 특히 대학교 방학 때만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 ① 공부비중을 조금 줄이고 인생에 대한 고민,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 ②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운동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찾아보자.
 - ③ 시간이 된다면 현재 떠오르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통계에도 관심 가져 보자.
 - ④ 어학은, 특히 영어는 매일. 그 중에서도 회화를 했으면 좋겠다.
 - ⑤ 봉사는 평생 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 코로나 19로 인해, 항공교통이나 물류 분야에 앞으로 생길 변화가 어떻게 궁금합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붐비는 국내선, 제주는 회복 중에 있으나 국제선이 문제가 된다. 국내 항공사들이 국제선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항공은 비즈니스 또는 관광목적의 수요가 대부분인데, 비즈니스는 비대면으로 대체 가능하지만 관광수요는 대체 불가능하므로 코로나로부터 안전이 확보된다면 관광목적의 항공수요는

곧 회복될 것이라 생각한다.

(2) 지도교수님 조언

1-2학기를 맞이하는 새내기 학우들이 앞으로 학교 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
학업과 진로 탐색, 대외활동의 균형을 맞추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심



ZOOM 채팅 화면

4. 우리가 희망한 활동

- 일 시 : 2020.09.01.-2020.09.11
- 활동내용 : 이번 학기 더욱 만족스러운 멘토링 활동과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익명 설문조사를 통해 멘티들의 의견을 물음. 희망하는 활동빈도와 방식(비대면/대면), 이번 학기 바라는 활동에 대한 의견을 들어봄으로써 전반적인 멘토링 활동방향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됨.

<p>20-2학기 새내기 멘토링 설문 응답 2</p> <p>희망 활동 빈도(복수선택) 응답 9개</p> <table border="1"> <thead> <tr> <th>빈도</th> <th>횟수</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주 2회 이상</td> <td>1</td> <td>11.1%</td> </tr> <tr> <td>주 1회</td> <td>4</td> <td>44.4%</td> </tr> <tr> <td>각주 1회</td> <td>4</td> <td>44.4%</td> </tr> <tr> <td>반달 1회</td> <td>3</td> <td>33.3%</td> </tr> </tbody> </table> <p>선호하는 활동 방식 응답 9개</p> <table border="1"> <thead> <tr> <th>활동 방식</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비대면(온라인)</td> <td>77.8%</td> </tr> <tr> <td>대면</td> <td>22.2%</td> </tr> <tr> <td>양면 교류</td> <td>0%</td> </tr> </tbody> </table>	빈도	횟수	비율	주 2회 이상	1	11.1%	주 1회	4	44.4%	각주 1회	4	44.4%	반달 1회	3	33.3%	활동 방식	비율	비대면(온라인)	77.8%	대면	22.2%	양면 교류	0%	<p>20-2학기 새내기 멘토링 설문 응답 3</p> <p>바라는 활동(객관식, 복수선택) 응답 9개</p> <table border="1"> <thead> <tr> <th>활동</th> <th>횟수</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MT</td> <td>5</td> <td>55.6%</td> </tr> <tr> <td>놀이공간</td> <td>6</td> <td>66.7%</td> </tr> <tr> <td>경제공헌방담기</td> <td>1</td> <td>11.1%</td> </tr> <tr> <td>출제장</td> <td>1</td> <td>11.1%</td> </tr> <tr> <td>찾은 회사</td> <td>1</td> <td>11.1%</td> </tr> <tr> <td>상황극/스튜디오</td> <td>1</td> <td>11.1%</td> </tr> <tr> <td>한정 차례</td> <td>6</td> <td>66.7%</td> </tr> <tr> <td>활동한 자리</td> <td>2</td> <td>22.2%</td> </tr> <tr> <td>이머저션</td> <td>1</td> <td>11.1%</td> </tr> </tbody> </table> <p>바라는 활동(주관식) 응답 9개</p> <p>상황이 나아진다면 간단한 캠퍼스..? 사람들아서 놀이공간은 무리더라도 MT는 한번쯤 가보고 싶어 유ㅠㅠ</p> <p>학교 학식 먹기(?) 크리스마스 파티 생일파티 연말파티 파티룸</p>	활동	횟수	비율	MT	5	55.6%	놀이공간	6	66.7%	경제공헌방담기	1	11.1%	출제장	1	11.1%	찾은 회사	1	11.1%	상황극/스튜디오	1	11.1%	한정 차례	6	66.7%	활동한 자리	2	22.2%	이머저션	1	11.1%
빈도	횟수	비율																																																				
주 2회 이상	1	11.1%																																																				
주 1회	4	44.4%																																																				
각주 1회	4	44.4%																																																				
반달 1회	3	33.3%																																																				
활동 방식	비율																																																					
비대면(온라인)	77.8%																																																					
대면	22.2%																																																					
양면 교류	0%																																																					
활동	횟수	비율																																																				
MT	5	55.6%																																																				
놀이공간	6	66.7%																																																				
경제공헌방담기	1	11.1%																																																				
출제장	1	11.1%																																																				
찾은 회사	1	11.1%																																																				
상황극/스튜디오	1	11.1%																																																				
한정 차례	6	66.7%																																																				
활동한 자리	2	22.2%																																																				
이머저션	1	11.1%																																																				
<p>희망하는 활동빈도와 방식에 대한 의견</p>	<p>희망활동에 대한 의견</p>																																																					

- 일 시 : 2020.09.28.
- 활동내용 : Zoom 화상미팅을 통해 1학기 종강 이후의 서로의 근황을 전함. 희망하는 멘토링 활동방향에 대한 익면 설문결과를 공유하며, 멘토링 활동 목표와 방향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짐. 또한 성공적인 멘토링 활동을 위하여 3팀(총무팀, 기획팀, 촬영팀)으로 역할을 분담함.



ZOOM 화상채팅 화면

- 일 시 : 2020.10.05.
- 장 소 : 신촌역 인근 카페
- 활동내용 : 교내 KAU 선배 멘토링 프로그램(인천국제공항공사 계류장관제팀)에 함께 참여함.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계류장 관제’의 직무를 이해하고, 입사를 위하여 대학생활중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짐.



KAU 선배 멘토링 참여



KAU 선배 멘토링 후 회식

- 일 시 : 2020.10.30.
- 장 소 : 신촌역 인근 파티룸
- 활동내용 : 학기 초 활동방향에 대한 설문 결과, 많은 의견을 받았던 MT를 통해 친목을 도모함.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씻기, 개인 접시에 반찬덜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되었으며, 비대면 활동을 통해서도 공유하기 어려웠던 학기 중 고민을 진지하게 얘기해 볼 수 있었음.



단체사진



주문한 음식 사진

- 일 시 : 2020.11.24.~2020.12.06.
- 활동내용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최한 공항 산업기술에 관련한 온라인 전시회를 참여한 후, 각자 관심있게 본 기술을 다른 멘티들에게 소개하고 후기를 공유함. 이를 통해 최근 공항산업 동향의 이해, 개개인의 관심 분야에 대한 흥미 고취 및 진로 설계를 도움.



후기 공모전 제작 포스터



후기 공모전 시상작 1

- 일 시 : 2020.12.08.
- 활동내용 : 기말고사를 앞두고 Zoom 화상만남을 통해 야식을 먹으며 공부 중 어려운 부분과 시험공부의 고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 활동비로 일정금액을 지원하여 각자 주문한 음식을 함께 먹으며, 더운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 나눌 수 있었음.



ZOOM 화상채팅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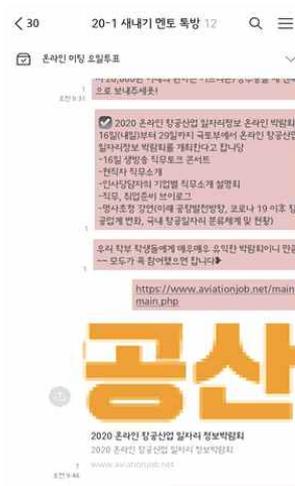


각자 먹은 음식사진

- 일 시 : 상시
- 활동내용 : 학기 중 진행되는 교내 취업프로그램은 물론, 국토교통부 등의 국가기관에서 주최하는 취업 및 항공산업 박람회를 공지함(항공&관광 회복전략 토론회, 제 11회 항공산업전망 세미나, 2020 항공산업 일자리 박람회 등). 이를 통해 항공산업에 대한 이해와 직무 이해 및 진로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제 11회 항공산업전망 세미나” 공지 (11.24)



“2020 항공산업 일자리 박람회” 공지 (12.15)

5. 멘토링 참여소감

- 멘토 남승연 - 1학년 친구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돕기 위해 시작한 멘토링 활동이었지만, 3중 멘토링과 멘티들과의 소중한 경험을 통해 더 큰 배움을 얻은 것 같다. 1년 동안 열심히 함께 해준 멘티 친구들에게 고마움이 크다.
- 멘티 조우진 - 비대면 환경에서 멘토&멘티 간에 소통을 통해, 새로운 학습환경과 학교 생활에 더욱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
- 멘티 조유정 - 좋은 멘토와 멘티들을 만나 비대면으로 인해 학교에서 느끼지 못했던 유대감, 얻기 힘들었던 각종 정보들을 알게 되어 좋았다.
- 멘티 진의진 - 코로나로 인해 아쉬움이 많은 1년이었지만 그래도 다양한 멘토링 활동을 통해 즐거운 대학생활을 경험할 수 있었다. 멘토인 승연언니도 취업 준비로 바쁘셨을텐데 우리 멘티들에게 엄청 신경써 주시는게 느껴져 정말 감사한 마음이 크다.
- 멘티 차민수 - 코로나로 인해 많은 만남과 연을 쌓진 못했지만 1년 동안 새내기 멘토링을 통해 여러 추억들을 쌓고 대학 생활에 도움이 되어 기억에 남는 1학년이 되어 좋았다.
- 멘티 최지오 - 1년 동안 새내기 멘토링을 통해 좋은 추억을 쌓게 되어서 정말 좋았다. 좋은 멘토 언니를 만나서 대학생활에 큰 도움을 얻었고 항상 우리들에게 잘해주고 노력해주시는 모습에 고마웠다.
- 멘티 최진주 -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잘 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학교와 학과를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또한 좋은 멘토분과 멘티 친구들을 만나서 더 행복했던 것 같고 우리끼리 친해질 수 있게 해준 멘토분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큰 것 같다.
- 멘티 하웅빈 - 1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교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양한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 멘티 하현정 - 1년 동안 좋은 멘토를 만나 알찬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 또한 낯선 대학생활에 조금 더 쉽게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준 프로그램이다.
- 멘티 한민아 -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학교를 가지 않아도 멘토님의 많은 도움과 좋은 멘티들 덕분에 그보다 더 가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1학년을 보낼 수 있었다.

6. 3중 멘토 개인별 성과

- 멘토 남승연 - 교수님과의 간담회, 외부 전문가 멘토님과의 만남 활동을 통해 학부에 대한 이해와 진로 설정에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공항공사 및 관제사 희망)
- 멘티 조우진 - 재학생선배 멘토와 전문가 멘토(한국공항공사, 아시아나 운항관리사), 항공물 학부의 교수님 멘토의 경험을 종합하여, 명확한 학습 방향을 확립할 수 있었다.
- 멘티 조유정 - 막연했던 진로의 틀을 잡을 수 있게 된 것 같아 좋았다.(관제사 희망)
- 멘티 진의진 - 온라인을 통해서 현재 공항에 근무하고 계시는 선배님들과 편하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진로 정보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됐다. (관제사 희망)
- 멘티 차민수 - 온·오프라인 활동들을 통해 졸업하신 선배님들과 교수님과의 소통으로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들을 얻으며 전공을 선택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되어 좋았다.
- 멘티 최지오 - 교수님과의 간담회에서 유익한 정보, 선배님의 인국공 온라인 특강, 공항산업기술 온라인 전시회 등으로 진로에 대해 더욱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공항공사 희망)
- 멘티 최진주 - 교수님과의 간담회, 항공교통 전문가 멘토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확실했던 나의 진로에 대해서 더 확실함이 생겼던 것 같다. 관제 분야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할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공항공사 및 관제사 희망)
- 멘티 하응빈 - 학교 선배의 다양한 조언을 통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 멘티 하현정 - 현직에서 근무하시는 선배님들을 만남으로서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볼 수 있었다. (물류 전공 희망)
- 멘티 한민아 -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하는 현직 종사자와의 만남과 질의응답, 조언 등을 통해 나의 진로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었다. (관제사 희망)

7. 멘토활동 포스터

신나는 1학년, 끝까지 오래가는

DURACELL



Member 멘토: 남승연, 17학번
멘티: 조영민, 조우진, 조유정, 진의진, 차민수,
최지오, 최진주, 하흥빈, 하현정, 한민아

활동소개

코로나로 인해 아쉬움이 많은 1년이었지만 그래도 다양한 멘토링 활동을 통해 즐거운 대학생활을 경험할 수 있었다. 멘토인 승연언니도 취업준비로 바쁘셨을텐데 우리 멘티들에게 엄청난 친절을 주시는게 느껴져 정말 감사한 마음이 크다.

01

"활동방향 설정"

- 1) 구글폼을 활용한 설문조사 진행
 - 희망하는 활동빈도
 - 선호하는 활동방식(비대면/대면/무관)
 - 거주 위치
 - 강의 시간표
 - 희망하는 활동
 - 멘토에게 바라는 점

모든 멘티들의 의견 반영!
익명 원칙으로, 솔직한 의견 수렴 가능

02

"백호종 교수님과 간담회"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인게든 괜찮으니 연락 달라.
좋은 인연을 많이 만들어보자.
-항공플 백호종 교수님



한국공항공공사, 유원규 멘토님

03

"전문가 멘토와의 만남"

- 1) 가능한 많은 멘토와의 만남 기회 확보
(① 한국공항공공사, ② 서울지방항공청, ③ 아시아나항공)
- 2) 1인 1질문 사전 질문리스트 전달
- 3) 비대면 진행시 **야식 지원!**
- 4) 활동 이후 Q&A를 정리하여 공유



보다 효율적인 활동 진행
선후배간 편안한 분위기 조성

04

"시험공부기간 야식미팅"

- 1) 인당 15,000원의 야식 지원
- 2) 화상만남을 통해 서로간 시험공부의 고충을 나누고 학습방향을 공유



05

"교내 프로그램 참여 독려"

- 1) 2학기 중 진행될 <KAU 선배 멘토링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
(인천국제공항공공사 계류장관제임 멘토,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 멘토)
- 2) 교내 취창업 프로그램 상시 공지
- 3) 교내 **마일리지 장학제도** 안내



06

"팀내 온라인 전시회 후기공모전"

- 1) 2020 공항산업기술 온라인 전시회 참여
- 2) 전시회 후기 공유 및 각자 관심있게 본 기술을 다른 멘티들에게 소개
- 3) 상금 총 100,000원 시상

최근 공항산업 동향의 이해, 개개인의 관심 분야에 대한 흥미 고취 및 진로 설계를 도움



07

"진로 관련 정보 공지 (상시)"

항공산업 관련 진행중인 행사일정 안내
-2020 공항산업기술 온라인 전시회
-항공수업원 회화제작 토론회
-제 11회 항공산업전망 세미나
-2020 온라인 항공산업 일자리정보 박람회

항공산업에 대한 흥미 고취, 희망직무에 대한 이해, 진로 탐색 및 목표 설정의 밑거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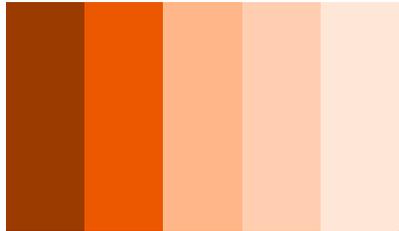


08

"Members Training"

- 1) 2학기 친목도모를 위해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며 진행

비대면 활동을 통해서도 공유하기 어려웠던 학기 중 고민을 진지하게 얘기해 볼 수 있었음



항공운항학과

1. 운율팀 - 최유리멘토
2. 파랑새 - 양영환멘토

운율팀 - 항공운항학과

운항학과 유리 팀이라는 뜻으로, 운율팀이라고 팀명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1. 멘토링개요

가. 활동목적

- (1) 코로나로 인해 학교 적응이 어려운 새내기들을 위한 멘토링
- (2) 진로를 정하고, 학업에 도움이 되는 멘토링
- (3) 동기와 선배와 친해질 수 있는 멘토링

나. 멘토 및 멘티

- (1) 멘토 : 최유리
- (2) 멘티 : 전찬웅, 임수환, 이호창, 장규민, 임권우, 이호형, 임승주, 이준후, 장한결, 전윤중

다. 멘토링 활동

- (1) 활동횟수 : 총 4회
- (2) 멘토활동 상세일지

일자	시간	장소	활동내용
2020.11.06	14:00~	화전동 인근 항공반점	김영진 선배님과 만남 후 바로 화전 맛집 탐방하기를 진행함. 원래는 따로 진행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한 대면 만남이 조심스러운 만큼, 만날 수 있는 날에 한꺼번에 두가지의 프로그램을 진행함. 학생들이 중식을 먹고 싶어했기 때문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화전동 맛집인 항공반점을 방문함.
2020.10.29	17:00~	화전동 인근 쭈삼	항공대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쭈삼을 새내기 친구들이 많이 먹고 싶어했음.
2020.10.29	19:00~	화전역 인근	원래 4/4 만우절에 과자를 입고 사진을 찍는 학교의 풍습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멘티들을 위해 다같이 과자를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2020.12.17	18:00	카카오톡	기말고사 깜짝 간식 이벤트

2. 외부전문가 멘토링 활동

가. 간담회 일시 : 2020.11.06

나. 외부전문가멘토 소개 : 대한항공 A380 부기장 김영진 선배님

다. 활동내용

(1) 질의응답내용

이호형 멘티

1. 영어, 건강 외에 앞으로 관리하면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것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항공대에서 조종사가 되지 못한 사례가 있나요?
3. CPC의 경우 항공사 별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영어 회화 공부방법이 궁금합니다. (어학연수? 독학?)
5. 필요한 스펙에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행시간 외 요인)

임승주 멘티

1. 조종사가 되기까지의 경험 중에 가장 인상깊었던 경험을 한가지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2. 현재 항공 쪽 상황을 보았을 때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 후배들을 위해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규민 멘티

1. APP 수료자 중 대한항공 공채에 붙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합격하기 어려운지도 궁금합니다.
2. 본인이 운항 할 기종은 본인의 선택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지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3. 비행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지금부터 대비해두면 극복이 가능할까요?
4. 몇몇 항공사들은 채용 조건에 겸업 금지가 걸려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대한항공도 겸업이 금지되어 있나요?
5. APP 과정을 밟고 대한항공에 입사하신 분들은 입사할 때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6. 대한항공 현직 분들 중에 라식이나 PRK 하신 분들이 어느정도 계신지 궁금합니다.

전윤중, 전찬웅

MPC 생활이 궁금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비행을 하고, 타임빌딩은 어느정도 할 수 있고, 부대는 어디로 배정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윤중

1. MPC는 따로 채용하는 전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선배님께서 체감하시는 현재 시장상황은 어떤가요?

#전찬웅

1. MPC 중간에 포기하시거나 그라운드 된 선배님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 현재 가장 메리트 있다고 생각하시는 길이 궁금합니다.

(2) 외부전문가멘토 조언

	<p>영어, 면접 피에 없으로 준비하면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p> <p>1</p> <p>이후장</p>	
<p>공통대체성 고용사자 지원지호원 자세가 있습니다.</p> <p>2</p> <p>이후장</p>	<p>MPC의 경우 항공사 별 배움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p> <p>3</p> <p>이후장</p>	<p>김영진 선배님께서 후배들을 위해 준비해주신 선물</p>
<p>영어 소위 공부방법이 궁금합니다. (비행장수) 목적지</p> <p>4</p> <p>이후장</p>	<p>필요한 스펙에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행 시간 제외)</p> <p>5</p> <p>이후장</p>	
<p>조용하다가 지원서류 작성 중에 기운 반영 되었던 것들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6</p> <p>이후장</p>	<p>현재 항공 쪽 것들을 모았을 때 어떤 것 시각하는 단계인 후배들을 위해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p> <p>7</p> <p>이후장</p>	
<p>활동 당시 사용한 PPT 일부</p>		<p>당일 활동사진</p>

3. 지도교수 멘토링 활동

가. 간담회 일시 : 2020.11.12

나. 교수님소개 : 항공운항학과 이장룡 교수님 (1학년 지도교수님)

다. 활동내용

(1) 질의응답내용

- 전찬웅 - 현재 경기도 덕양구의 원흥 기숙사에 지내고 있음, 평상시에 운동을 좋아해서 헬스하면서 지내고 있다. 기숙사 아래에 헬스장에서 한다. 2학년이 되면서 군조종사에 관심이 생겨서 현재 잘 알아보고있다. 중력가속도 훈련, 비상탈출 훈련 같은 것 경험을 여쭙보고 싶다.
- 임수환 - 대전에서 부모님과 생활, 화요일 오전 테니스 때문에 통학 중. 테니스 덕분에 운동을 소홀히 하는데 오히려 좋은 듯. 학기 끝나면 바로 군대 감. 도움이 되는 자격증 따고 정신도 재무장하려 함. 해군항공병으로 지원함. 온라인수업은 1학기 때는 힘들었는데 2학기 되니까 적응함.
- 임권우 - 원흥기숙사에 거주중. 학교갈 일이 없어서 혼자있는 일이 많아져 책을 많이 읽는 중임. 2학년 군대를 갈 예정. CPC에 더 관심이 많음. 1학기에 군대를 갈 것 같음.
- 장규민 - 학교 보잉데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본가는 수원이지만 서울에서 자취중. 비행기 모형을 만드는 것이 시간이 많이 든다. 온라인 수업은 만족하며 듣고있다. 녹화강의에서 교수님 목소리가 작다. 항공안전개론도 목소리가 작게 들린다.
- 이호창 - 행신동 가라피쪽에 살고 있다. 대면수업 2-3개 있어서 아침일찍 학교갔다가 와서 쉬고 공부하고 놀기도한다. 요즘은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 생물학의 이해, 테니스가 있다. 내년에 조종장학생 지원해보고 만약에 탈락하면 2학년 끝나고 군대에 갈 예정.
- 이호형 - 본가는 울산인데 1학기 때부터 학교기숙사에 살고있다. 테니스 대면강의로 듣고있다. 최근에 CPC로 확정을 지음. 코로나 때문에 통금시간이 11시라 불편하다.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좋은 것 같다. 군대는 내년 초에 갈 예정.
- 임승주 - 대면수업이 없어서 개인적인 약속이 없으면 학교를 잘 가지 않는

다. 최근에 밀린 강의가 많아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다. 코로나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MPC 한번 도전해보려고 한다.

이준후 - 학기 초에는 부산에서 살다가 테니스수업 때문에 서울에 거주중이다. 못만났던 친구들 만나고, 동아리활동 중이다. 학교동아리, 연합동아리 둘다한다. 일렉기타를 치고 있다. 규민이와 함께하는 중이다. 울진교관을 하고싶다. 영상소리가 잘 안들린다.

전윤중 - 인천에서 부모님과 거주중. 화요일 오전에 테니스수업을 듣는 중이다. 올해 MPC 51기에 합격했고, 대표를 맡고 있다. 명예위원장까지 생각하고 있다. 온라인수업에 적응을해서 딱히 불편한점은 없는 것 같다.

장한결 - 본가가 서울이라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 항공우주학개론이 대면수업이라 학교를 가고 있다. 입학할 때 부터 APP가 목표였다. 온라인 강의가 2학기 때부터는 시스템적인 어려움은 없다.

(2) 지도교수님 조언

각자 상황과 학교생활을 알 수 있어 좋았다.

온라인 수업의 마이크 소리가 작은 것을 전달하여 해결하도록 하겠다.

건강히 지내길



[새대기가 경청 중인 모습]



[교수님 말씀을 듣고있는 멘토와 멘티]

4. 우리가 희망한 활동

- 일 시 : 2020.10.29.(목) 17:00~
- 장 소 : 화전동 인근 쭈삼
- 주 제 : 화전 맛집 탐방하기
- 내 용 : 항공대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쭈삼을 새내기 친구들이 많이 먹고 싶어했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날을 잡아 화전동 인근 쭈삼에서 마음껏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멘티 10명중 8명(임수환, 이준후, 전윤중, 이호창, 임승주, 장규민, 이호형, 전찬웅) 참여



오프라인으로 처음 보는 날
먼저 도착한 멘티가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단독방에 공유한 화전역
내부 사진들

쭈삼을 먹기 직전에 7명의 멘티들과
멘토가 함께 찰칵!
한명은 늦게와서 단체사진에 참여하지
못함!

- 일 시 : 2020.11.6.(금) 14:00~
 - 장 소 : 화전동 인근 항공반점
 - 주 제 : 화전 맛집 탐방하기
 - 내 용 : 김영진 선배님과의 만남 후 바로 화전 맛집 탐방하기를 진행함.
원래는 따로 진행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한 대면 만남이 조심스러운 만큼, 만날 수 있는 날에 한꺼번에 두가지의 프로그램을 진행함. 학생들이 중식을 먹고싶어했기 때문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화전동 맛집인 항공반점을 방문함.
- ※ 멘티 10명중 8명(임수환, 이준후, 전윤중, 이호창, 임승주, 장규민, 이호형, 임권우) 참여



메뉴가 모두 나온 후에 찰칵!

- 일 시 : 2020.10.29.(목) 17:00~
- 장 소 : 화전역 인근
- 주 제 : 과잠입고 사진찍어보기
- 내 용 : 원래 4/4 만우절에 과잠을 입고 사진을 찍는 학교의 풍습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멘티들을 위해 다같이 과잠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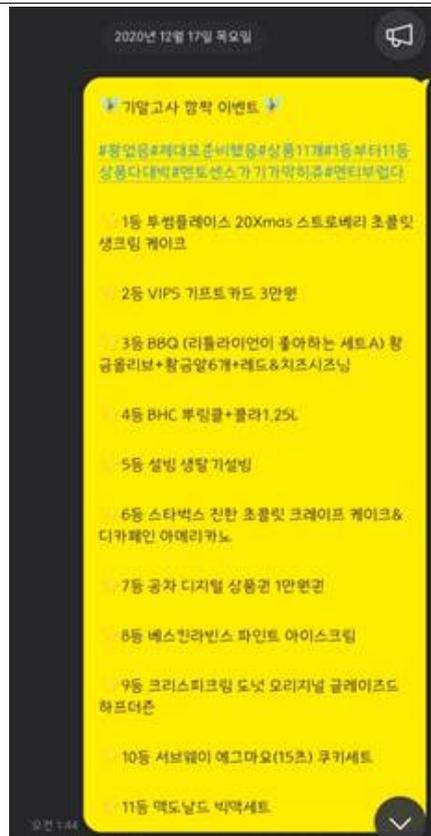
※ 멘티 10명중 8명(임수환, 이준후, 전윤중, 이호창, 임승주, 장규민, 이호형, 전찬웅) 참여



- 일 시 : 2020.12.17.(목)
- 장 소 : 카카오톡 단톡방
- 주 제 : 기말고사 깜짝 이벤트
- 내 용 : 기말고사 깜짝 이벤트
 - 1등 투썸플레이스 20Xmas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 케이크
 - 2등 VIPS 기프트카드 3만원
 - 3등 BBQ (리틀라이언이 좋아하는 세트A) 황금올리브+황금알6개+레드&치즈시즈닝
 - 4등 BHC 뿌링클+콜라1.25L
 - 5등 설빙 생딸기설빙
 - 6등 스타벅스 진한 초콜릿 크레이프 케이크&디카페인 아메리카노
 - 7등 공차 디지털 상품권 1만원권
 - 8등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
 - 9등 크리스피크림 도넛 오리지널 글레이즈드 하프더즌
 - 10등 서브웨이 에그마요(15츠) 쿠키세트
 - 11등 맥도날드 빅맥세트



1등부터 10등을 사다리타기로 정한 장면



기말고사 깜짝 이벤트 관련 공지



기말고사 깜짝 이벤트 상품 수령 후
인증 사진



멘티가 상품 수령 후 만족한다는 의미로
찍은 사진

5. 멘토링 참여소감

최유리 멘토 : 멘티보다 멘토가 배운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3중 멘토링은 멘티와 멘토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코로나가 없었던 때에는 선배님들과 교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코로나가 시작된 후 부터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1학년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나도 한층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동일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것 만큼 한번 더 열심히 활동해봐야겠습니다.

윤율팀은 10명의 멘티들과 1명의 멘토로 이루어진 팀 입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미팅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미팅이 많은 제약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지키며 오프라인 미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 주요 활동들에는 3중 멘토링, 화전맛집 탐방하기, 시험기간 간식뽑기, 과잠입고 사진찍어보기, 교수님과의 면담 등이 있습니다.

그 중 3중멘토링은 멘티들과 저에게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운항학과 특성상 모든 학생들의 희망 진로가 거의 동일합니다. 모두가 과일럿을 꿈꾸기 때문에 현직자 선배님과의 만남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1학기 때는 제주항공 소속 선배님과 온라인 만남을 가졌고, 2학기 때는 대한항공 소속 선배님과 오프라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온라인 만남 때는 접근성이 좋아서 모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현장감이 없어 멘티들이 집중을 잘 못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2학기 때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해서 바로 피드백이 가능하고, 좀 더 활기찬 분위기에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힘들어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화전 맛집 탐방하기와 과잠 입고 사진찍어보기는 멘티들에게 동기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항공대학교에서 4월 1일 만우절에 과잠을 입고 송골매 동상 앞에서 동기들끼리 사진을 찍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사진을 찍지도 못하고, 과잠을 입을 기회조차 없어서 멘티들이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잠을 입고 사진을 찍을 날을 정했고, 시간이 되지 않거나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학교에 오기 힘든 멘티들을 제외한 멘티들이 모두 학교에 와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화전 맛집은 총 두군데를 갔습니다. 첫번째 맛집은 많은

항공대학생이 좋아하는 주삼과 두번째 맛집은 항공반점였습니다. 모두가 맛있게 먹었고, 다시 올 때는 마스크 없이 왔으면 좋겠다고 모두 입을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2018년 새내기 시절 저는 아는 선배도 없고, 멀리서 와서 많이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멘티들이 외롭지 않고, 궁금한 점을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새내기성공센터가 신입생들의 학교적응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멘티1 이호창 -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제약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멘토님과는 별개로 이런 제약으로 인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치만 좋은 멘토님을 만나고 친절한 친구들과 활동을 했다는것에 감사합니다. 같은 팀 친구들과 가까워졌고 재밌는 추억도 생겼습니다. 멘토링 활동이 아니었다면 작년은 정말 심심하고 재미없었던 학기로 기억됐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멘티2 장규민 - 멘토 선배님 덕분에 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고, 동기들과도 많이 친해졌고, 공부 조언까지 얻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뜻깊은 1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올해 후배가 생기면 멘토 선배님께 도움받은 만큼 후배들도 잘 챙겨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멘티3 이호형- 코로나 시국으로인해 동기들을 볼 기회가 적었지만 이 활동이 큰 다리 역할을 해주어 동기들과 친목도모와 많은 정보 교환을 할 수 있었던 유익한 활동이었습니다.

멘티4 전윤중 - 코로나로 인해 많은 활동을 하지는 못했지만 유리 선배님 덕분에 좋은 추억이 쌓여서 기쁩니다! 선배님께서 잘해주신만큼 저도 이번 21년도에 후배들에게 많은걸 베풀어주는 좋은 선배가 되겠습니다. 1년동안 저희 팀을 위해 노력해주신 유리선배님 감사합니다!!

멘티6 임권우 - 새내기 멘토링이 없었다면 정말 힘든 새내기 시절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족보와 정보를 주신 선배님께 감사하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멘티7 임수환 -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갈 계획이 항상 있었어서 1학년 때의 새내기 멘토링 활동이 너무 소중한것 같습니다. 이 활동이 아니었다면 많은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멘티8 임승주 - 선배님과 동기들이랑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운항학과 출신 대한항공 부기장님을 만나 멘토링을 할 수 있었던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생겨서 정말 좋습니다!

멘티9 장한결 - 정보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데 새내기 성공센터 멘토링을 통해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선배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멘티10 전찬웅 - 진로를 고민하는 새내기 때 이러한 활동이 있어서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이 활동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 3중 멘토 개인별 성과

- 최유리 멘토 : 그 중 3중멘토링은 멘티들과 저에게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운항학과 특성상 모든 학생들의 희망 진로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 멘티1 이호창 - MPC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도전해보고 진로를 결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멘티2 장규민 - 원래 CPC에 관심이 있었는데 3중 멘토링을 통해서 확고하게 CPC의 길로 가기로 다짐했습니다.
- 멘티3 이호형- cpc와 mpc에 대한 진로 고민 중 새내기 성공센터의 프로그램의 일환인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직접 현 대한항공 부기장님을 뵈면서 cpc에 대한 확고한 진로를 설정할 수 있었으며 더불어 앞으로의 학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활동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 멘티4 전윤중 - MPC에 이미 선발이 된 만큼 MPC의 길로 걸어나갈 예정입니다!
- 멘티5 이준후 - MPC와 CPC 모두 고려 중이다.
- 멘티6 임권우 - MPC, CPC 모두 고려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다. 계속 생각해 볼 계획이다.
- 멘티7 임수환 - CPC로 마음을 먹게 되었다. 군대를 다녀온 후 CPC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멘티8 임승주 - MPC에 조금 더 관심이 생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두개의 길 모두 고려해보고, 신중하게 나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다.
- 멘티9 장한결 - MPC에는 관심이 아예 없다. CPC로 조종사가 될 수 있도록, 정해진 커리큘럼을 잘 해낼 것이다.
- 멘티10 전찬웅 - MPC를 준비 중이다. 2021년에는 MPC에 합격을 해서 공군조종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7. 멘토활동 포스터



슬기로운 새내기생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항공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새내기 성공센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됩니다!

친목활동, 진로 고민, 족보까지 잡을 수 있는 활동!

운율팀은 덕분에 1년을 알차고 즐겁게 보낼 수 있었답니다!

MENTOR 최유리 MENTEE 이준후 이호창 이호형 임권우 임수환 임승주 장규민 장한결 전윤중 전찬웅



01 화전역 맛집 탐방

학교에 방문할 기회가 적은 새내기들을 위한 맛집 탐방!



02 과잠 입고 사진찍기

새내기의 상징! 과잠입고 사진찍기 우리도 해봤다!



03 교수님과 비대면 면담

코로나로 인해 ZOOM으로 비대면 단체 면담을 진행!

파랑새 - 항공운항학과

파랑새라는 팀 명은 ‘과일럿이 될 낭랑한 새내기들’ 을 의미한다

1. 멘토링개요

가. 활동목적

- (1) 진로의 구체화
- (2) 학과 선 후배 간 유대감 형성

나. 멘토 및 멘티

- (1) 멘토 : 양영환
- (2) 멘티 : 정선호, 오다쉬보예프, 정원제, 조민석, 조현진, 주기범, 차종선,
최인석, 홍예은, 황보민제

다. 멘토링 활동

- (1) 활동횟수 : 대면활동 2회 및 온라인활동 다수
- (2) 멘토활동 상세일지

일자	시간	장소	활동내용
2020.11.23.	16:00 ~ 18:00	카페, 집	멘토링 2학기 주제인 ‘진로의 구체화’ 에 맞게, 모의 시뮬레이터 체험과 함께 항공지식 관련 간단한 사전과외를 진행하였다. 1학년 전공지식에 심화하는 부분들도 있어, 초기 멘티 친구들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동영상과 사진을 활용하여 목표한 내용을 모두 이해하는 성과를 이뤄 내었다.
2020.9~12	3차례 진행	온라인	아이패드를 활용하여 한 가지 항공 주제에 관한 비행 자료를 멘토가 제작하여, 단체 카톡방에 올렸다. 이 자료를 2주동안 멘티들이 공부하고 2주 뒤 멘토가 문제를 만들어 단톡방에 정해진 시간에 올리면, 첫번째로 그 문제를 다 맞춘 멘티에게 기프티콘 을 선물하였다

2. 외부전문가 멘토링 활동

가. 간담회 일시 : 2020.10.14.(수) 18:00 ~ 20:30

나. 외부전문가멘토 소개 : 대한항공 훈련 부기장 이서현 멘토님

다. 활동내용 : 질의응답 및 멘토조언

Q. 혹시 중간에 눈이나 체력이 나빠져 비행을 못 하게 된 사례가 있나요?

A. 아직 주위에 그런 사례를 본 적 없습니다.

Q. 교관이 되기 전까지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A.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신입생들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Q. 교관 과정을 거치게 되어 교관이 되면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A. 교관이 되면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비행을 가르쳐야 해서 공부량은 늘어나지만, 돈을 받으며 시간을 썩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항공사 입사 시에 항공대 항공운항학과라는 이유로 약간의 호감? 면접관들의 믿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선배님 동기 중에 혹시 국내 항공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외항공사로 취업한 경우가 있나요?

A. 바로 해외로 취업한 사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Q. 졸업하시고 이제 취업하셨는데 이제 운항학과에 입학하게 된 신입생들에게 경험에서 나오는 당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공부할 때 수업 시간에 놀고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공부하는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학년이라고 너무 놀지 말고 수업 시간에는 집중하고 시험 기간에는 적당히 공부해서 어느 정도 학점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비행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과목들은 더욱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학업적인 측면에서 영어 공부를 회화든 토익이든 몰아서 하지 말고 차근차근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여행을 많이 가본 거 같지 않은데 학생 때 친구들이랑 여행가는 경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동기들이나 다른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좋은 추억도 많이 쌓으면서 재밌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Q. 항공사 입사 시에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서 부여되는 점수가 달라질 수 있나요?

A. 항공사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역시 우리가 했던 신체검사와 마찬가지로 합

격 불합격만 존재합니다. 따로 신체가 더 건강하다고 점수를 더 주거나 덜 건강하다고 점수를 못 받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서현 훈련 부기장님과 함께한 다과회

3. 지도교수 멘토링 활동

가. 간담회 일시 : 2020.11.11.(수) 12:00 ~ 13:00

나. 교수님소개 : 항공운항학과 이장룡 교수님

공군 사관학교 졸업 후 항공안전이라는 분야에 대해 공부하시고, 공군 항공안전단에서 근무. 전역 후 현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운항학과 교수님으로 2년째 근무 중.

다. 활동내용 : 질의응답 및 지도교수님 조언

이번 간담회에서는 크게 교수님께서 1) 가을학기를 지나면서 학교 및 현재 생활 2) 애로사항 3) 2학년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설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학생들에게 질문하셨다.

현진 : 생각보다 공부량이 많고, 이과과목들이 많아 공부의 난이도가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쉴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제 : 학교를 왔다 갔다 하지 못해서 편한만큼, 그게 좀 아쉽습니다. CPC로써 군대 문제 해결 필요하기에 학교 끝나고 군대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다리를 다친 상태라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호 : 오프라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온라인 수업을 통해 효율적인 시간분

배 가능한 것 같습니다. 공부하면서 이과과목들 공부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석 : 온라인 수업을 통해, 수업 복습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과 과목 어려워서 학교 공부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예은 : 온라인 수업에 적응해서 이제는 학교 생활이 많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민석 :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개인시간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MPC를 지원해보고 안되면 군대를 다녀올 생각입니다.

민제 :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시간동안 많은 것을 해볼 수 있었던 게 좋았으나, 이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스스로 나태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교양 과목의 깊이가 너무 깊어, 상대적으로 내용이 많아 힘든 것 같습니다.

종선 : CPC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 입대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통해 시간관리를 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스스로 조금은 나태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기범 : 토익 점수를 따서 MPC를 신청해 볼 계획입니다. 온라인 수업이 길어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긴장감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과제나 수업을 미루는 경향이나 습관을 고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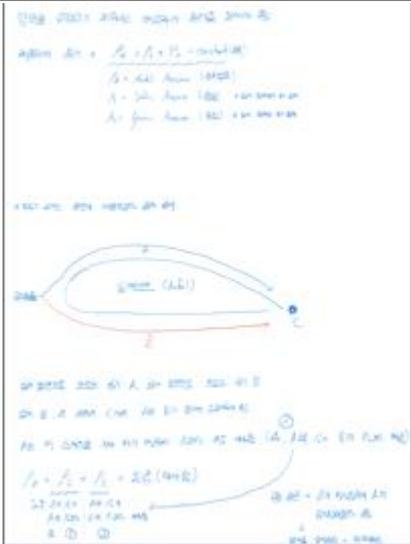
민호 : 오프라인 수업을 듣고 싶습니다. 언어적인 문제와 함께, 바로 교수님께 질문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지도교수님과 ZOOM을 활용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

4. 우리가 희망한 활동

- 일 시 : 2020 9월 ~ 12월 까지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3차례 진행
- 장 소 : 카카오톡(온라인)
- 활동내용 : 아이패드를 활용하여 한 가지 항공 주제에 관한 비행 자료를 멘토가 제작하여, 단체 카톡방 올렸다. 이 자료를 2주동안 멘티들이 공부하고 2주 뒤 멘토가 문제를 만들어 단독 방에 정해진 시간에 올리면, 첫번째로 그 문제를 다 맞춘 멘티에게 기프티콘을 선물하였다.



양력이라는 주제를 다룬 뒤, 골든벨 퀴즈를 냄(화면 캡처본)

- 일 자 : 2020.11.23.(월) 16:00 ~ 18:00
- 장 소 : 마곡나루역 감성커피
- 활동내용 : 멘토링 2학기 주제인 ‘진로의 구체화’에 맞게, 모의 시뮬레이터 체험에 앞서 항공지식 관련 간단한 사전과외를 진행하였다. 1학년 전공지식에 심화하는 부분들도 있어, 초기 멘티 친구들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동영상과 사진을 활용하여 목표한 내용을 모두 이해하는 성과를 이뤄내었다.



모의 시뮬레이터 체험 사전 과외 전 카페에서 찰각



모의 시뮬레이터를 통한 가상 실전 비행 중 찰각

- 일 자 : 2021. 01. 11 ~ 2021. 01. 14
- 장 소 : 카카오톡
- 활동내용 : 현재 열리고 있는 멘토링 공모전에 참여율을 높이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부여하고자 파랑새 멘토링 공모전을 자체적으로 주최. 멘티들이 자신들의 공모전 작품을 특 방에 올리고, 멘토가 학교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순위 별로 상품을 제공함.



제1회 파랑새 공모전 설명

파랑새 공모전 상품

5. 멘토링 참여소감

- 차중선멘티 - 자칫 허무하게 지나갈 수 있었던 1학년 생활이 멘티 멘토 활동 덕분에 좋은 인연도 만나고, 학과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던 정말 의미 있던 활동이었습니다.
- 최인석멘티 - 운항학과라는 과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잘 반영되어서 원하고자 하는 활동들을 하게 되어 운항학과 다운 한 해를 보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매우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 정원제멘티 - 이번 멘토 멘티 활동을 하면서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선배 멘토님의 다양한 경험이야기를 듣고 동기들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한단계 더 발전했다는 것을 느꼈고 비 대면 시기에 동기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조현진멘티 - 비록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활동은 어려웠지만 멘토링 팀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 덕분에 더욱 방향성과 끈기 있는 1학년을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홍예은멘티 - 멘토 멘티 활동을 통해 1년동안 학교에서 수업을 받지 못해 아쉬운 점을 보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조민석멘티 - 활동소감은 1학년을 코로나때문에 제대로 된 대학생활을 못해보고 동기, 선배들을 만나 유익했다. 선배인 멘토님과 동기들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친목도 다지고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다.
- 황보민제멘티 - 선배들과 동기들을 만나서 친해지거나 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적은 횟수였지만 멘토링을 통해 만날 수 있어 대학생활 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 좋았다. 또한 학업적인 면에서도 멘토 선배님의 좋은 조언을 받을 수 있어 아주 좋았던 것 같다.
- 주기범멘티 - 막막했던 새내기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준 활동이었다.
- 정선호멘티 - 코로나 시국에 멘토 멘티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뿐더러 선배님 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받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 오다쉬보예프멘티 - 알바로 인해 실질적으로 많은 참여를 하지는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6. 3중 멘토 개인별 성과

- 차중선멘티 - 조종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는 과정에 대해 그저 막연하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닌 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중요하고,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기에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 홍예은멘티 - 3중 멘토링 덕분에 앞으로의 진로 계획이나 개인적인 고민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조민석멘티 - 담당 교수님과 상담을 통해 막막했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멘토님이 항공기운항에 대해 기본적인 원리 개념들을 설명해 주셔서 유익했다.
- 황보민제멘티 - 몇 번 하지 못했지만 멘토링 활동으로 했던 퀴즈 덕분에 항공관련 상식이 늘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 주기범멘티 - 멘토링을 통해 동기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고, 덕분에 대학생활을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었다
- 정선호멘티 - 멘토 멘티를 하면서 중요한 것 즉 시간약속에 관한 것을 많이 지키게 되었고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 정원제멘티 - 이번 활동을 통해서 저는 제 진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간 진로와 군 진로 중에서 어느 길을 택할지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 교수님과 비대면으로 면담을 하고 선배 멘토님의 조언을 듣고 조금 더 명확히 진로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 조현진멘티 - 개인 사정으로 3중 멘토링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성공적으로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열정을 갖고 도움을 주시는 모습을 통해 꿈에 대한 자부심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 최인석멘티 - 가장 큰 성과는 2학년때 제가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멘토 활동을 통해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은 동기 선배를 만나게 되어 앞으로의 행보에 큰 힘이 되어준 사람들이 생긴 것이 좋았습니다.
- 오다쉬보예프멘티 - 잘 참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걱정이 앞섰는데 멘토 분과 멘티들의 친절한 도움으로 즐겁게 활동을 잘 마무리 한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 또한 다음 들어올 외국인 신입생 친구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을지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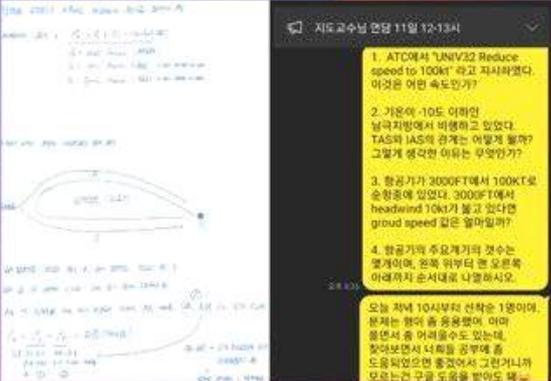
7. 멘토활동 포스터

파일럿이 될 낭랑한 새내기들



1학기 멘토링목표: 진로의 탐색
2학기 멘토링목표: 진로의 구체화





항공개념 번개기 및 글든벨 퀴즈



항공기 시뮬레이터 사전 라외



항공기 시뮬레이터 모의실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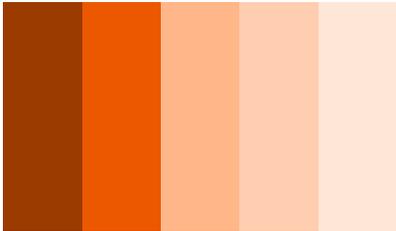


전문가 멘토와의 Q&A



교수님 멘토와의 상담

꿈은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명사가
 아니라
 다리로 발판을 깔고,
 손으로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자유전공학부

1. We' re higher - 정은혜멘토,
김지수멘토, 배성훈멘토
2. 자전은 자전한다 - 김예은멘토,
이수빈멘토, 양해찬멘토

We' re higher - 자유전공학부

멘토링을 통하여 더 성장하자는 의미

1. 멘토링개요

가. 활동목적

- (1) 새내기들의 전공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함
- (2) 코로나 19로 인하여 만나지 못하지만 다같이 친해질 수 있도록 함

나. 멘토 및 멘티

- (1) 멘토 : 정은혜, 김지수, 배성훈
- (2) 멘티 : 전제민, 홍다의, 김은설, 이동근, 이성호, 지경환, 김채림, 손수빈,
배근우, 이병길, 윤현석, 박형진, 박세현, 변동규

다. 멘토링 활동

- (1) 활동횟수 : 총 6회(외부 전문가 멘토링 , 지도교수 멘토링 제외)
- (2) 멘토활동 상세일지

일자	시간	장소	활동내용
2020.09.24	20:00~21:00	온라인	멘토와 멘티들이 함께 첫 온라인 모임을 가짐
2020.11.12	18:00~21:00	화전 골뱅이투	멘토와 멘티들이 함께 첫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며 친해지는 시간을 가짐..
2020.11.22	18:00~20:00	디엠씨	항공교통 물류학부에 관심이 멘티와 만나 질의 응답시간을 가짐
2020.12.12	기말고사 시험기간	오프라인	노트정리 경품대회를 열어 시험기간에서 동기부여하고 격려하면서 친해지는 시간을 가짐
2020.01.23	18:00~20:00	마포구	같은 전공을 선택한 멘티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친해지는 시간을 가짐.
2021.01.28	21:00~22:00	온라인	멘토링 마지막으로 온라인 회식을 개최하여 다같이 치킨도 먹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짐

2. 외부전문가 멘토링 활동

가. 간담회 일시 : 2020.11.30

나. 외부전문가멘토 소개

항공교통물류학부에서 항공교통을 전공하시고 아시아나 항공에서 운항관리사를 하고 계시는 최우승 멘토님

다. 활동내용

(1) 질의응답내용

Q1. 학점, 어학점수 중 입사시 가지고 계셨던 스펙이 궁금합니다.

A1. 학점이 3.75 어학은 토익940이 있었고 다른 자격증은 빅데이터 분석사, 사회조사 분석사 같은 통계 관련 자격증은 있었습니다. 관제사 자격증은 없었습니다. (연관질문) 사회조사 분석 자격증이나 빅데이터 분석사를 따지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수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강의를 듣고 통계자격증들을 따게 되었습니다

Q2. 관제사가 아니라 운항관리사에 대한 진로를 가지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A2. 관제사 공부는 암기해야하는 공부들이 많은데 암기하는 것이 맞지 않았습니다, 운항관리사는 분석하는 업무를 주로하고 항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암기 하는 공부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항공교통개론과 같은 암기과목은 시험은 잘 보지 못했어도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했습니다. 그렇지만 관제사라고 이해기반이 필요없는게아니고 운항관리사라고 외우는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Q3. 학과 공부나 관제/운항관리사 관련 과목 수강 시 어려웠던 점이 있으신가요?

A3.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고, 학과에는 운항관리 커리큘럼과 관제관련 커리큘럼이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것은 둘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할 때에는 둘다 필요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 커리큘럼 모두 했으면 좋겠습니다.

3. 지도교수 멘토링 활동

가. 간담회 일시 : 2020.11.17.(화)

나. 교수님소개 : 물류학과 채준재 교수님, 최동현 교수님, 송보미 교수님

다. 활동내용

(1) 질의응답내용

Q1. 물류 쪽을 진학할 때 따 놓으면 도움이 될만한 자격증이 있을까요?

A1. 일반적으로 물류 선배님들은 물류관리사를 취득합니다. 취업할 때 플러스가 된다고 보다는 없으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고, 경제적 여력이 된다면 CPIM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CPIM 따로 공부해야 한다면 학교 정규과정 내 과목들을 수강하면 받은 공부가 되는 시험이라, 본인이 수업 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자격증 시험공부를 하는게 돼서 따로 공부안 하고 딸 수 있을 것입니다.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CPIM같은 경우에는 학부내에서 취득 시 장학금도 주기 때문에 시험비용은 학과 차원에서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과 내 CPIM 시험 공부를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면세점과 관련해서는 보세사 자격증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Q2. 물류 쪽으로 진학하신 선배님들 중에서 외국계 기업으로 취업하신 분들도 계신가요?

A2. DHL과 같은 외국계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류도 물류지식이지만 외국계와 같은 경우에는 영어실력을 갖춰 놓는게 중요합니다. 외국계 기업을 목표로 준비하기보다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고 영어를 공부하다보면서 외국계 기업에 대한 취업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3. 물류를 전공하고 해외에 나가서 취업할 수 있는 경로를 다양하게 설명해주세요 (물류기업 입사, 창업 등등) 실제로 11월 초에 진행했던 학부 내 특강에서 우리 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미국쪽으로 가신 선배님이 계십니다. Operations Research 분야에서 저희 학교가 가지는 강점을 이용해 대학원으로 가서, 타 관련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통한 진출이라고 보면 대부분 국내기업 취업 후 발령을 받아 해외로 진출하는 경로가 있다고 봅니다.

(2) 지도교수님 조언

물류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물류학과로 진학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취업률이 아닌 물류가 궁금해서 왔으면 합니다.



4. 우리가 희망한 활동

온라인 모임

- 일 시 : 9월 24일 (목) 오후 10시
- 장 소 : 온라인 zoom
- 활동내용 : 멘티들과 시간표를 공유하고,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멘토들이 들었던 교양과목의 후기도 얘기하고 각자 근황을 말하는 시간을 가지며 친목을 다졌다.



선후배간 친목도모

- 일 시 : 11월 12일
- 장 소 : 화전 골뱅이투
- 활동내용 : 수업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만날 기회가 적을 멘토를 위해 오프라인 회의를 기획했다. 게임도 하며 다같이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첫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다같이 친해지는 모습

선후배간 전공이야기

- 일 시 : 2020.11.22
- 장 소 : 오프라인 만남
- 활동내용 : 항공교통물류학부에 관심이 있는 멘티와 만나 학부에 대한 이야기와 정보를 공유했다. 그동안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시간표도 보여주고 고민상담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멘토의 전공선택에 대한 고민을 들어주고 간식을 먹는 모습

노트정리대회 및 경품증정

- 일 시 : 기말고사 시험기간
- 활동내용 : 기말고사 시험기간에 카카오톡으로 공부인증을해서 멘티들끼리 동기 부여도 받고, 시험기간 간식을 기프트콘으로 증정하였다.



멘티가 공부인증을 하고 멘토들이 격려하는 모습

멘티와 만남

- 일 시 : 2021.01.23
- 활동내용 : 같은 전공을 선택한 멘티를 만나, 항공교통학부의 세부 전공과 어떤 수업들이 도움이 될지 안내했습니다.



멘토링을 하면서 저녁을 먹는 모습

온라인회식

○ 일 시 : 2021.01.28

○ 활동내용 : 마지막 멘토링 활동을 맞이하여 다같이 온라인으로 회식을 진행하였다. 각자 어떤 전공을 선택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곧 졸업하는 멘티의 소감을 들으며 마무리했다.



마지막으로 파이팅을 하면서 멘토링 활동을 마무리 하는 모습

5. 멘토링 참여소감

- 멘티 전제민: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내용도 알 수 있었고 코로나 중에 멘티들 만나는 자리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멘티 홍다의: 멘토멘티 활동을 통해 선배 동기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나에게 맞는 전공을 알아갈 수 있어서 유익했음
- 멘티 이동근: 다양한 간담회와 공부 인증 릴레이 등 여러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모임을 가져 선배님들과 동기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수 있어서 좋았다.
- 멘티 박세현: 요즘 만나기 어려운 선배님들과 동기들을 만나고 얼굴을 익힐 수 있어서 자리를 만들어준것에 감사함을 느꼈다.
- 멘티 김은설: 멘토멘티 활동을 통해 선후배 그리고 동기간에 친목을 다질 수 있어서 좋았고 전공선택에 많은 도움을 받음
- 멘티 지경환: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던 멘토들 덕분에 진로선택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여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다
- 멘티 이성호: 멘토멘티 활동을 통해 전공 선택에 큰 동무이 되었고 선배들과 동기들과 친해질 수 있는 좋은기회가 된것같다
- 멘티 김채림: 시간 활용 방법이나 격려 등 스스로 활동을 찾아 나서고 진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방식들을 배움
- 멘티 손수빈: 상황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활동들을 진행해주셔서 감사했고 도움이 되었음
- 멘티 배근우: 선배들과 친구들을 만나고 친해지는 자리가 좋았고 친절하게들 많이 도와주셔서 좋아합니다
- 멘티 이병길: 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선배 동기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멘티 변동규: 동기 및 선배님들가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고 학교생활이나 시험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멘티 윤현석: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활동들을 이끌어 나가려고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 멘티 박형진: 코로나 19로 인해 하지 못했던 학교 생활을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통해 조금이나마 매꿀 수 있었으며 나의 전공에 대해 알 수 있던 기회였습니다.

6. 3중 멘토 개인별 성과

- 멘티 전제민: 진학희망하는 과에 계신 선배님과 대화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어서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짤 수 있었습니다(대학원에 진학하여 ADD 항공분야 연구원 희망).
- 멘티 홍다의: 교수님과의 간담회를 통해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많은 도움을 받음(전자 회사 취업)
- 멘티 이동근: 항공교통물류학부에서 항공교통전공과 물류전공의 선택에 있어 고민이 많았는데 해당 교수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취득 후 항공교통 관제사 희망)
- 멘티 김은설: 세부전공선택(교통전공과 물류 전공)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음(물류 회사 취업)
- 멘티 지경환: 항공교통물류학부의 항공교통 전공 교수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진로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항공교통 관제사 희망)
- 멘티 이성호: 실제 항공사에 취업한 선배님을 만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 멘티 김채림: 공기업 취업을 위한 교내 교외 프로그램이 잘 준비되었음을 알고 참여를 시도함(한국 수자원공사 취업)
- 멘티 손수빈: 물류전공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목표를 완전히 설정하게 되었음(물류회사취업희망)
- 멘티 배근우: 교수님들 간담회를 통해 소프트웨어학과로 진학하기로 했습니다
- 멘티 이병길: 희망전공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유익 했습니다.
- 멘티 변동규: 진로와 관련된 궁금증을 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서 유익 했습니다.
- 멘티 윤현석: 진로에 대해 어느정도 고민이 해결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 멘티 박형진: 궁금한 분야의 전공내용들을 알 수 있었으며 항공교통물류학부로 진학하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 멘티 박세현: 소프트웨어 현직자분과의 미팅이 잡히지 않아 3중멘토를 경험하지는 못했다.(앱 개발자 희망).

7. 멘토활동 포스터

- 한국항공대학교 새내기 성공센터 -



2020년도 2학기 자유전공학부

We're Higher

2학기 활동 내용

온라인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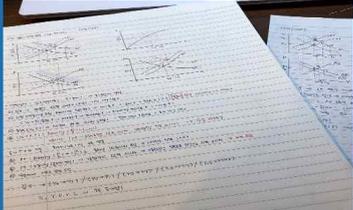
선배배간 친목도모



전문가 멘토링



노트정리대회 및
경품증정



온라인 회식



멘토 :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배성훈
항공교통물류학부 정은혜
경영학부 김지수

멘티 : 김은설, 김채림, 박세현, 박영진
배근우, 변동규, 손수빈, 윤현석, 이동근
이병길, 이성호, 지경환, 홍다의, 전제민



- 229 -

자전은 자전한다 -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의 전공선택에 이번 멘토 멘티 활동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이다.

1. 멘토링개요

가. 활동목적

- (1) 멘티들이 서로 친해지는 시간 마련 및 학교 생활 적응
- (2) 멘티들의 전공선택과 학업 능력 향상에 도움

나. 멘토 및 멘티

- (1) 멘토 : 김예은, 이수빈, 양해찬
- (2) 멘티 : 김무성, 고현지, 권순범, 기호선, 김도욱, 김민재, 문진혁, 변영준, 손재민, 여현우, 왕재필, 이태연, 이형준, 전영은, 조창현, 조현우, 최부성

다. 멘토링 활동

- (1) 활동횟수 : 총 10회
- (2) 멘토활동 상세일지

일자	시간	장소	활동내용
2020.08.26	-	카카오톡 및 구글 폼	멘토 멘티 첫인사 및 멘토링 활동 사전 선호도 조사. 하고 싶은 활동, 알고 싶은 정보, 대학생활 위시리스트로 나눠서 조사함.
2020.09.16	14:00~15:00	Zoom	지도교수님과의 만남. 항공대에 어떻게 잘 적응해서 사회에 나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지에 대해 주로 다룸.
2020.09.16	19:00~20:00	Zoom	첫 zoom 모임. 자기 소개 및 대화
2020.10.31	19:00~20:00	Zoom	외부 전문가 멘토(항공공학사 우형규 멘토님)와의 만남.
2020.10.31	20:00~21:00	Zoom	항공교통 취업 관련 자격증 및 관련 시험 설명회

2020.11.12	18:00~19:00	Zoom	전공심층 간담회 - 항공교통전공
2020.11.17	18:00~19:00	Zoom	전공심층간담회 - 물류전공
2020.10.30 2020.11.24 2021.01.12	-	카카오톡	시험대비 설명회 및 자료 나눔.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멘티들이 듣는 과목들이 다양해서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설명하고 자료 나눠줌.
2021.01.12	22:00~23:00	Zoom	종강 축하 파티 및 1학년 수료 축하 파티. 1년 동안의 학교생활 소감 나눔 및 친목 다지기.
2021.01.14	20:00~21:00	Zoom	멘토링 마지막모임. 멘토링 소감 나눔 및 친목 다지기.

2. 외부전문가 멘토링 활동

가. 간담회 일시 : 2020.10.31.(토) 19:00~ 20:00

나. 외부전문가멘토 소개

한국공항공사 전략기획본부 재직 중이신 우형규 멘토님. UAM 사업단에서 근무 중이시고, 인프라 설계, 항로 설계, 공역 설계 등의 업무를 하고 계심.

다. 활동내용

(1) 질의응답내용

Q1. UAM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1. UAM은 일종의 air taxi 같은 것이다. 한화랑 한국교통연구원이랑 같이 개발 중이다. 별도 이착륙장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고, 이것을 어떻게 날리고, 어떻게 감시할 수 있는 지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2025년까지 서울에 띄우는 게 목표다.

Q2. 한국공항공사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2. 한국공항공사는 전국 14개 공항을 관리 운영하고 있고, 관제기관이 ACC(항공교통통제센터)인데 그 센터도 관리 운영하고 있다. 해외공항을 짓거나 운영하기도 하며, 조종사 관제사 양성, MRO 정비업과 지상조업도 하고 있다. 신 사업으로 UAM 비전 2030년 5대 과제를 제시해

추진하고 있다.

Q3. 공항공사 취업 준비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3. 전공시험을 봤는데, 여기서 거의 결정된다. 점수가 누적제이기 때문에 전공시험과 NCS 성적에서 판가름이 난다. 전공 공부는 항공학이기 때문에 운항관리사, 관제사와 관련된 것 등 항공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 공부해야 한다. 나중에 공부하려고 하면 힘드니 미리 공부해두면 좋다. 운항관리사, 관제사 자격증 모두 취득했고, 전공시험 전에 항공기상과 항공법규를 다시 공부했다. NCS는 시중에 나온 문제집은 다 풀었다. 1차 실무 면접에서 전공 면접, 토론 면접, 영어 면접, 인성 면접을 본다. 이게 1차 면접이고 2차는 임원진 면접인데 인성 면접이다. 여기까지 합격하면 연수원으로 가서 시험을 보고 연수원 성적으로 발령이 난다. 인턴으로 3개월 있으면서 간부들에게 고가평가 받고, 다시 임원진들에게 PT 면접을 봐서 최종 합격이 결정된다.

Q4. 자기소개 쓰는 팁이 있나요?

A4. 활동을 많이 하고, 직무와 다 연관시켜서 답을 하면 좋다. 항공협회, 항공우주연구원 등에서 대외활동을 많이 해두면 좋다.

Q5. 공항공사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5. 월급도 높은 편이고, 밤샘 근무 등이 없고 일반 사무직, 순환 직무이기 때문에 다 경험할 수 있다. 운항관리사나 관제사의 경우 평생 그 일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공항공사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Q6. 공항공사 말고 다른 회사 취업 준비도 해보셨나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6.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취업을 준비했었다. 당시에는 대한항공은 인적성 시험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고, 아시아나는 지금도 본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원한 직무에 내가 적합하고, 나를 채용하면 어떤 분야에서 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지 말하는 게 중요하다. 2차는 임원진 면접인데 이를 준비하면서 스터디를 2개 했다. 하나는 대학 내에서 항공교통 관련해서 했고, 하나는 외부에서 다양한 직무와 관련해서 했다. 면접자 역할과 지원자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준비했다.

Q7. 항공교통을 전공으로 선택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7. 12,13 학번 세대들은 국토부에서 제2관제 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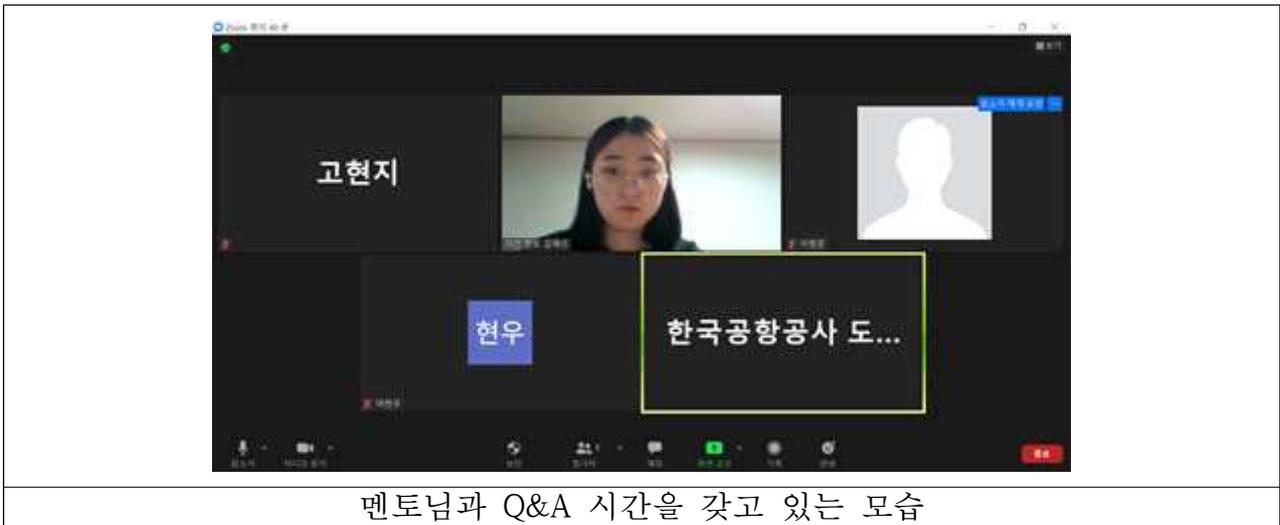
을 많이 봤다. 항공업계가 외부 리스크가 크긴 하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침체를 회복하려면 약5년 정도의 회복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이 잘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오는 건 반대하지만, 항공에 열정이 있어서 온다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Q8. 관제사, 운항관리사, 공항공사 외 항공관련 진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A8. 석박사하면 연구원 쪽으로 갈 수 있다. 해외로 나가서 석사하다가 IATA, ICAO 등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2) 외부전문가 간담회 조언

취업 준비 하느라 바빠지면 영어 자격증을 따는 시간을 내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영어를 미리 공부해두면 좋다. 대외활동도 많이 하면 좋다. 교환학생 준비, 해외 인턴 준비, 외국인 친구들 봉사, 몽골 봉사도 했었다. 자기소개서 쓸 때 일단 쓸 말이 있어야 직무랑 연관시킬 수도 있다. 단순히 학점 잘 따고 영어점수 높이는 거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이런 직업을 갖기 위해 이런 노력을 했다는 걸 자기소개서에 써야 한다. 활동을 하고 나면, 이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노력을 했다고 쓰는 것은 어렵지 않다.



3. 지도교수 멘토링 활동

가. 간담회 일시 : 2020.09.16.(수) 14:00 ~ 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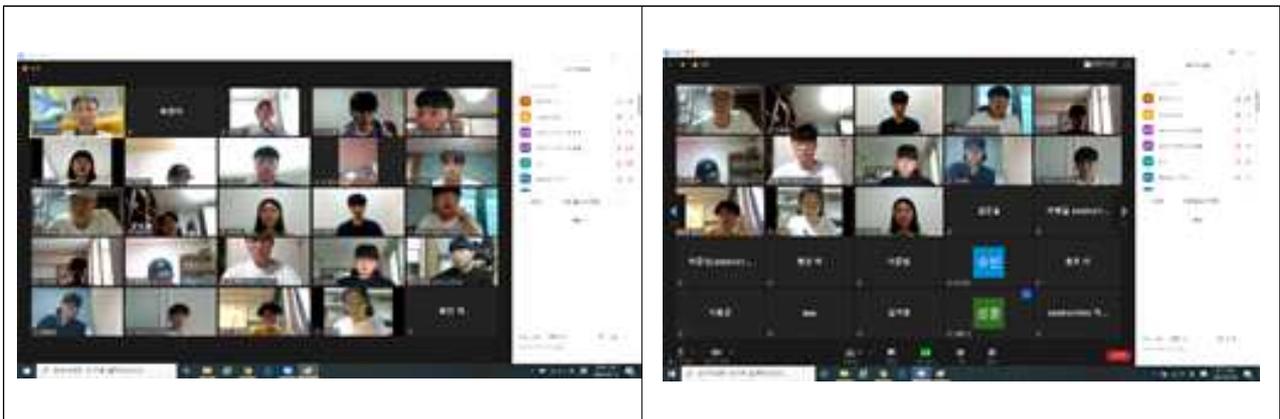
나. 교수님소개 : 강석진교수

다. 활동내용

멘티들이 학과를 선택하고, 사회에서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멘토링 시스템을 개편하였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적힌 1지망, 2지망 희망 전공을 바탕으로 각 학과 전공 교수님과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면담 인원수를 줄여서 희망하는 학생이 많은 전공의 경우 최대한 많은 교수님들께 부탁해 소수의 인원으로 진행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항공교통물류학부의 경우 학부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교통전공, 물류전공 나눠서 진행하는 것처럼 세부 전공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면담 후 포트폴리오 뒤쪽에 면담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방학 동안 희망전공이 바뀐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희망학과로 가기 위해서 선이수과목을 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희망 전공이 갑작스럽게 바뀌면 전과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바뀐 희망 전공 교수님들과 면담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학부, 학과에 가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그 학부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기 보다는 1,2 지망 희망학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포트폴리오 적을 때 멘토들에게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항공교통물류학부의 경우 관제사나 운항관리사 등이 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1학년 때는 무엇을 준비하면 좋은 지 멘토들에게 잘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4. 우리가 희망한 활동

- 일 자 : 2020.08.26(수)
- 장 소 : 카카오톡 및 구글 폼
- 활동내용 : 하고 싶은 활동, 알고 싶은 정보, 대학생활 위시리스트로 나눠서 조사함. 조사 결과 식사, 파티룸 및 펜션에서 보드게임, 요리 대회 등을 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왔음.
알고 싶은 정보는 학부 커리큘럼이나 전공선택 팀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음.
대학생활 위시리스트는 동기들과 친하게 지내기 및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였음.

하고 싶은 활동	알고 싶은 정보	대학생활 위시리스트

- 일 자 : 2020.09.16(수) 19:00 ~ 20:00
- 장 소 : 줌
- 활동내용 : ZOOM으로 서로 만나서 자기소개하고 대화 함. 한 멘티가 치킨 먹고 싶다고 해서, 오프라인으로 만나면 치킨을 먹자고 함.



첫 ZOOM 모임

- 일 자 : 2020.10.31(토) 20:00 ~ 21:00
- 장 소 : 줌
- 활동내용 : 운항관리사 자격증, 관제사 자격증, EPT, 토익, 오픽, 토스, 한국사, 국토부-관제사,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공항공사와 관련된 설명회를 진행했다.
운항관리사 및 관제사 자격증, EPTA의 경우 시험 과목과 시험 진행 방법 및 준비 법에 대해 설명했다. 토익, 오픽, 토스, 한국사의 경우 가산점 부여에 대해 설명했다. 국토부랑 공항공사의 경우 채용 시험에 대해 설명했다.



항공교통 취업관련 자격증 및 시험 설명회

○ 일 자 : 2020.11.12(목) 18:00 ~ 19:00

○ 장 소 : 줌

○ 교 수 님 : 하수동 교수님, 김휘양 교수님, 이금진 교수님

○ 활동내용 : 간담회는 zoom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항공교통전공 교육체
계와 커리큘럼, 졸업 후 진로 등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이후 Q&A
시간을 가졌습니다. 질문과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Q1. 항공시장 쪽 상황이 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취
업할 때쯤 되어도 영향이 클까요?

A1. 항공업계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ICAO 보고서나 대한항공 관계자
등의 조언에 의하면 5~6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단기간의 상황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실질적으로, 며칠 전 변화추이만 보아도 (백
신 개발 뉴스 나옴) 항공업계의 미래를 선볼리 예측하기는 무리
니, 단기적인 상황으로 미래를 결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Q2. 해외취업을 할 때 물류로 가는 게 길이 많나요, 교통으로 가는
게 길이 많나요?

A2. 해외취업을 단편적으로 생각해보았을 때는 당연히 물류로 갔을
때 갈 수 있는 길이 많다. 교통전공으로 가면 해외 대학원으로
연구를 하러 가지 않는 한 해외로 취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항공사 등에 취직하면 해외로 가는 경우도 있다.

Q3. 항공교통 전공 시 대학원 갈 때 주로 자대 대학원을 가는지? 대
학원을 갔을 때 학부 졸업과는 진로가 많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
다.

A3. 항공교통 전공 같은 경우, 대학원 진학 시, 국내에 있는 다른 대
학원보다는 우리 학부에 있는 대학원으로 가는 게 좋은 점들이
더 많다. 좀 더 일반적인 연구를 위해 타대학 대학원을 가더라도
바로 적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항공분야로 진로를 삼
는다면, 특히 항공사나 관제사로 가고 싶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
로 갈 필요성이 떨어진다. 물류도 항공교통만큼 많지는 않지만
다른 학과에 비해 우리 학부에 있는 대학원에 오는 경우가 많다.
대학원 마쳤을 때 진로는 현재 석사과정을 마친 19명을 보면, 반
정도는 진로가 연구소, 유학 등으로 바뀌고 나머지 반 정도는 학
부생들이 졸업하고 갔던 것과 같이 항공사, 관제사, 공항공사 등

으로 간다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

김휘양 교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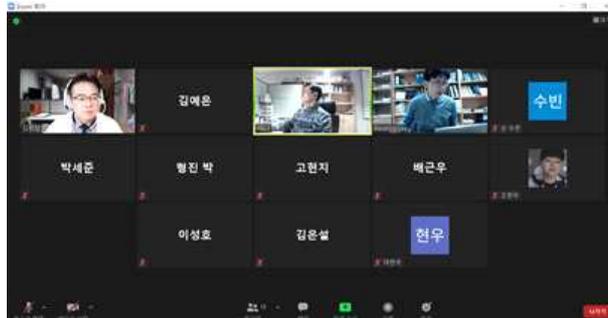
학생들이 관제사만 되기 위해서 항공교통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항공교통 전공은 항공교통을 배우는 것이고, 항공교통의 일부가 관제이다. 항공교통전공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관제사가 되기 위해서 전공을 선택한다기보다는 항공교통을 공부하기 위한 마음으로 전공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항공교통에 대해 넓게 생각하고, 항공교통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으로 항공교통전공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하수동 교수님

기술을 배워서 취업하는 학교가 아닌만큼, 관제사다 운항관리사다 하고 진로를 좁히면 대학생활의 확장이 없어진다고 본다. 학교에서 항공과 관련된 커리큘럼에 대해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학과를 진학하면 좋겠다.

아쉬운 점 및 개선 방안

- ◆ 교수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고, 학생들이 항공교통전공소개를 듣는 등 생각보다 항공교통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줄 몰랐다. 교수님이 항공교통에 대해 소개해주시고, 간단히 질의응답을 가진다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된 생각이었다. 질문도 많이 준비하지 못했다. 학생들에게 카메라를 키라고 미리 말해두지 않아서, 중간에 몇 명 키긴 했지만 반 정도는 끈 채로 진행되었다.
- ◆ 물류 간담회를 위해 미리 설문조사를 통해 질문들을 받았다. 학생들에게 미리 캠을 켜달라고 부탁했다. 교수님이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멘토들이 리드하기 위해 진행순서를 미리 계획했다.



전공심층 간담회 -항공교통전공

○ 일 자 : 2020.11.17(화) 18:00 ~ 19:00

○ 장 소 : 줌

○ 교 수 님 : 채준재 교수님, 최동현 교수님, 송보미 교수님

○ 활동내용 : 간담회는 zoom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번 항공교통전공 간담회에서 세운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미리 질문을 받고 박세준 멘토가 교수님들께 질문을 드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Q1. 물류로 진학할 때 미리 따면 도움이 될만한 자격증이 있을까요?

A1. 일반적으로 물류 전공시 물류관리사를 취득합니다. 취업할 때 플러스가 된다고 보다는 없으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따고, 경제적 여력이 된다면 CPIM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CPIM을 따로 공부해야 한다면 학교 정규과정 내 과목들을 수강하면 받은 공부가 되는 시험이라, 본인이 수업 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자격증 시험공부를 하는 게 돼서 따로 공부하지 않고도 자격증을 딸 수 있을 것입니다.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CPIM같은 경우에는 학부 내에서 취득 시 장학금도 주기 때문에 시험비용은 학과 차원에서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학과 내 CPIM 시험 공부를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면세점과 관련해서는 보세사 자격증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Q2. 물류 쪽으로 진학하신 선배님들 중에서 외국계 기업으로 취업하신 분들도 계신가요?

A2. DHL과 같은 외국계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계 취업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영어실력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외국계 기업을 목표로 준비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고, 영어를 공부하면, 외국계 기업에 대한 취업 준비가 될 것입니다.

Q3. 물류를 전공하고 해외에 나가서 취업할 수 있는 경로를 다양하게 설명해주세요(물류기업입사, 창업 등)

A3. 실제로 11월 초에 진행했던 학부 내 특강에서 봤듯이 우리 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미국으로 간 선배님이 계십니다. Operations Research 분야에서 저희 학교가 가진 강점을 이용해 대학원으로 가서, 관련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통한 진출이라고 보면, 국내기업 취업 후 발령을 받아 해외로 진출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Q4. 물류전공을 선택해도 교통관련전공도 배운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4. 아마 1학년 학생들이 지금 수강하고 있는 교통학개론이 물류 전공 내 지상교통관련 첫 과목일 것입니다. 2학년 과목으로는 첨단교통시스템개론이 있고, 3학년에는 교통계획론, 교통공학론, 교통시설용량분석, 공항계획 등이 지상교통과 관련된 과목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교통기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소수정예로 수강신청을 하기 때문에 10명에서 12명 정도의 학생들이 같은 수업을 들으면서 스터디를 하고, 추후에 공기업 취업과 관련해서 같이 스터디도 합니다.

Q5. 1학년 때 따로 이것만큼은 미리 준비하고 2학년 진학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을까요?

A5. 1학년 때 사실 전공을 크게 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학년 전공과목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학업적인 것보다 외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금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미리 준비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토익과 같은 영어점수를 따고, 2학년을 진학하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Q6. 소프트웨어학과 복수전공을 희망하는데, 물류전공과 어떤 방식으로 엮어서 학업을 진행하는 게 나은지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A6. 사실 복수전공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 대한 강점을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학생들이 어떤 코딩과 관련해서 어떤 자격증을 따는 게 좋겠냐고 문의가 오는데, 실제로 추천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따 놓을 만한 자격증도 없을뿐만 아니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소프트웨어적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취업시장에서 많이 선발하려고 하는데, 비교과와 관련해서 자신이 어떻게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미리 찾아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과목을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공모전에 참여하는 것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Q7. 학부과정 내 Operations Research 1,2 응용까지 있는데, 무엇을 배우는 과목인지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A7. 다들 수학이라고 생각하는 Operations Research라는 과목은 1,2 응용으로 구분됩니다. OR1 같은 경우에는 Linear Programming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고, 이는 선형계획법으로 최적화된 투입량을 계산하는 학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OR2와 같은 경우에는 Non-Linear Programming과 Queue Theory에 대해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가 확정적이지 않고 분포로 나오거나 평균적으로 5분마다 한명씩 오는 상황속에서, 확률적인 데이터로 대기 시간을 예측하는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마지막 말씀

채준재 교수님

물류전공이 궁금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취업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파헤치고 싶은 분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류 과목들을 배우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재밌으면 좋겠습니다.

최동현 교수님

물류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업적인 면에서도 물류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학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보미 교수님

학업적인 면 외에도 여러가지로 많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점 및 개선 방안

- ◆ 멘토링 하고 있는 멘티들 중 항공물류에 관심있는 멘티 대부분이 이미 항공교통으로 마음을 정한 상태였다. 그래서 물류 간담회를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 같다.
- ◆ 미리 물류 간담회도 참석해야 할 이유에 대해 잘 설명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항공교통을 생각하고 항공물류로 갔음에도 막상 전공을 선택할 때가 되니 고민이 되었고, 그래서 물류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미리 말했으면 참석율을 높일 수 있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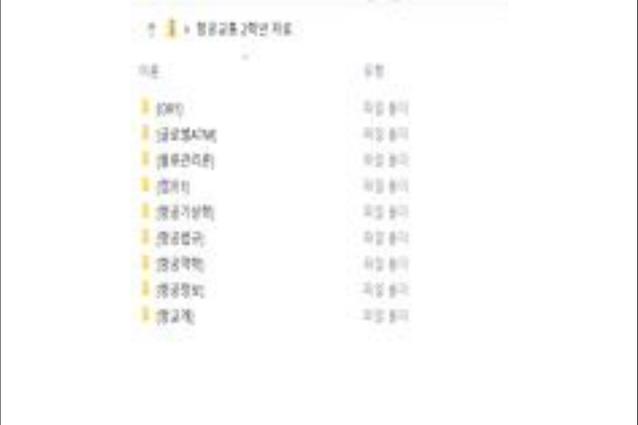


전공심층 간담회 - 물류전공

- 일 자 : 2020.10.30(금), 2020.11.24(화), 2021.01.12(화)
- 장 소 : 카카오톡
- 활동내용 : 자유전공학부 특성 상, 멘티들이 듣는 과목들이 다양해서 10월 말에 멘티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자료를 나눠줌. 11월에는 시험에 대해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짐. 이후, 항공교통물류학부로 전과를 결정한 멘티들에게 2학년 때 듣는 수업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제공



멘티들과의 대화 예시



멘티들에게 나눠준 항교물 2학년 자료

- 일 자 : 2020.01.12(화) 22:00 ~ 23:00
- 장 소 : 줌
- 활동내용 : 종강 축하 파티 및 1학년 수료 축하 파티! 1년 동안의 학교생활 소감 나눔 및 친목 다지기



종강 축하 파티



종강 축하 파티

- 일 자 : 2020.01.14(목) 20:00 ~ 21:00
- 장 소 : 줌
- 활동내용 : 종강 축하 파티 때 참여하지 못한 멘티들이 하고 싶다고 요청함. 멘토링 활동 마무리 기념으로 다시 식사 시간을 가짐. 멘토링 소감 나눔 및 친목 다지기



마지막 모임

5. 멘토링 참여소감

- 김예은 멘토 -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계속 진행하다 보니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부족하게 활동을 함. 그런 점에서 멘티들에게 미안했는데 오히려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얘기를 해줘서 고마웠음. 앞으로도 멘티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싶음.
- 이수빈 멘토 - 이번학기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하여 많이 친해지지 못해 어려워할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고민 상담을 많이 요청해줘서 고마웠고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했음. 멘토링이 끝나도 좋은 선후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음.
- 양해찬 멘토 -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어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잘 따라와줬던 멘티들에게 고마움이 컸다. 다만 전 학기도 비대면으로 진행해 멘티들끼리 친분이 거의 없어 참여율이 다소 저조했던 것 같다. 좋은 경험이었고 멘토링이 끝난 후로도 도움 게 있으면 언제든지 돕고싶다.
- 최부성 멘티 - 줌을 통해 서로의 흥미와 관심사를 공유하였으며 선배님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좋았음 또한 진학할 학과의 대략적인 커리큘럼이나 학부 공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 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좋은 멘토님들을 만나서 좋았음
- 문진혁 멘티 - 전정과 소학 중 과 선택을 함에 있어 결정적인 정보와 도움을 받았다. 2학년부터 수강할 전공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코딩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이야기 할 수 있어 좋았다.
- 고현지 멘티 -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멘토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수님, 학과 공부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많은 부분들을 챙겨주셔서 한 학기 동안 수업에 적응하고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뜻 요청하기 어려웠던 부분까지도 먼저 도움을 주셔서 좋았습니다. 많은 것들을 접하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긍정적인 기운들을 잔뜩 주신 것 같습니다.
- 여현우 멘티 - 여러 학과의 간담회나 설명회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조현우 멘티- 코로나때문에 학교에 아는 학우들이 없었지만 그나마 멘토링이 있었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6. 3중 멘토 개인별 성과

- 최부성 멘티 - 본인은 항공전자정보공학부와 항공교통물류학부를 놓고 고민하였지만 멘토링에서 선배님들께 자문을 여쭙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장래의 구체적인 실현가능한 목표를 수립할 수 있었으며 본인도 후에 좋은 선배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던 계기였음(물류 전공 중 해운항만을 심화적으로 공부하여 인천항만공사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게 되었음)
- 문진혁 멘티 - 비대면강의로 선배들과의 인연이 닿을 수 없어 전공과 과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토로할 수 없었는데 소학과 전정선배 모두와 연을 쌓을 수 있었다.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 필요하고 중요한 전공강의와 코딩 노하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매우 좋았다.
- 고현지 멘티 - 관제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만 생각했었는데, 취업한 선배님들께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고 해주신 많은 이야기들이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 시야를 넓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관제사 말고도 관심을 가지게 된 직업도 생겼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 ,다양하고 풍부한 그리고 직접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 여현우 멘티 - 제 진로와 관련된 분들을 만나면서 더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관제사랑 물류관련 직종(cj대한통운 등)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 조현우 멘티 - 실제로 현장에 있는 분이 직접 얘기를 해주는 것이 더 깊이 와닿을 수 있어 좋았다. 또한 관제사라는 직업이 멘토링을 통해 더욱 와닿아서 관제사에 대한 깊은 흥미를 느꼈다

7. 멘토활동 포스터

2020 - 2 새내기 성공센터 재학생 멘토링

자전은 자전한다

멘토 : 김예은, 이수빈, 양해찬
멘티 : 강무성, 고현지, 권순범, 기호선, 김동욱, 김민재, 문진혁, 변영준, 손재민, 여현우, 왕재필, 이태연, 이형준, 진영은, 조창현, 조현우, 최부성

3중 멘토링 + 전공임을 간담회

01



2020.09 - 2021.02

시업과 자격증
대비 출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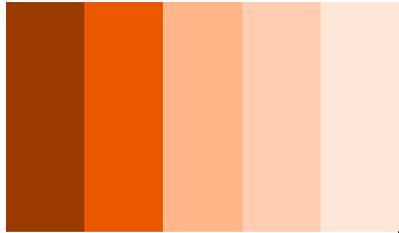
02



전통으로
새로운 문화

03





경영학부

1. 경영자들 - 이은우멘토
2. 퍼즐 - 서혜민멘토
3. 아띠- 김예은멘토

아띠 - 경영학과

‘아띠’는 순우리말로 ‘친한 친구’라는 뜻입니다.

1. 멘토링개요

가. 활동목적

- (1) 비대면 수업이지만 학교에 빠르게 적응하기
- (2)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다 같이 잘되기

나. 멘토 및 멘티

- (1) 멘토 : 김예은
- (2) 멘티 : 이지윤, 정희원, 최형주, 홍승민, 조희정, 채승완, 장준, 이정현

다. 멘토링 활동

- (1) 활동횟수 : 총 5회
- (2) 멘토활동 상세일지

일자	시간	장소	활동내용
2020.09.04		온라인	비대면 강의로 인해, 선배들과 친해지지 못해 전공책과 계산기 등을 물려받지 못한 멘티들, 멘토에게 물려받기
2020.10.29	18:00 ~ 22:00	파티룸	입학 후, 만날 기회가 없었던 동기들과 모여 친목 도모 및 자기소개 하기
2020.12.18	19:00 ~ 20:00	온라인	공기업에 재직 중이신 선배님께 여러 가지 조언 듣고 평소에 궁금했었던 것들 여쭙보기
2021.01.06		온라인	성인이 된 후, 자주 찾지 않게 되는 책.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 방학 때 읽어보기
2021.01.16		온라인	유기견 후원 팔찌를 통해 나눔의 정 느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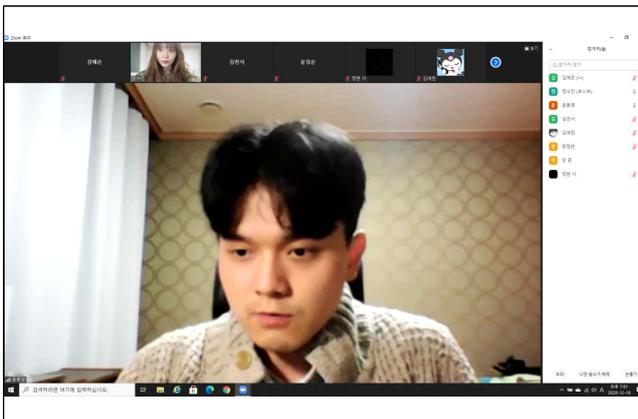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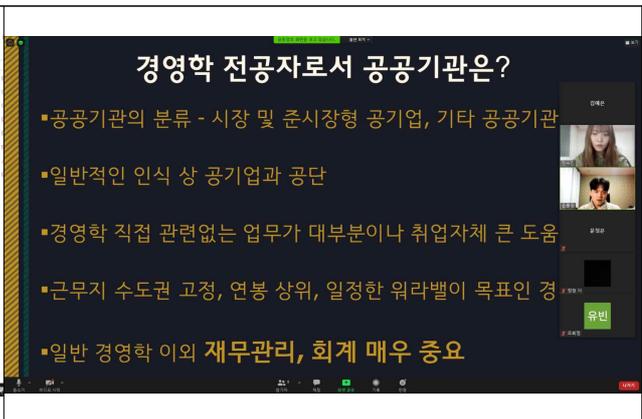
2. 외부전문가 멘토링 활동

가. 일 자 2020-12-18 (금)

나. 멘토소개 : 경영학과 10학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셨던 윤동영 멘토님

다. 활동내용

- (1) 공기업 입사에서 중요한 부분, 준비 과정, 지방 순환 근무의 장단점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받음.
- (2) 일반 경영학 이외에도 재무관리, 회계 수업이 매우 중요하다.

	
<p>[멘토님의 자기소개]</p>	<p>[직접 준비하신 ppt 화면]</p>

3. 우리가 희망한 활동

- 일 자 : 2020.09.04.(금) ~
- 장 소 : (비대면)
- 활동내용 : 책 나눔; 가격이 부담스러운 전공 책, 선배에게 물려받기!



택배가 도착한 뒤,



카톡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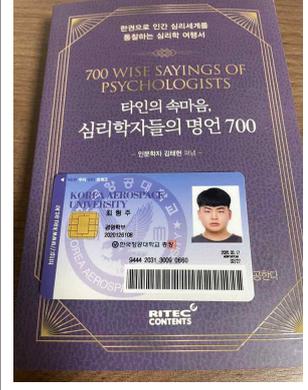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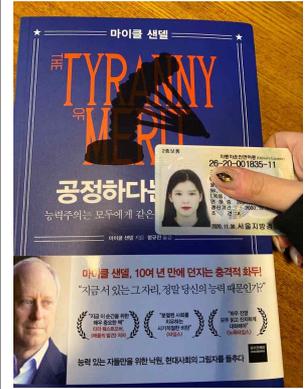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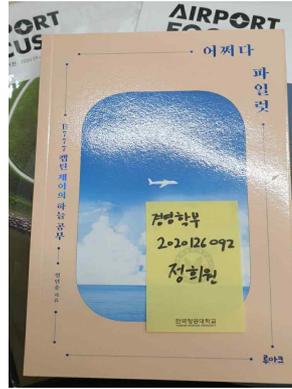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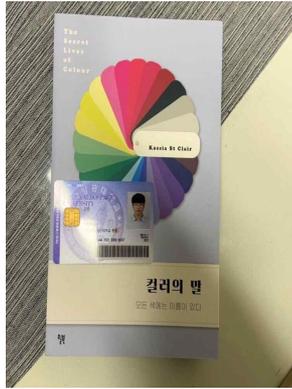
- 일 자 : 2020.10.29.(목) ~
- 장 소 : 파티룸
- 주 제 : 친목도모 및 자기소개
- 활동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전이며, 입장 전 체온 측정과 손세정 후 입장했습니다. 또한, 파티룸의 모든 창문을 열어놓고 진행



자기소개중

2020학년도 1학기 새내기성공센터
3중멘토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 일 자 : 2021.01.06.
- 장 소 : 각자의 집
- 활동내용 : 독서, 성인이 된 후, 자주 찾지 않게 되는 책.
평소 읽고 싶었던 책, 방학 때 읽어보기!



내가 고른책 인증 샷

- 일 자 : 2021.01.16.(토)
- 장 소 : 각자의 집
- 활동내용 : 여러 가지 후원 물품 중, 멘티들이 고른 유기견 후원 팔찌를 구매하여 나눔의 정 느끼기



각자의 집에서 유기견 후원 팔찌 착용 후,
인증샷 보내기

5. 멘토링 참여소감

- 멘토 김예은 - 1학기에 비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비대면으로 진행한 활동이 대부분이라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 멘티1 이지윤 - 코로나로 인해 학교를 많이 가보지 못했던 상황에서 학교에 대해 잘 몰라 어려웠던 부분이 많았는데, 1년 동안 멘토링 활동을 통해 학교생활에 대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있었던 각종 전문가 멘토링 프로그램들도 좋은 기회였다 생각하고, 저는 마지막에 있었던 책 관련 활동도 기억에 남습니다!! 1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했습니다.
- 멘티2 정희원 - 멘토링 하면서 학교적응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멘토님의 자료들과 조언으로 좋은 성적까지 받을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21년도에 재학생 멘토가 됐는데, 저도 후배들에게 좋은 멘토링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멘티3 최형주 - 일 년 동안 도움을 많이 받았고 1학년 학생들한테는 꼭 필요한 활동인 것 같습니다!
- 멘티4 홍승민 - 코로나 때문에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멘토링 덕에 1년 잘 지나갔어요. 멘토분도 너무 친절하셔서 좋았고 개선할 점은 못 찾겠습니다.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 멘티5 조희정 - 멘토 멘티 활동을 통해 학교생활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자주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였지만 온라인 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 멘티6 채승완 -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 했던 신학기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행사가 무산된 게 매우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멘토링을 통하여 학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 멘티7 장 준 -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활동이 온라인으로 대체 되어 아쉬웠다. 하지만 멘토링을 통해 좋은 선배, 동기들을 알게 되어 유익했다.
- 멘티8 이정현 - 회계원리 책과 편지 등 많은 배려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6. 3중멘토 개인별 성과

- 멘토 김예은 - 멘티들의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어 고마웠고,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 멘티1 이지윤 - 공기업 관련 멘토링이 있다는 것과 진로 관련 각종 프로그램들에 대해 알게 되면서, 앞으로 공기업 목표로 취업준비를 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목표가 더욱 확고해진 것 같다.
- 멘티2 정희원 - 현직 선배님과의 온라인 만남을 통해 항공사 입시에 필요한 역량과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음.
- 멘티3 최형주 - 항공사 취직을 목표로 토익, 토스, 자격증을 취득하여 진로에 더 다가갈 수 있었다.
- 멘티4 홍승민 - 회계사를 꿈으로 갖고 있다. 이번 학기에 시험 볼 때, 필요한 학점을 채우고 공부도 해서 꿈에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
- 멘티5 조희정 -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회계 관련 서적을 읽어보며 더 나아가서 향후 회계가 세상 속에서 어떤 도움이 될지, 어떤 가치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았다.
- 멘티6 채승완 - 증권사 입사가 목표인 만큼,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우리학교 교과과정중 금융과 증권에 관한 과목이 있다는 것을 멘토링을 통해 인지하여 미래를 대비하기 조금 더 수월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멘티7 장 준 - 나의 장래희망은 사업가인데, 이번 학기 수업 및 여러 활동을 통해 나의 장래를 위한 지식의 넓이를 넓힐 수 있었다.
- 멘티8 이정현 - 진로 관련 과목을 들으면서 앞으로 진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알 수 있었고, 코딩을 이용한 통계학 과목을 들으면서 진로 방향을 소프트웨어와 경제학을 융합하는 방향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7. 멘토활동 포스터



퍼즐 - 경영학부

퍼즐처럼 달라 보이지만 함께라면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는 팀이 되자는 의미

1. 멘토링개요

가. 활동목적

- (1) 항공 분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멘티들의 진로 탐색
- (2) COVID 이후 달라진 학교 생활에 원활한 적응

나. 멘토 및 멘티

- (1) 멘토 : 서혜민
- (2) 멘티 : 고희지, 김교창, 김은지, 김종원, 김승민, 김상현, 김태산, 도지민

다. 멘토링 활동

- (1) 활동횟수 : 총 3회
- (2) 멘토활동 상세일지

일자	시간	장소	활동내용
2020.12.2	19:00~21:00	온라인	영화 모임 문화생활의 일부로 함께 영화를 보며 대화를 나눔
2020.12.12	20:00~21:00	온라인	신한은행 멘토님 온라인 멘토링 항공 분야에 재직 중인 전문가 멘토님과의 멘토링만 진행하였기 때문에 타 팀과 연합을 맺어 비항공분야인 신한은행에 재직 중인 멘토님과 멘토링을 진행함
2020.01.24	17:00~19:00	온라인	희망 도서를 구매하고, 줌을 통해 독서 토론 멘토와 멘티가 각자 희망하는 도서를 구매하고, 줌으로 해당 도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눔 이후 각자 간단한 감상문을 작성하여 공유함

2. 외부전문가 멘토링 활동

가. 일 자 : 2020.11.27.

나. 멘토소개 : 제주항공에 재직 중, 기업 문화 팀으로서 기업 내부 마케팅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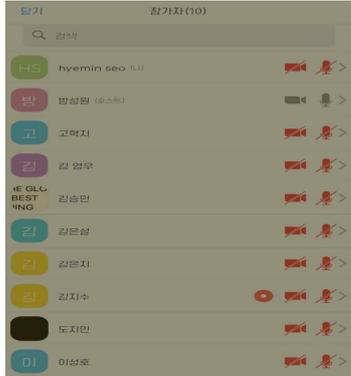
다. 활동내용

(1) 질의내용

- 항공사 입사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 진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외활동도 취업할 때 도움이 될까요?
- 학교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많이 참여하셨나요?

(2) 외부전문가멘토 조언

- 교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라
- 꼭 희망하는 진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보는 것이 좋다

	
<p>멘토님께서 설명해주시는 모습</p>	<p>줌 참가자</p>

4. 우리가 희망한 활동

- 일 자 : 2020.12.2.(수)
- 장 소 : 온라인
- 활동내용 : 문화생활의 일부로 함께 영화를 보며 대화를 나눔



김승민 멘티의 인증 사진



김은지 멘티의 인증 사진

- 일 자 : 2020.12.12.(토)
- 장 소 : 온라인
- 활동내용 : 항공 분야에 재직 중인 전문가 멘토님과의 멘토링만 진행하였기 때문에 타 팀과 연합을 맺어 비항공분야인 신한은행에 재직 중인 멘토님과 멘토링을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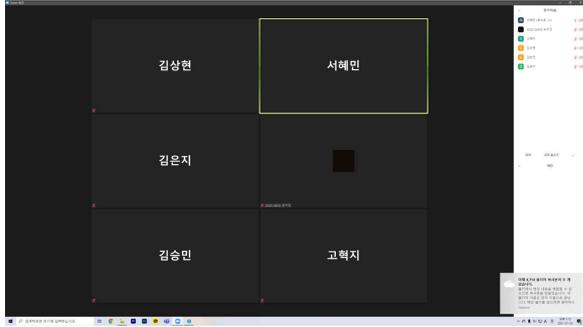


멘토님께서 설명하시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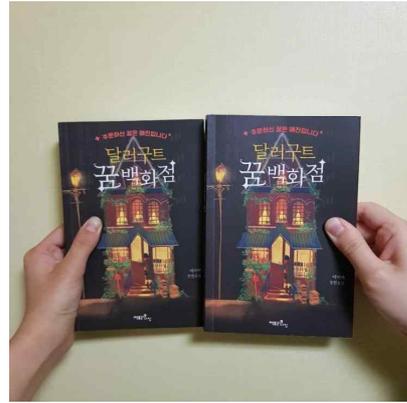


참가자 목록

- 일 자 : 2020.01.24.(토)
- 장 소 : 온라인
- 활동내용 : 멘토와 멘티가 각자 희망하는 도서를 구매하고, 줌으로 해당 도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눔. 이후 각자 간단한 감상문을 작성하여 공유함



참여자 목록



구매한 도서

5. 멘토링 참여소감

- 멘토 서혜민 - 후배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알려 주고 싶은 정보는 많았습니다. 멘토링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쁩니다. 앞으로 도 저 뿐만 아니라 후배들과 학교의 발전을 위해 이런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멘티 김승민 - 서혜민 멘토님의 모습을 보고, 꿈을 위해 자기 자신을 경영해 나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학점 관리와 스펙, 진로를 위한 각종 준비 때문에 바쁘신 와중에도 제가 멘토님께 질문하면 구체적이고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고, 창업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공유해 주시는 멘토님을 보면서 자기경영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주체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맞춰서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자기경영입니다. 성실하고 올바르게 시간 활용을 한다면, 멘토님처럼 많은 일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덕분에 매일 제 시간 활용을 기록하게 되었고, 목표를 적어놓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현명하게 행동하게 됐습니다. 일례로 매년 경영학 서적을 100권 이상 읽고 독후감을 쓰겠다고 목표를 세웠고, 1달에 10권씩 경영서적을 읽고 독후감을 기록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 멘티 김상현 -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친절한 멘토님과 조원들과 함께해서 재밌고 유익했습니다
- 멘티 도지민 - 새터.오티등 모든 활동이 취소된 상태에서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내기 멘토링을 통해서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또한 만나기 힘들었던 선배.동기들과 친해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 멘티 김은지 - 멘토링을 통해 동기와 선배와 함께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멘티 고혁지 -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 멘티 김종원 - 비록 2학기에는 많은 활동을 참여하지 못했으나 유익했습니다
- 멘티 김태산 - 다음에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 멘티 김교창 -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활동들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6. 3중멘토 개인별 성과

멘티 김승민 - 사랑으로 모든 친구를 대하며 리더십을 기른 후 기업가가 되겠습니다.

1. 2021 대학교 2학년: 꿈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기본 능력들을 미리 미리 기른다.
 - a. 경영학부 39대 학생회 재무부원(돈 관리 담당)이 돼 리더와 회계사로서의 소양을 함양한다.
준비 : 경영학부 학생회 ‘단비’ 공지사항 꼼꼼히 확인하기, 면접 대비하기
 - b. 경영학부 40대 학생회장으로 섬기며 리더십을 기르고 선후배들과 네트워크 형성한다.
준비 : 대학교 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조별 과제, 발표 때 앞장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친구들을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며 친구들에게 내 리더십을 어필한다.
 - c. 2021 토익에서 만점을 받아서 국제 비즈니스 감각을 키우고 글로벌 소통 능력을 키운다.
 - c-1. 준비 : 매달 토익 시험에 응시하고 교내 ‘토익 대비 비교과 프로그램’ 을 이용해 공부한다.
2. 2022년 대학교 3학년: 졸업이 다가온다고 겁먹지 말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다.
 - a. 경영학부의 진로 포트폴리오 대회에서 우승한다./준비: 활동을 기록하고 발표 연습하기
 - b. IT-Biz 융합 전공을 신청해 졸업 때 경영학부 학위와 소프트웨어학과 학위를 취득한다. 경영과 컴퓨터공학에서 전문성을 갖춰 회계사로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다.
준비: 탁월한 학점을 유지하고 평소 ‘교내 비교과 코딩 프로그램’ 에 가입해 공부함으로써 미리 컴퓨터공학 전문가가 된다. 경영학은 물론 공학에서도 뛰어난 한국항공대학교 학생이 된다.
3. 2023년 대학교 4학년: 대학 생활에서 유종의 미를 거둔다.
 - a. 졸업 직후 입대할 수 있게 해병대 장교 시험에 합격한다. 반드시 승리하는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기른다. /준비: 매일 팔굽혀펴기, 턱걸이, 달리기로 체력을 단련한다. 해병대 홈페이지에 방문

해 모집일시, 지원 자격, 선발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완벽하게 준비한다.

b. 4년간 꾸준히 관리해 온 학점으로 대학교 전체 수석으로 졸업해 후배들의 모범이 된다.

준비: 매일, 매주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며 탁월한 학점을 유지한다.

멘티 김상현 - 앞으로 주어진 일에 충실히 임하며 차차 저에게 맞는 일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멘티 도지민 - 경영학부에서 1학년을 마치고 항공교통물류학부로 전과하였습니다. 항공교통물류학부에서 항공교통을 전공하여 안전한 하늘길을 만드는 항공교통관제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멘티 김은지 - 이번 2학년 동안 구체적으로 탐색하여 정하는 것이 제 진로목표입니다.

멘티 고혁지 - 진로를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차차 찾아볼 계획입니다

멘티 김종원 - 항공과는 관련이 없지만,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멘티 김태산 - 아직 고민 중이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멘티 김교창 - 경영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7. 멘토활동 포스터

TEAM PUZZLE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재학생 멘토링 결과 포스터
2020 2학기 서혜민 멘토팀

새내기를 위한 꿀팁을 담은 재학생 성공스토리를 촬영, 배포하였습니다. 특히 경영학과생들을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재학생 성공스토리

2020.11.27






3중 멘토링의 핵심 활동인 선배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항공 산업에 관심 있는 멘티들을 대상으로 제주항공 선배님과 멘토링을 진행했고 그 외 산업에 관심 있는 멘티들을 위해 신한은행 선배님과 연합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선배 멘토링

제주항공 2020.11.27
신한은행 2020.12.12

교양을 쌓기 위한 문화생활의 일환으로 온라인 영화 모임을 주최하였습니다. 영화를 보며 먹을 배달음식과, 함께 볼 영화를 구매하고 서로의 감상평을 줌으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온라인 영화 모임

2020.12.2







일차 방학을 보내기 위해, 희망 멘티를 대상으로 온라인 독서 토론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원하는 책 목록을 받아 희망 도서를 구매하고, 배달된 음식을 먹으며 줌으로 함께 모여 해당 도서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도서에 대한 감상을 나누었습니다.

온라인 독서 토론

신청 2021.1.18
토론 2021.1.24



MEMBERS

멘토 서혜민

멘티 고희지, 김교창, 김승민, 김상현, 김종원, 김태산, 도지민

경영자들 - 경영학과

경영자들 - 경영자들은 여러 분야에 꿈이 있는 저희들을 아울러 나타내주는 말이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1. 멘토링개요

가. 활동목적

- (1) 진로에 대한 견문 넓히기
- (2) 비교과 활동이라도 재밌고 알찬 추억 만들기

나. 멘토 및 멘티

- (1) 멘토 : 이은우
- (2) 멘티 : 정초윤, 주연우, 추세빈, 최만준, 조기홍, 홍준표, 조유민, 이현준, 전해인

다. 멘토링 활동

- (1) 활동횟수 : 총 3 회 이상
- (2) 멘토활동 상세일지

일자	시간	장소	활동내용
2020.09.25.	19:00~20:00	각자의 집 (zoom)	2학기를 맞아 오랜만에 얼굴도 볼 겸 zoom으로 만났다. 2학기에 목표로 하는 것이나 고민, 하고싶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었다. 2번의 시험을 거친 뒤라 그런지 할 얘기도 많았고 멘티들의 공부에 대한 욕구가 강해졌다.
2020.10.23.	22:00~23:00	각자의 집 (카카오톡 라이브)	2학기 수업에 대한 중간점검과, 수업에 대한 질문사항등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빨리 만나고 싶어하는 멘티들이 있어 언제로 만남을 잡을지 토론했었다.
2021. 12.04	21:00~22:00	각자의 집 (zoom)	기말고사 기간을 맞아 시험 꿀팁 대방출과 족보 및 공부방법 대방출 시간을 가졌다. 거의 모든 과목이 멘토인 내가 시험을 봤던 과목이라 도와줄 수 있었다. 그리고 멘티들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가르쳐주는 학습 멘토링을 진행하였다. 특히 내가 강한 경제부분을 많이 도와주었다.

2. 외부전문가 멘토링 활동

가. 간담회 일시 : 2021.01.26

나. 외부전문가멘토 소개

△ 전문가멘토 전공 : 경영학과

△ 전문가멘토 소개

- 현재 삼창감정평가법인에 재직 중
- 경영학과 07학번

△ 하고 있는 일

- 삼창감정평가법인에서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이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사를 하고 있음
- 흔히 말하는 문과 8대 전문직(변호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관세사) 중 하나이다.

다. 활동내용

(1) 질의응답내용

Q1. 감정평가사는 토지에 대해서만 감정평가 하나요? 또한 감정평가는 어떤 업무인가요?

A1. 사람을 제외한 모든 재화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업이다. 주로 평가대상이 되는 것은 부동산(90%)이며, 기계, 선박, 자동차, 비행기 등의 재고자산, 영업권, 권리금, 특허권, 실용신안원, 지적재산권 등의 무형자산 등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감정평가는 일반인들이 절세목적 또는 자기소유 자산의 재산적 가치가 궁금해서 의뢰하는 경우도 있지만, 담보평가, 보상평가, 경매평가, 공매평가, 자산재평가 등을 한다. 이러한 평가목적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법들이 있어 이에 근거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Q2. 감정평가사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A2. 장점 : 정년이 없다. 즉, 노후에도 일정 소득이 보장된다.

높은 수준의 워라벨. 지방 출장이 잦은 직업이라 사무실에서만 지내지 않는다. 출퇴근도 자유롭다.

적지 않은 소득수준. 웬만한 대기업 연봉 내지 그 이상은 받는다.

단점 : 높은 수준의 업무강도. 영업을 많이 하면 소득수준도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업무강도도 높아진다.

영업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소득. 잦은 출장에 따른 피로도. 현

장출장이 잦아서 운전이나 산을 올라야 하는 경우에 피로도가 높다.

(2) 외부전문가멘토 조언

Q1. 대학시절 했던 활동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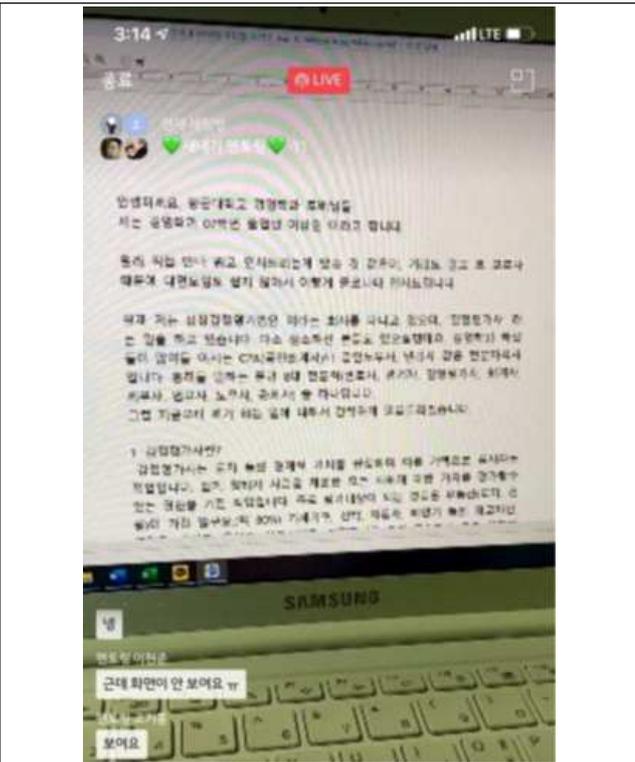
- 외향적인 성격이라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소통하는 것을 좋아했다.
- 학생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다. 그당시 총학생회 산하 단체였음.
- 1학년 끝나고 군대를 갔다 오고, 복한 한 후에 동아리를 창설(PTPI).
- PTPI는 연합동아리라 다른 학생들과 교류도 많이 하고 자주교류 함

Q2. 대학생활 때 어떤 것을 해보면 좋을까요??

- 나중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지 생각해보기
-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진로에 대해 고민해보기
-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찾아내는 것은 내 자신밖에 할 수 없다.

Q3. 후배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

- 신입생 때 정말 많이 여행 다니고 많이 즐기기.
- 다양한 계층, 분야, 학교의 사람들을 만나보기 - 동아리 활동으로
- 적성에 맞는 일 찾고, 나의 객관적인 위치 파악하기

	
<p>일정상 시간이 맞지 않아 선배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씀들을 적어 주셨다.</p>	<p>카카오톡 라이브로 선배님 대신 왼쪽의 글을 전달하는 모습</p>

3. 지도교수 멘토링 활동

가. 간담회 일시 : 2020.10.30.

나. 교수님소개

△ 지도교수 전공 : 경제학

△ 지도교수 소개 : 이영수 교수님은 경제학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학생들에게 피와 살이 될 만한 정보를 많이 주려고 노력하십니다!!

다. 활동내용

(1) 질의응답내용

Q1. 경제 쪽에 적성이 맞는 거 같고 관심도 있어서 은행이나 금융권으로 회사를 가고 싶은데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고민이 된다. 그쪽 분야로 취업을 해도 자동화로 인해서 직업이 없어질까 걱정이 된다.

A1. 일단은 영어 공부를 해야 한다. 말하는 걸 위주로 영어 공부를 해야하고 경제 신문을 자주 읽으면서 대학생 대상으로 경제 신문 바탕으로 시험을 보는 게 있는데, 매일 경제 신문 기초에서 시험문제가 나온다. 경제부터 경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 특히 거시경제학 관련 문제가 많다. 중요한 부분을 스크랩하면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경제학 과목은 다 수강하면 된다. 거기서 금융 기업 관련된 문제들도 나오니까 열심히 듣는 게 좋다. 모르는 거 표시도 하고 정리도 하면서 공부를 하면 된다. 금융권이라는 목표가 있으면 나름대로의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 배우는 공부와 더불어 2학년 때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도 수강하면 된다. 금융 관련 공사도 있으니 같이 알아보고 준비하면 되고 은행은 출신 학교를 크게 보지 않기 때문에 신경쓰지 말고 잘 준비하면 된다. 자동화 되어 지점이 줄어들어도 창구만 줄어드는거지 시장은 계속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Q2. 융합 전공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지 구체적으로 궁금한 거 취업할 때 어떤 점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융합 전공은 경영을 위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금융권으로 가고 싶은데 은행보다는 증권사나 펀딩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CPA를 지원해주는 부분은 학교에 없나요?

A2. 최근 IT 중에서는 DNA라는 빅데이터와 모바일, IOT(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이 아주 중요하다. 이 분야에서는 코딩을 배우게 된다. 빅데이터는 프로그램을 짜서 여러 형태로 만들고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료를 모아서 통계를 내고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야

에서는 코딩이 많이 중요하다. 전체적인 윤곽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기 좋다. 융합 전공은 경영을 위해서 조금 편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융합을 만든 이유가 다른 공대보다도 수학을 덜 이용하기 때문이다. 금융이나 증권을 생각한다면 모의투자 대회를 먼저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증권에서는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 따지는 분야기 때문에 경제학을 열심히 해야 한다. 기업에서 산업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도 필요하다. 증권사 관련된 자격증에 대해서도 찾아보고 따면 좋고 재무관리 경제학 관련된 부분들도 있으니 잘 알아보면 된다. 항상 말하기가 기본이 되는 영어 공부를 한다. 밥값을 지원해주는 부분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고 CPA에 관심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회계 과목도 학점을 이상 들어야 하고 그 이외에도 경영에서 들을 수 있는 여러 과목들을 수강해야 시험을 볼 자격이 생긴다.

- Q3. 항공대에서 꼭 해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진로는 경영 심화 쪽으로 깊게 공부해보고 취업을 하고 싶다.
- A3. 비행기나 열기구 한 번 타보기는 특별한 경험 정도로 꼭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축제와 같은 행사가 없으니 항공대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보면 되고 취업 준비를 할 거면 시험을 보는 취업이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취업이 있는데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어떻게 되고 싶은지 등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니까 인턴이나 봉사 등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해 보면 된다. 역시 영어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 Q4. 선배님들 중에 중국계 회사를 가신 분이 있는지, 있다면 대략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심 있는 쪽이 중국 회사인데 중국어를 잘 하지는 않고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대만, 중국에 있어서 여쭙본 질문입니다.
- A4. 교수님의 답변: 영어와 중국어를 다 하면 기업은 잘 들어갈 수 있다. 코딩까지는 아니고 마케팅이나 다양한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데 중국어는 공부하면 많이 해놓을수록 좋지만 그 이전에 영어도 당연히 공부해야 한다. 토익은 기본이고 토플도 높게 받으면서 중국어도 하는 게 전망이 좋다. 아무래도 언어 쪽을 공부하는 게 좋을 것이다. 다양한 분야로 취업을 한 선배들이 있으니 잘 알아보면 된다. 계획을 구체화한다.
- Q5. 경영학과에서 부전공이나 복수 전공을 택할 때 어느 과가 시너지 효과가 좋은지와 이유가 궁금합니다. 관심은 물류 쪽에도 있고 물류를 하면 괜

찮은지 궁금하고 융합 전공에도 IT-biz도 궁금합니다. 학교에서의 회계가 CPA에 도움이 많이 되나요?

A5. IT-biz 소프트웨어 학과 융합 전공이고 8과목을 수강하면 된다. 회사를 어느 분야로 선택할 건지가 중요하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쪽에 관심이 있다면 코딩 관련된 IT-biz를 선택하는 것도 좋다. 취직을 할 건지 자격증을 공부할 건지 공부를 더 할 건지 정해야 한다. 회사 쪽에서도 시험을 보거나 자소서를 쓰는 방법이 있으니까 선택하면 되고 말하기를 위주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교환 학생을 가고 싶다면 학점과 영어 성적이 중요하다. 영어도 공부하면서 학점을 유지하는 게 좋고 CPA나 노무사 등도 공부할 수 있으니까 잘 정하고 정하는 동안에도 쉬지 말고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어떤 부분을 준비할지 모색해야 한다. 관심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다. 공인 회계사는 학교에서 일정 과목을 수강해야 시험을 볼 자격이 된다.

Q6. CPA의 난이도 및 학교에서 배우는 회계과목이 CPA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도중에 포기를 할 경우 공부했던 것이 공기업/사기업/금융권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6. 교수님의 답변: 영어는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되고 1차에서는 경제를 비롯해 여러 과목을 시험보고 2차에서는 경제가 없는 대신 재무와 다른 시험들이 있다. 은행도 주로 경영보다는 경제 관련된 부분을 많이 질문한다. 은행 쪽에 관심이 있다면 경제 신문을 열심히 읽고 접목되는 부분을 공부해야 한다. 회계사를 준비해도 현재 금융 관련된 부분을 많이 질문하기 때문에 금융권에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 애매한 부분이 있다. CPA가 안 되는 경우는 공기업은 조금 관련이 될 수는 있지만 회계 관련된 과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내용도 파악해보고 진로를 잘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금융권도 은행과 증권 분야를 갈 때 준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당장 정할 부분은 아니고 학원가를 가서 관련된 과목을 들어보고 모의고사를 본 후 상황이 어떤지 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 CPA 선배님들이랑 특강 한 번 주최할 수도 있으니까 자리가 마련되면 그때 얘기를 잘 들어보면 된다.

Q7. ROTC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나이도 스펙이라는 말이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알고 싶습니다.

A7. 교수님의 답변: 삼수를 한 것도 아니고 재수를 한 거면 그런데 공군 ROTC는 3년 정도의 기간이 되니까 시간이 긴 만큼 잘 고민을 해봐야

한다. 현역으로 간다면 1학년 마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또 영어는 말하기를 위주로 꼭 꾸준히 해야 한다.

Q8. 제일 고민은 군대를 갈 시기가 고민이다. 지금 경쟁률이 세서 빨리 가기 힘든 상황이라 힘들다. 자리가 생기면 2학년 1학기 끝나고 가고 싶지만 시기를 잘 봐야할 것 같다.

A8. 1학년 끝나고 가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2학년 끝나고 가도 나쁘지는 않다. 현재 갈 수 있는 시기에 빨리 가는 게 좋다.

(2) 지도교수님 조언



개인별로 진행하여 지도교수 간담회 사진은 없고, 회식 사진만 있습니다!

4. 우리가 희망한 활동

- 일 자 : 2020.11.06 (금) 19:00~23:00
- 장 소 : 신촌
- 주 제 : 학교 가까이에서 친목 모임하기
- 활동내용 : 내용 : 1학기때 만나보지 못하였던 멘티들과도 첫만남을 가지고, 2학기지만 아직 친해지지 못한멘티들끼리도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경영학과 17학번 선배도 초청하여 만남을 가져, ROTC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또한 학교 생활 꿀팁, 공부 꿀팁들을 물어보며 좋은 시간을 가졌다. 정초운 학생만 아쉽게 참여하지 못하고, 나머지 9명의 멘토멘티가 모두 참여하였다.



와글와글 우리조 새내기들

5. 멘토링 참여소감

- 멘토 이은우 - 1학기때보다 더욱 활발한 소통과 잦은 만남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멘티 친구들이 나에게 불편한 기색 없이 많은 질문을 해주어서 뿌듯했고,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다. 특히 내가 주최한 홈페이지 활용 프로젝트가 호평을 받아 아주 뿌듯하였다. 멘티들이 조금 이나마 일찍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관심을 가지고, 성적 향상에도 신경을 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잘 따라주고 적극적인 멘티들 덕분에 2학기 멘토링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다.
- 멘티1 전해인 - 코로나 때문에 학교 활동을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멘토멘티 활동을 통해 선배 동기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또 혼자자라면 찾아보기 어려웠을 정보들을 멘토링 활동을 통해 알게 되어서 유용했습니다.
- 멘티2 정초운 - 코로나로 인해 학교생활, 진로 문제 등 여러 궁금증들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적었는데 멘토링을 하며 선배님의 조언과 설명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멘티3 주연우 - 동기들과 선배들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모르는 정보를 알 수 없어서 답답할 수 있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 대해 모르는 점이나 협업해야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알 수 있어서 매우 유용했다.
- 멘티4 추세빈 - 동기들과 친해지기 어려웠던 비대면 학교 상황에서 3중 멘토링을 통해 동기, 선배들과 친해져서 전반적인 학교 생활에 매우 유익했다.
- 멘티5 최만준 - 일년 동안 제대로 된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해 정말 아쉬울 것 같았고, 한편으론 친구를 사귄 기회는 있을까 라는 불안감도 들었다. 허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이 불안감을 줄일 수 있었고, 동기들, 선배님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매우 만족한다.
- 멘티6 조기홍 - 같은 학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좋았고 담당교수님과 일대일 면담으로 진로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좋았다.
- 멘티7 홍준표 - 멘토님으로부터 학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갈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멘티8 조유민 - 멘토링을 참여하여 학교 사람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같은 과 친구들과 친목 도모를 하고 멘토링을 함으로써 학교 생활에 모르는 것을 편히 물어볼 수 있었던 것 같다.
- 멘티9 이현준 - 코로나로 인해 대학생활도 못 해보고, 대학 동기들도 만나지 못했습니

다. 그런 상황에서 멘토링은 유일하게 대학 동기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마저도 많은 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가끔 만날 때마다 알찬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또, 교수님과의 상담은 저의 진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게 해주는 좋은 계기가 되어준 것 같습니다.

6. 3중 멘토 개인별 성과

- 멘티1 전해인 -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멘토링 활동을 통해 물류 복전에 대해서도 많이 고려해볼 수 있었고 금융업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멘티2 정초윤 - 진로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으나 멘토링을 하며 좀 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보게 되었고 승무원이라는 진로설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멘티3 주연우 - 선배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원하는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내가 게임회사에서 마케팅, 연출이나 디자인 중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대만 취업을 위해서는 일단 언어적인 측면을 향상해야함을 느꼈다.
- 멘티4 추세빈 - 금융권으로 나아가고 싶었는데, 이에 대해 지도교수님의 첨언과 외부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 내가 몰랐던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 내가 앞으로 내 진로를 위해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할 지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 멘티5 최만준 - 작년부터 2021년에는 멘토로 도전해보고자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짧은 시간동안 지원서도 작성하고 면접 준비도 하였는데, 다행히 결과 또한 좋게 나왔다. 내가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며 느꼈던 점들을 지원서와 면접에 잘 녹여내어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것도 어찌보면 멘토링의 성과가 아닌가 싶다.
- 멘티6 조기홍 - 진로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금융계열과 공무원 두가지 길로 선지를 좁힐 수 있었다
- 멘티7 홍준표 - 멘토링으로 알게된 다양한 정보와 교육을 통해 진로 목표인 방송pd에 한발짝 다가가게 된 것 같습니다.
- 멘티8 조유민 - 나는 경영학과 중에서 회계 분야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어 회계사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다. 또한 학군 장교로 활동하면서 공군 장교로의 진로도 경험해 볼 예정이다

멘티9 이현준 - 전문가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많은 경험과 스펙을 쌓아줬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경험을 쌓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나중에 다양한 봉사활동이나 교내활동을 통해 경험을 쌓을 것이고, 방학 동안 한국사 시험과 토익 시험을 준비해서 기초적인 스펙을 쌓을 것입니다.

7. 멘토활동 포스터

새내기 멘토링- 경영자들



우리조 모두가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시간~
경영학과 17학번 선배도 초청하여 만나보았다!
ROTC인 선배에게 ROTC에 대한 질문도 하고
학교 생활, 공부 꿀팁들을 물어보며 좋은 시간을 가졌다.
너무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서 행복한 날이었다~



시험기간을 맞아 멘토링 야식사업 오픈!!
멘티들에게 우선적으로 좋은 상품을 분배하고 실시간 라이
브로 사다리타기 북북북을 통해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야식사업을 통하여 기말고사에 활력과 힘을 주고자 하였다.
치킨아 나와라!!



대학 일자리센터나 학생역량관리 시스템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실시한 프로젝트!
홈페이지를 탐색해보거나, 사이트에 있는 여러 진로와 적성
에 관련한 검사를 해보고 경향도 타보자!!
멘티들이 앞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
라는 포부를 밝혀주어서 제일 의미 있는 활동인 것 같다.